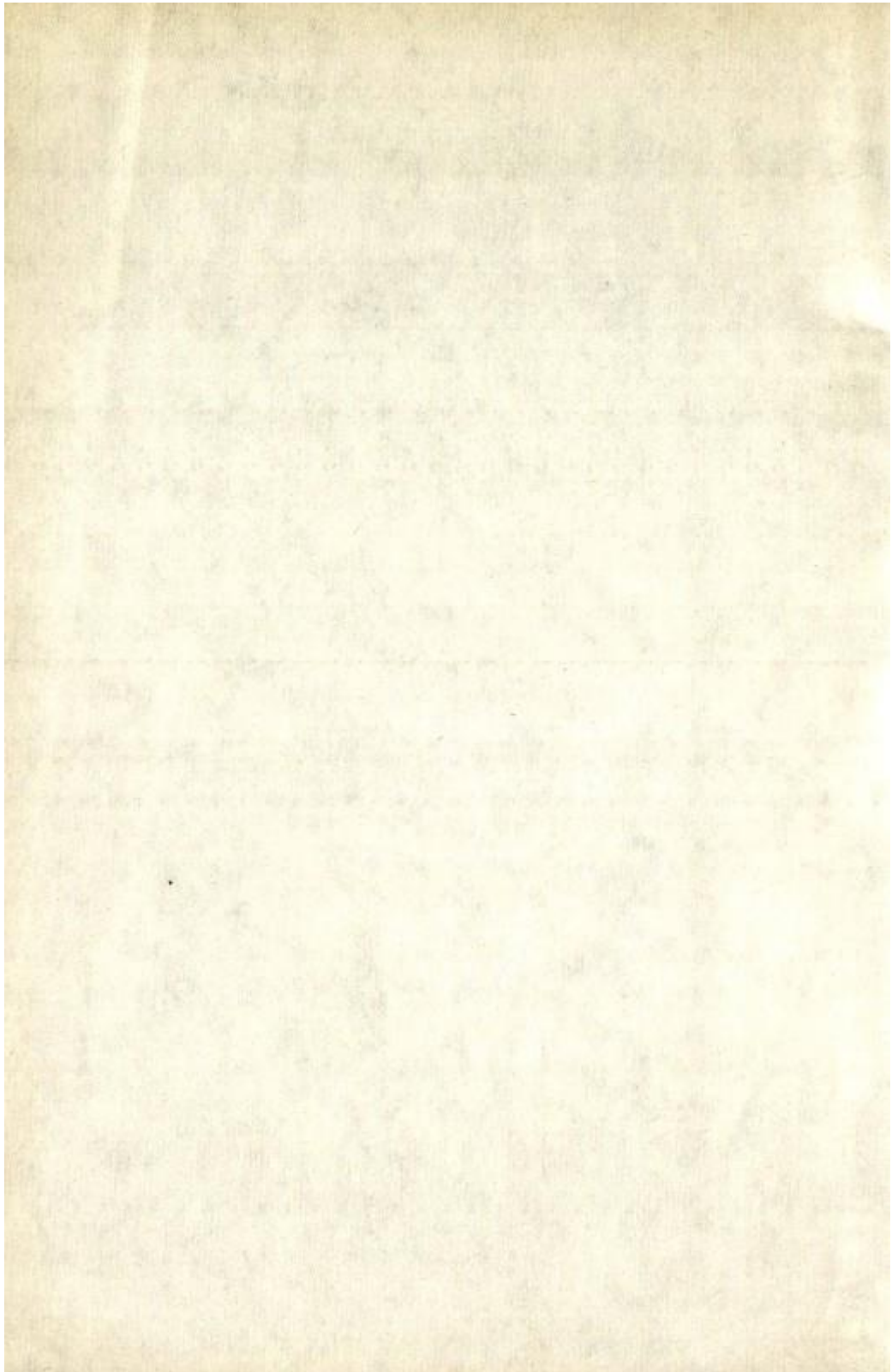


東邦式

速記學(下)

創案 根 東 李
共編著 賢 康 柳

學友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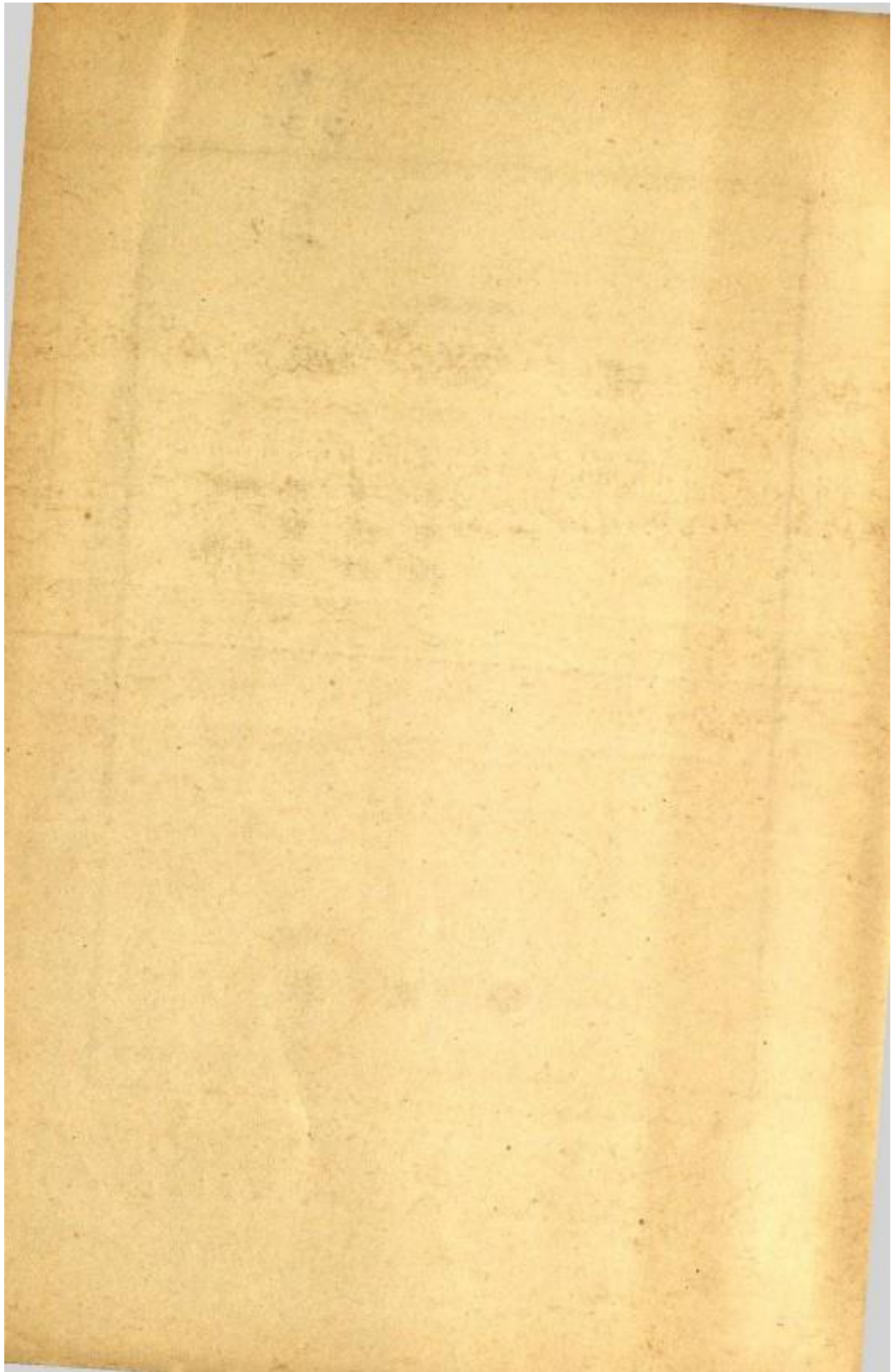
謹呈

東邦式

學 記 速

創案 根賢台
共編 東康舜
李李柳

學 友 社



序 文

速記文字는 쓰기 쉽고 빨리 쓸 수 있으며, 기억하기 쉽고 틀리지 않게 빨리 音聲의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速記學에서는 顯文이라 함) 考案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간략하고 빠른 速記文字를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과 마찬가지로 익숙하게 쓸 수 있도록 숙달만 된다면 우리 日常生活에서의 言語活動에는 一大革新이 이루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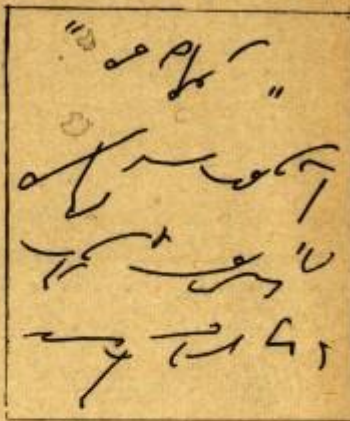
각종 會議錄, 取材記者의 메모, 講義內容을 記錄하는 各급學生들의 노트, 法院의 裁判記錄 등에서 뿐 아니라 秘書들의 口述記錄이나 電話上的 相談 메모에 이르기까지 이루 해야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分野에 있어서 發言內容(陳述內容)과 記錄內容을 一致시킬 수 있는 速記야말로 완벽하고도 驚異的인 記錄文化의 產物이라 할 수 있겠다.

文字가 意思傳達을 爲한 하나의 符號라 한다면, 그 符號는 複雜을 피하고 簡略하게 改良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長時間의 筆記, 發音速度와 같은 記錄速度를 요하는 筆記 등 여러 가지 難題들을 수반하는 오늘날의 筆記活動에서, 우리들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글쓰는 勞力을 하는데 온갖 精力과 長時間을 소비당하고 있음을 부인치 못할 것이다.

이 저서는 이와 같은 不合理性을 是正·補完하여 모든 社會構造가 「스피드」化되어 가는 우리들의 日常生活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速記文化向上에 기여하기 위하여 出刊되었다.

本速記法이 創案 發表되기는 1948年 2月 大潮出版社(당시 서울 所在)를 통해서였고, 다시 6.25事變 후인 1952年 7月 世文社(당시 大邱所在)를 통해 補完出刊된데 이어 今日 또다시 創案 이래 30年間의 研究結果를 總整理하여 再出刊된 것은 創案者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速記界를 위해서도 榮光



된 일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본 저서가 出刊되기까지 晝夜로 東奔西走의 勞苦를 아끼지 않은 李康賢
· 柳舜台 두 同門에게 진심으로 謝意를 표한다.

1977年 8月 15日

李東根

自 序

人間の 思考는 言語에 의하여 表現되고, 사라져 가는 言語를 눈으로 볼 수 있게 有形의 符號로서 表記한 것이 文字이며, 言語를 特定の 符號에 의해 正確·超速度로 記錄하여 다시 一般文字化하는 活動이 速記이다.

따라서 速記는 迅速·正確을 요하는 오늘날의 政治·經濟·社會·文化 등에 기여하는 바 크다.

우리 나라에 速記術이 創案·活用되어온 지도 어언 30餘年, 현재 速記術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곳이 議會와 각종 會議·座談會 및 學術세미나 등이지만 迅速·正確을 요하는 新聞·雜誌·放送 등 言論機關에 종사하는 取材記者들에게는 더욱 速記의 必要性이 강조되고, 裁判·著述·秘書業務를 비롯한 日常生活에 있어서도 速記術은 文明의 利器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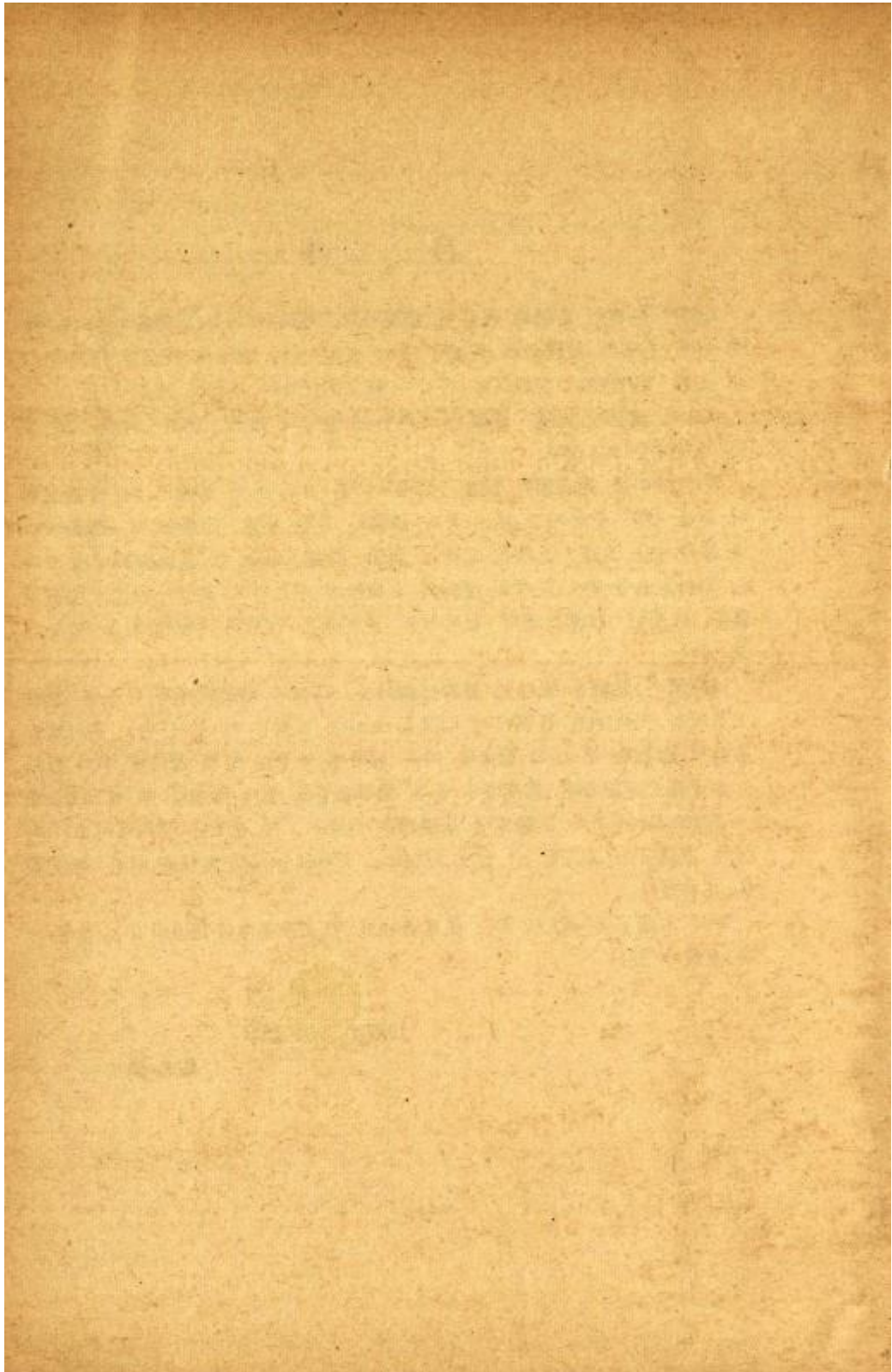
速記術은 熟練을 요하는 特殊技術이다. 그러나 精密機械를 다루는 熟練工들처럼 天性的인 資質이나 知識을 요하는 技術은 아니다. 즉, 우리말을 올바르게 聽取할 수 있고 한글을 아는 者라면 누구나 쉽게 習得할 수가 있다.

本東邦式速記學은 講義用은 물론 獨學者들도 쉽게 理解할 수 있도록 上·下卷으로 나누어 上卷에선 基礎篇을 다루어, 이 정도만 習得하여도 어떠한 表現이든 表記할 수 있게 하였고, 下卷에선 速記實務를 위한 略記篇을 다루었다.

특히 本冊子의 速記文字는 創案者이신 李 東根先生의 親筆이라는 점에 더 큰 意義가 있다.

1977年 8月 15日

編者 識



目 次

序 文	1
自 序	3
第1章 略記法の 意義	15
I. 의 의	15
II. 필요성	15
III. 약기법의 구성원리	16
1. 조직적 약기법	16
2. 실리적 약기법	16
3. 철충적 약기법	17
IV. 약기법의 정당성	17
第2章 一般略記法	19
I. 간이 약부	19
II. 접속사 약부	20
1. 「에」·「게」·「제」에 붙는 접속사 약부	21
2. 「을」·「를」에 붙는 접속사 약부	23
3. 「으로」·「로」에 붙는 접속사 약부	24
4. 「와」·「과」에 붙는 접속사 약부	25
5. 「도」·「에도」에 붙는 접속사 약부	26
III. 관계조사 약기법	27
1. 「하기」의 약부	27
2. 「되어」·「되기」의 약부	29
3. 「든지」·「든가」의 약부	30
4. 접 및 기본 문자에 부가하는 약부	31
5. 「가지고」의 약부	32
6. 「기 전에」의 약부	33
IV. 대치조사 약부	34
V. 원형 약부	36

8 目次

1. 소원 약부.....	36
2. 중원 약부.....	37
3. 대원 약부.....	38
IV. 「또」 응용 약부.....	39
V. 최장선 접속사 약기법.....	40
1. 「가」행 최장선 접속사 약부.....	40
2. 「아」「자」행 최장선 접속사 약부.....	41
第3章 上線略字.....	44
1. 상선 약자 (1).....	44
2. 상선 약자 (2).....	45
3. 상선 약자 (3).....	45
第4章 중간 약부.....	56
1. 중간 약자 (1).....	56
2. 중간 약자 (2).....	57
3. 중간 약자 (3).....	57
第5章 最長線略字.....	63
1. 「가」행 최장선 약자.....	63
2. 「나」행 최장선 약자.....	64
3. 「다」행 최장선 약자.....	64
4. 「라」행 최장선 약자.....	65
5. 「마」행 최장선 약자.....	65
6. 「바」행 최장선 약자.....	66
7. 「사」행 최장선 약자.....	66
8. 「아」행 최장선 약자.....	67
9. 「자」행 최장선 약자.....	68
10. 「차」행 최장선 약자.....	68
11. 「카」행 최장선 약자.....	69
12. 「타」행 최장선 약자.....	69

13. 「과」행 최장선 약자70
 14. 「하」행 최장선 약자70

第6章 最長線應用略字.....86

1. 민 족86
 2. 역 사86
 3. 학 교87
 4. 예 산87
 5. 정 신87
 6. 주 의88
 7. 여 러 분88
 8. 협 정88
 9. 기 및 분기89
 10. 절89
 11. 층90
 12. 은 행90
 13. 주식회사90
 14. 조 합91
 15. 당 국91
 16. 보 험91
 17. 자 금92
 18. 방 송92
 19. 협 회92
 20. 본 부92
 21. 부(部) 및 부(府).....93
 22. 장 관94
 23. 공 사94
 24. 계 획95
 25. 청95
 26. 위원회96
 27. 도(道)96
 28. 적(的)97
 29. 세(稅)97
 30. 법(法)98

31. 특별회계99

第7章 一般應用略符100

 I. 일반응용 약자·약부100

 1. 원100

 2. 물가 및 소송100

 3. 당101

 4. 시일내101

 5. 회 의101

 6. 회 답102

 7. 조 치102

 8. 군102

 9. 기 타103

 II. 회의용어 약자·약부104

 1. 말 씀104

 2. 대단히104

 3. 기 타105

 III. 국명 약자106

第8章 英文字 應用略字·略符107

第9章 基本動詞 略記法109

 I. 기본동사 약자109

 II. 기본동사 약자의 원형110

 1. 일반동사 약자의 원형110

 2. 특수동사 약자의 원형110

 III. 존 칭112

 IV. 동사 및 일반문자의 어미변화113

 1. 겹(·) 위치 변화113

 2. 라하 빼침선(ノ) 위치변화114

3. 가행직선(一) 위치변화.....114
 4. 소원형(O) 위치변화.....114
 5. 우상 비침선(/) 위치변화115
 6. 영문 에스자형(S) 위치변화.....115
 V. 동사의 시제 변화.....116
 1. 「현재·과거·대과거·미래」의 동사변화.....116
 2. 기타 동사변화.....117
 VI. 복합시제 응용약기법121

第10章 動詞應用略記法.....124

I. 「근수」 생략법124
 1. 가 능125
 2. 불 능125
 3. 의 문125
 4. 규 정125
 5. 미 래126
 6. 의사표시126
 7. 추 측126
 II. 「동사기본형+조사」-「L」받침동사 응용약기법126
 III. 「동사+의문형」 약기법128
 1. 「너까」형.....128
 2. 「십니까」형.....128
 3. 「는가」형.....129
 4. 「근까」형.....129
 VI. 접두어 및 접미어 응용 동사 약기법.....130
 1. 접두어 응용 동사 약기법130
 2. 접미어 응용 동사 약기법 (1)131
 3. 접미어 응용 동사 약기법 (2)133
 4. 접미어 응용 동사 약기법 (3)134
 5. 접미어 응용 동사 약기법 (4)135
 6. 접미어 응용 동사 약기법 (5)137
 7. 접미어 응용 동사 약기법 (6)138

12 目次

8. 접미어 응용 동사 약기법 (7)139
9. 접미어 응용 동사 약기법 (8)140
10. 접미어 응용 동사 약기법 (9)141
11. 접미어 응용 동사 약기법 (10)142
V. 복합동사 응용 약기법143
1. 「이라」변형 약기법143
2. 「동사+동사」변형 약기법143
3. 위치변화 응용 약기법145

第11章 漢字應用略記法.....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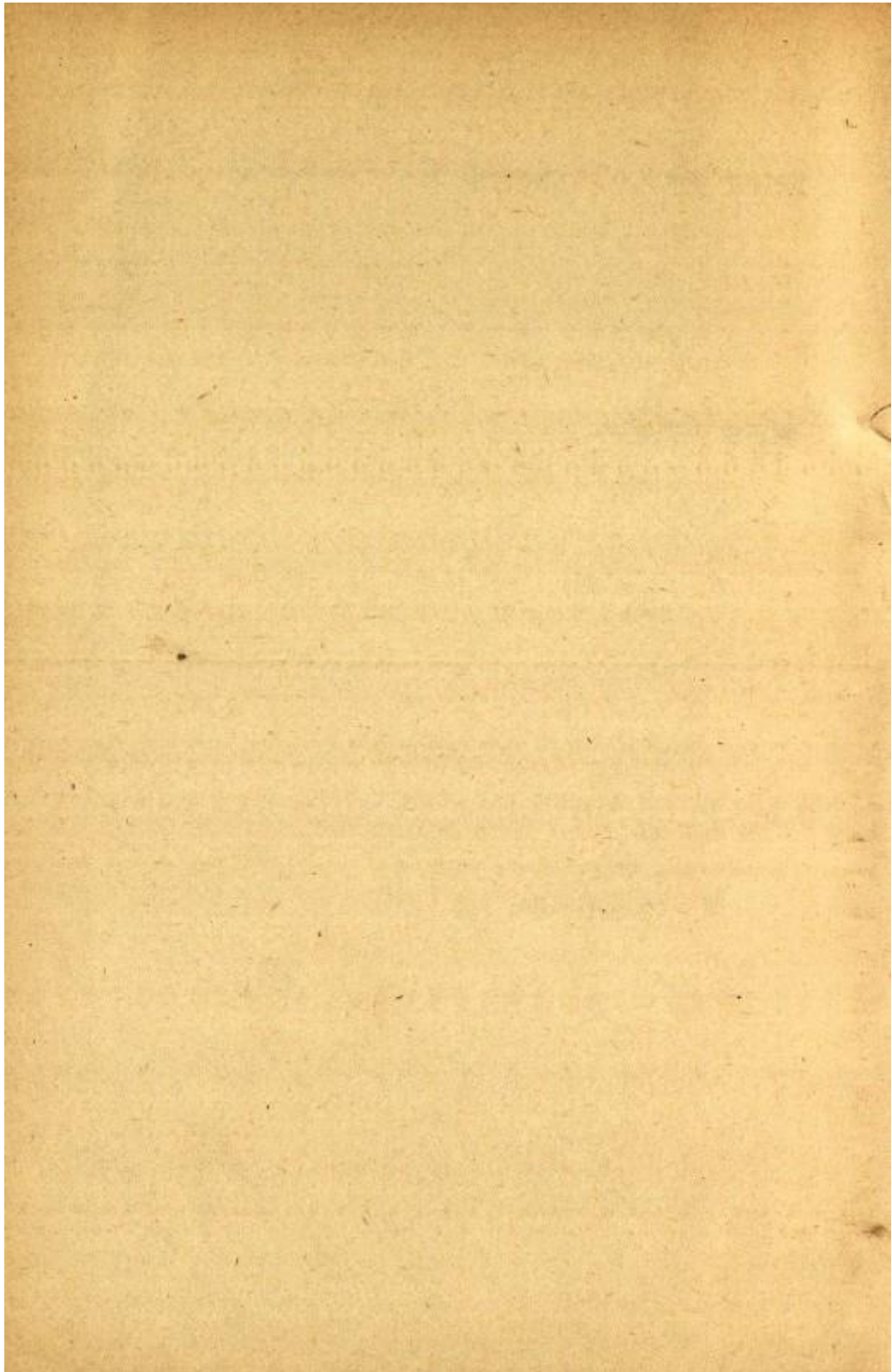
I. 한자 응용 약자의 기본형 147
II. 한자 응용 약자의 시제 변화 148
III. 한자 응용 약기법의 활용 156
1. 한자 응용 약자+동사 156
2. 한자 응용 약자+일반문자 157
3. 한자 응용 약자 시제변화의 일반문자 시제변화 응용법 157

第12章 四字成句略記法.....159

第13章 記事略符.....162

I. 박수 및 웃음 약부 162
1. 박 수 162
2. 웃 음 163
II. 고유명사와 주의부 163
1. 고유명사 163
2. 주의부 164
III. 발단부와 종결부 164
1. 발 단 부 165
2. 종 결 부 165
IV. 재청·삼청 및 장내 소란 165
V. 하는 이 있음 166

第14章 效果的인 速記練習法	186
I. 연습 방법	186
1. 쓰기 연습	186
2. 읽기 연습	188
3. 번문 연습	188
II. 자기문자체의 연구	189
第15章 原稿整理	191
I. 원고정리의 의의	191
II. 원고 용지	192
III. 원고 쓰는 법	193
IV. 맞춤법 문제	194
V. 띄어쓰기	195
1. 토와 어미	195
2. 접두사와 접미사	197
3. 첩어와 복합어	197
4. 띄어쓰기와 붙여쓰기의 범위	198
5. 결 어	198
VI. 외래어 표기법	199
1. 의 의	199
2.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방법	199
VII. 구뚝점과 기타의 기호	202



第 1 章 略記法の 意義

I. 의의 (意義)

일반적인 대화(對話)나 강연 및 연설에 있어서 사용 빈도수가 특히 많은 단어(單語)를 그 단어에 국한하여 주어진 특수 부호 문자(特殊符號文字)로써 표기한 속기 문자를 약자(略字)·약부(略符)라 하고, 이러한 약자·약부를 일정한 체계하에서 줄여 쓰는 방법을 약기법(略記法)이라 한다.

II. 필요성 (必要性)

속기 문자(速記文字)는 본래 극히 간단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그 연결(連綴)은 매우 경제하고도 신속하기 때문에, 연습에 연습을 충분히 하여 어느 정도의 기술만 향상되면 아무리 장시간(長時間)의 대화나 강연이라 할 지라도 일반 문자의 필기시와 같은 손목의 피로는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발음량(發音量)은 일정한 시간에도 항상 평균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허다하다. 더구나 아무리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속기 문자이긴 하지만 기본 문자만으로서 1분간에 250자 내외 밖에 쓸 수가 없으므로 1분간 300자 이상을 발음하는 발언자의 발음량을 그대로 빠짐없이 기록하기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평균 발음량 250자의 발언을 하는 발언자라도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음할 수도 있다. 그러한 사람의 발음을 빠지지 않고 속기하려면 때

우 분명한 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때에 기본 문자를 응용한 보다 능률적인 약기법을 응용하면 빠짐없이 발언을 속기하려는 속기자(速記者)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Ⅲ. 약기법의 구성 원리(構成原理)

1. 조직적(組織的) 약기법(略記法)

조직적인 약기법이란 언어학(言語學)에 근거를 두고 문자 연결(文字連續)의 변화 법칙을 규정한 약기법이다.

이러한 조직적 약기법은 일정한 문법적 체계하에서 구성되는 약기법인 만큼 초보자(初步者)가 속히 암기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2. 실리적(實理的) 약기법(略記法)

실리적인 약기법이란 미리 두뇌의 직각적(直覺的) 활동(活動)을 예견하여 규칙적인 문법 법칙(文法法則)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一定)의 약자·약부를 정하여 이것을 기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실리적 약기법은 그 약자를 두뇌로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손이 익숙하여져서 반사적(反射的)이고도 본능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실리적 약기법이란 심히 비조직적(非組織的)이요, 유치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실제의 활용면(活用面)에서 볼 것 같으면 오히려 전술한 조직적 약기법을 능가할 수 있는 아주 능률적인 면도 없지 않다.

왜냐 하면 실리적 약기법은 약자(略字)를 아무 사고(思考)를 요하지 않고 숙련에 의해 순순히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3. 절충적(折衷的) 약기법(略記法)

절충적 약기법이란 조직적 약기법과 실리적 약기법의 장점을 취하여 구성된 약기법이다.

IV. 약기법의 정당성(正當性)

속기(速記)는 원래 발언자(發言者)의 발음(發音)을 충실히 속기하고, 정확한 일반 문자(一般文字)로 번문(翻文)할 수 있으면 속기의 목적은 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속기사(速記士)가 속기할 때에 있어서는 정확한 번문만 나올 수 있다면 발언내용에 대한 문법(文法)의 정부(正否)에 구애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저명한 인사들의 웅변이나 강연에 있어서 연사(演士)가 풍부하게 되면 때때로 문법의 법칙을 벗어나 비문법적(非文法的)으로 발언되는 내용을 흔히 보게 된다.

그 좋은 일례(一例)로서는 국회 의사당(國會議事堂) 내에서 행해지는 의원(議員)들의 발언을 청취해 보면 우리가 그저 듣기에는 아무런 이상 없이 들을 수 있으나 이것이 일단 속기사(速記士)들의 손을 거쳐 속기되고 일반 문자화(一般文字化)되고 보면 그 내용과 문장(文章)이 서로 모순되고 비문법적인 면을 히다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속기사들은 그들의 임의(任意)로 이런 비문법적인 어구(語句)를 문법화(文法化)하거나 문장화(文章化)시키든지, 혹은 수정(修正)을 할 수 없다.

18 第1章 略記法の意義

그러므로 속기(速記)는 원칙적으로는 일정한 체계하의 속기 문법에 따라 쓰되 경우에 따라선 그러한 문법과는 전혀 관계 없는 실리적인 약자(略字)나 약부(略符)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요는 정확한 번문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될 뿐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속기는 속기 자체(自体)의 실용적인 면에서 고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第2章 一般略記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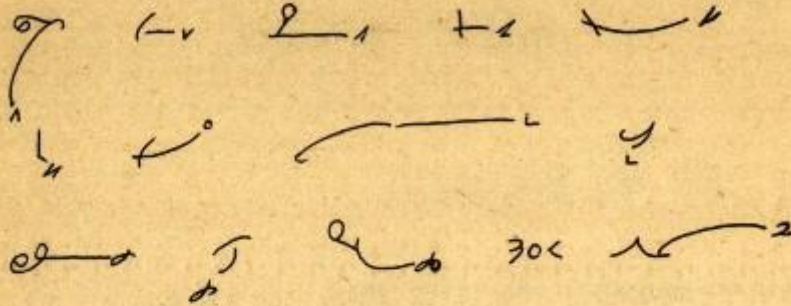
I. 간이 약부(簡易略符)(1)

간이 약부(簡易略符)라 함은 실리적(實利的) 약기법(略記法)의 일종으로서 기본 문자와는 아무런 관계 없이 간편하고도 쉽게 쓸 수 있도록 구성된 약부다. 그리고 간이 약부에는 독립적인 사용 여부에 따라 독립형 간이 약부(獨立形 簡易略符)와 접속형 간이 약부(接續形 簡易略符)의 두 종류가 있다.

먼저 독립형 간이 약부는 약부 그 자체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약부를 말하고, 다음 접속형 간이 약부는 약부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문자에 접속(接續)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약부를 말한다. 접속형 간이 약부는 부속형(附屬形) 간이 약부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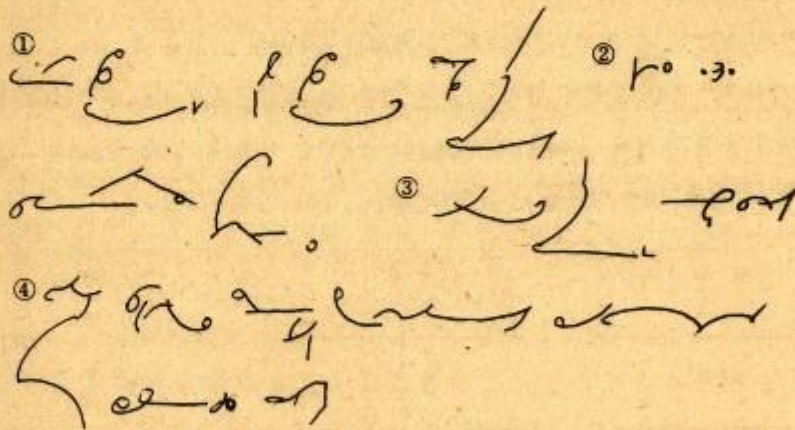
————— /	————— V	————— /
적인, 반대어	땀, 빛	에다
————— /	————— /	————— /
에다가	같은	같은데
————— o	————— L	————— /
부터	까지·가지	스럽다
————— /	————— /	————— <
스럽게	스러운	명(名)
————— 2		
한데, 한편		

〈보기〉



[예 문]

(1) 교장선생님 및 담임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이제부터 제3차 정기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생이 많았다. (4)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은 한국 산악인 뿐만 아니라 온민족의 영광스러운 업적이다.



II. 접속사 약부 (接續詞略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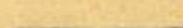





단어와 단어, 절(節)과 절을 연결시켜 주는 품사를 접속사(接續詞)라 한

다. 이 접속사 중에는 이미 상권에서 배운 고정된 하나의 조사(助詞)에 고정된 접속사가 예속되어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 바, 이 공통성 있는 접속사를 간주려서 고정된 조사에다 하나의 약부를 가함으로써 전체 접속사를 대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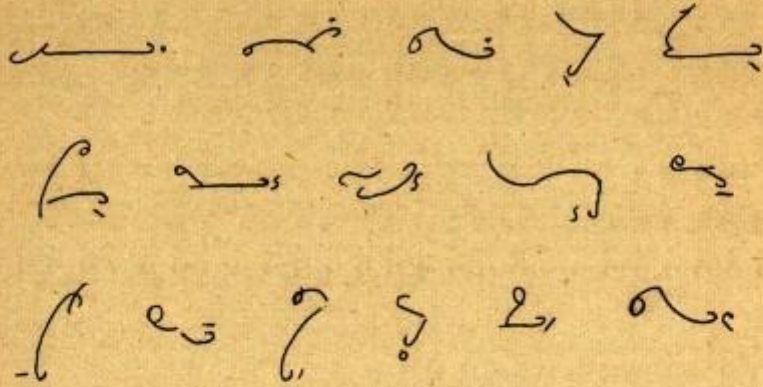
이 약기법 역시 실리적 약기법에 속한다. 다시 말해서 속기사(速記士)란 속기 문자를 논리적이고 학술적으로 연구·분석하는 직(職)이 아니라 다소 비논리적이라도 약자·약부(略字·略符)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외우고 손에 익혀 청취와 동작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특수 숙련직, 또는 기능적임을 염두에 두고 속기술 연습에 임해야 한다.

1. 「에」·「기」·「계」 에 붙는 접속사 약부

조사의 정측(正側)이나 반측(反側) 및 끝에다 가점(加點)이나 2mm길이의 기본 문자형, 또는 극소원(極小圓), 삐침선, 영문 「S」자 등 특수부호를 써 줌으로써 접속사 전체를 약(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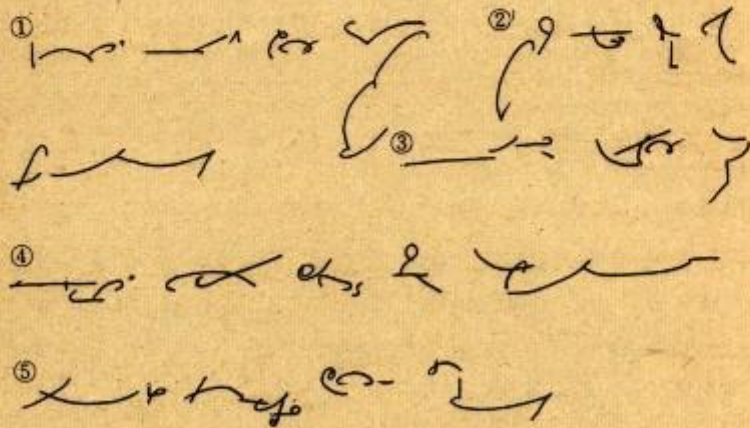
 에 대하여	 에 관하여	 에 의하여
 에 대한	 에 관한	 에 의한
 에 대해서	 에 관해서	 에 의해서
 에 지나지 않는	 에 불과한	 에 의거하여
 에 의하면	 에 대하여는	 에 대하여도
 에 대해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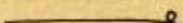












[예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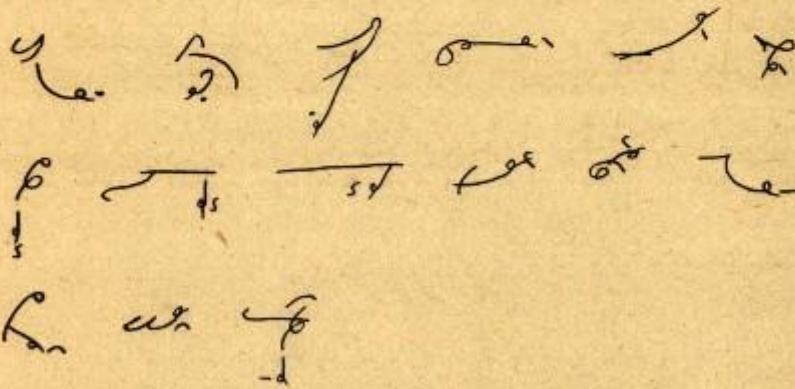
- (1)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2) 당신의 고발에 의하여 범인이 체포되었습니다. (3) 그 안전에 관한 보증 설명을 바랍니다. (4) 국가 경제에 대하여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5) 오늘 까지도 다 못하였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말입니다.



2. 「을」·「를」에 붙는 접속사 약부

 을 위시하여	 을 맞이하여	 을 위하여
 을 위시한	 을 맞이한	 을 위한
 을 위시해서	 을 맞이해서	 을 위해서
 을 위시해	 을 맞이해	 을 가리지않는
 을 무릅쓰고	 을 박론하고	 을 모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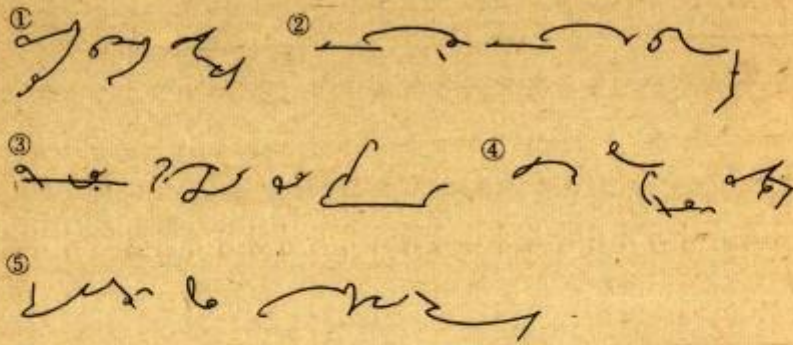
(보 기)



[예 문]

(1) 총리를 위시하여 전 각료가 참석하였다. (2)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입니다. (3) 한글날을 맞이하여 세종대왕의 얼을 되새기자. (4) 몸이 불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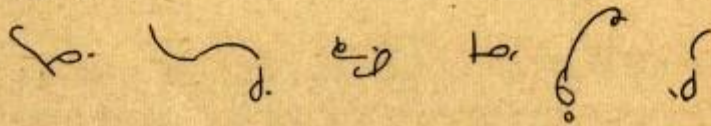
것을 무릅쓰고 출석을 했다. (5)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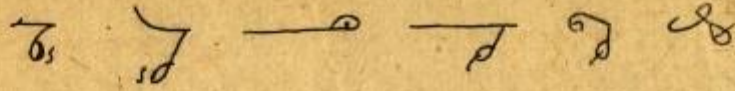


3. 「으로」·「로」에 붙는 접속사 약부

으로 말미암아	으로 하여금	으로 인하여
으로 말미암아서	으로 말미암은	으로 인한
으로 인해서	으로 인해	으로부터
으로부터서	으로부터도	으로부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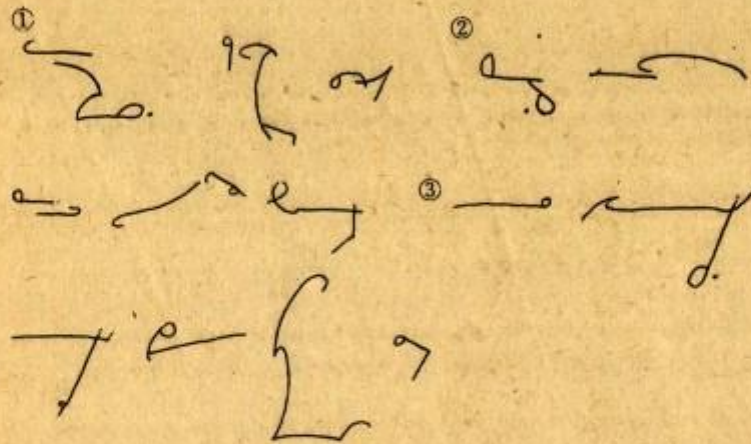
<보 기>





[예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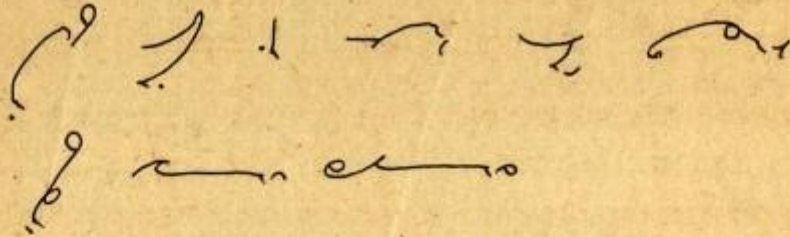
(1) 교통 사고로 말미암아 인명 피해가 많았다. (2) 공해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위험을 받고 있다. (3) 그는 자기 아들로 하여금 그의 뜻을 성취시키고자 한다.



4. 「와」·「과」에 붙는 접속사 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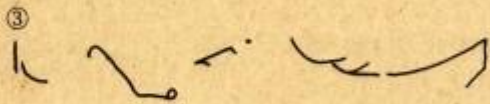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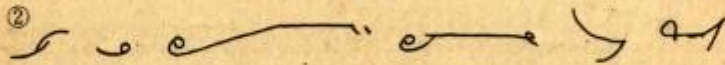
와 더불어	와 같이	와 같은
와 더불어서	와 아울러	와 아울러서
와 함께	와 마찬가지로	와 마찬가지로

〈보 기〉



〔예 문〕

(1)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본고사를 치르겠습니다. (2) 어제 나는 친구와 함께 연극을 보러 갔었다. (3) 이번 휴가는 책과 더불어 보내겠습니다.



5. 「도」·「에도」에 붙는 접속사 약부

—도 불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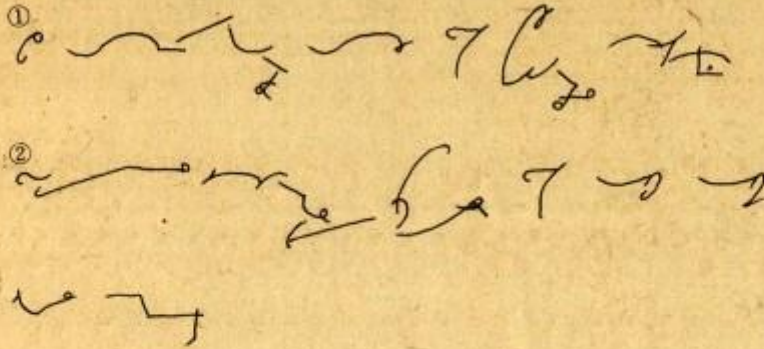
—에도 불구하고

〈보 기〉



[예 문]

(1) 산에 나무가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계속 심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2) 내 친구는 목적인 바를 성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에 노력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III. 관계조사 약기법 (關係助詞略記法)

관계조사(關係助詞)도 접속사와 마찬가지로 문장(文章)의 어구(語句)와 어구를 연결시켜 주는 품사로서 그 약부는 기본 문자와는 관계 없는 실리적 약기법(實利的略記法)에 속한다.

1. 「하기」의 약부

우리 나라 말에는 존칭과 경칭과 비칭이 구별되어 있음이 특징이다. 그러나 본 속기법에서는 존칭어와 보통어로 구분하여 「하기」약부의 경우 존칭어는 보통어의 약부 밑에다 밑줄을 그어서 존칭을 표시한다. 이 약부는 접속형(부속형)이다.

(보통어)

하기	하기가	하기는	하기에는	하기도
하기도	하기로	하기로 하고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하기 위해	하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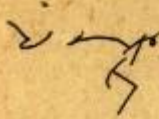
(존칭)

하시기	하시기가	하시기로 하고	하시기 위하여

(예 문)

「속기사는 항상 속기를 하기 위해서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필기구와 용지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선생님이 들었을 때 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별로 실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만족한 속기를 하여 목적을 달성했다.

(Handwritten example text in shorthand script)



2. 「되어」·「되기」의 약부

「되어」와 「되기」의 약부(略符)는 모두 소형원(小型圓)의 일부를 자른 U 자형의 모양이다. 다만 「되어」는 잘린 부분이 위로 향하고, 「되기」는 잘린 부분이 아래로 향한다. 이 약부는 접속형(부속형)이다.

(1) 「되어」의 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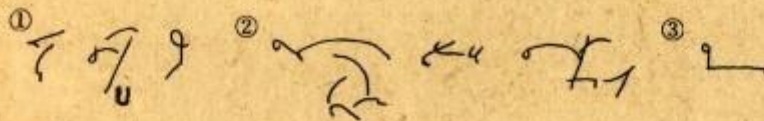
U	U	U	U	U
되어	되어서	되어서는	되어도	되어있는
U-	U	U		
되어버리고	되어가는	되어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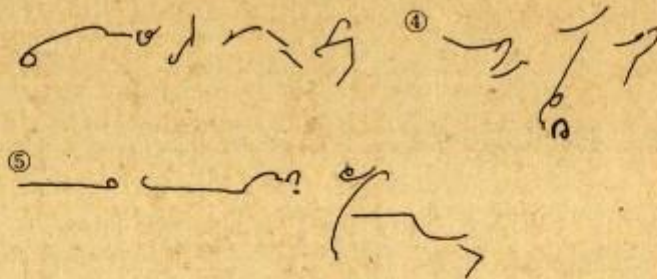
(2) 「되기」의 약부

U	U	U	U	U
되기	되기가	되기는	되기도	되기에
U	U	U		
되기위한	되기위해	되기위해서		

[예 문]

(1) 책상이 잘 정돈되어 있다. (2) 한미통상협정이 체결되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 (3) 인구가 증가되어 있는 이 때에 적합한 대책이다. (4) 노력없이 우등생이 되기는 어렵다. (5) 그는 기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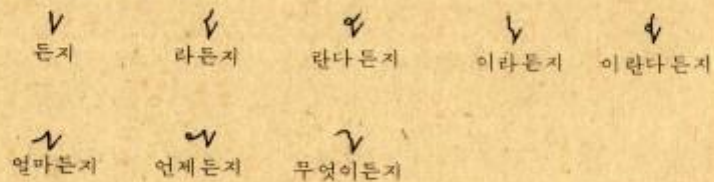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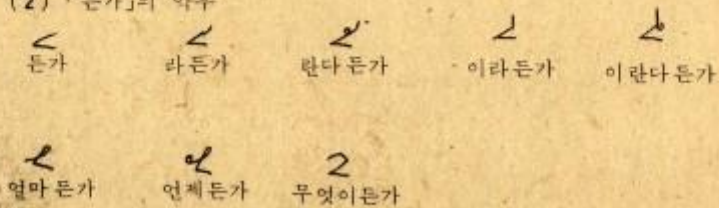
3. 「든지」·「든가」의 약부

「든지」와 「든가」의 약부(略符)는 밑변 없는 2등변삼각형으로 구성하여 밑변 없는 부분이 위로 향하면 「든지」, 오른쪽으로 향하면 「든가」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약부가 들어 있는 복합 어구(複合語句)는 그 첫째 자(字)의 기본 문자(基本文字)에다 「든지」·「든가」의 약부를 붙여 쓴다. 이 약부는 독립형이다.

(1) 「든지」의 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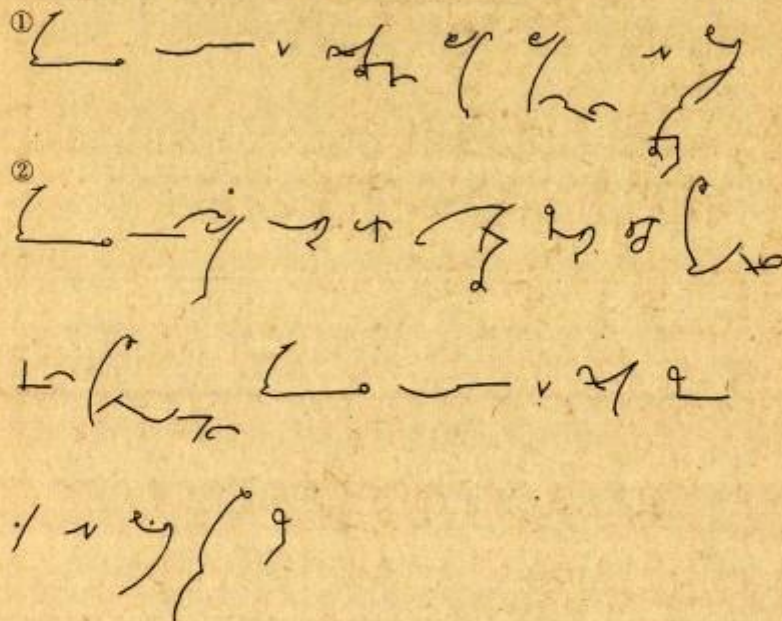


(2) 「든가」의 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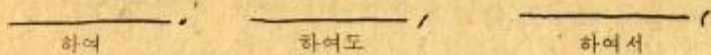
[예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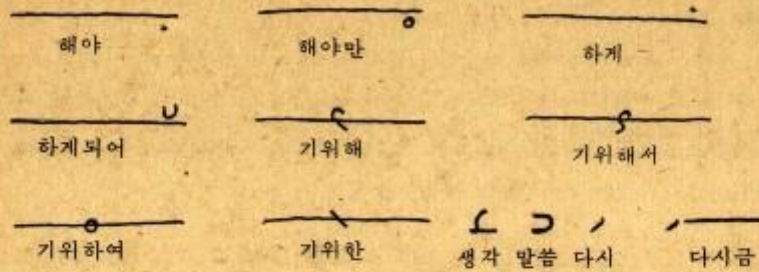
(1) 속기는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것이며, 열심히 연습만 하면 얼마든지 빨리 쓸 수 있는 것이다. (2) 속기는 꾸준히 연습하는 노력과 매일 지속할 수 있는 인내력이 절대로 필요한 것으로서 이것만 실천해 나간다면 속기는 누구든지 배울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빨리 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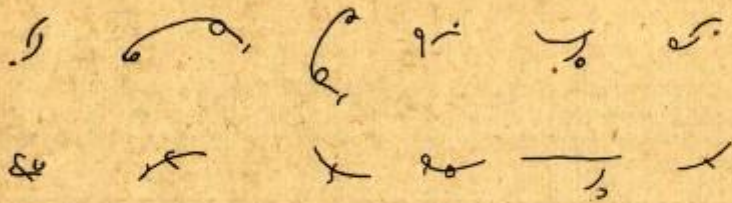
4. 점 (點) 및 기본 문자에 부가 (附加)하는 약부

이 약기법 (略記法)은 기본 문자의 문미 (文尾) 또는 문자의 끝부분을 약간 남긴 점·반측 (正·反側), 혹은 중간에다 일정한 약부 (略符)를 부가 (附加)함으로써 약기 (略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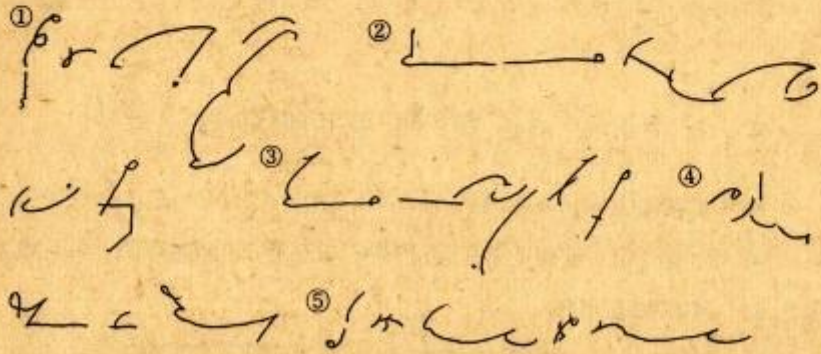


(보 기)



[예 문]

(1) 선생님께서 잘 지도하여 주십시오. (2) 이 기금은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3) 속기는 꾸준히 연습해야 숙달된다. (4) 저는 이런 방법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5)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5. 「가지고」의 약부

「가지고」의 약부는 「가지」약부를 독립형으로 응용한 것이다.

ㄴ
가지고
ㄴ
가지고서
ㄴ
가지고서는
ㄴ
해가지고
ㄴ
있어가지고

ㄴ
없어가지고
ㄴ
의해가지고
ㄴ
그래가지고
ㄴ
보아가지고
ㄴ
주어가지고

ㄴ
시켜가지고
ㄴ
되어가지고
ㄴ
드려가지고
ㄴ
이래가지고

[예 문]

(1) 좋은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2) 일단 일을 맡은 이상에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해야 합니다. (3) 충분한 연습을 해 가지고 자격 검정에 임하자. (4) 공연히 그를 시켜가지고 성공을 못했다. (5)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서야 출발을 하더니 한심합니다.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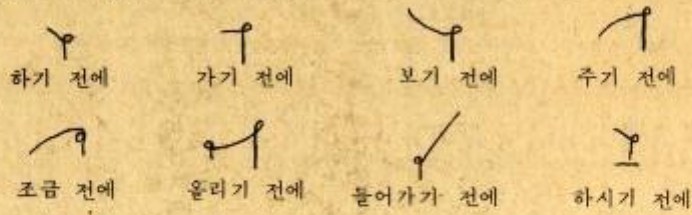
 ④
 ⑤

 ⑥

6. 「기전에」의 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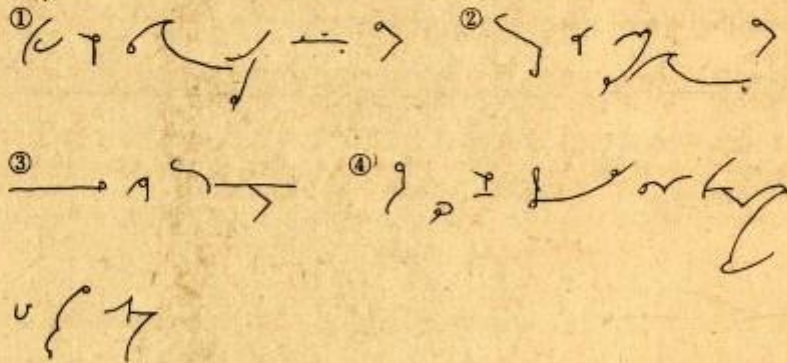
「기전에」와 함께 사용되는 어구(語句)는 원칙적으로 그 어구의 첫째 자

끝에서 「L」받침 중음 연철과 같이 소원(小圓)을 그리면서 수직의 직선을 5mm~10mm 가량 내리긋는다. 그리고 존칭어인 경우는 「하기」약부와 마찬가지로 보통어 밑에 하선(下線)을 긋는다. 특히 「주기 전에」와 「조금 전에」를 주의깊게 익혀야 한다.



(예 문)

(1) 수영하기 전에 준비운동을 꼭 해야 한다. (2)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3) 그는 조금 전에 퇴근했다. (4) 인사말씀을 하시기 전에 임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요. 그것이 순서가 아니겠소?



IV. 대치조사 약부(代置助詞略符)

대치조사(代置助詞)는 접속사(接統詞)와 같은 성질을 띠고 있으나, 조사(助詞)에 붙어 나오는 말을 약(略)하는 약부가 아니라 문장의 구(句)와

구(句)를 연결시켜 주는 하나하나의 단어로 구성된다.

우리 나라의 말에는 꼭같은 뜻을 지닌 말이라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연령·사회적 지위, 또는 인척 관계 등에 따라서 그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 즉 보통어(普通語)나, 존칭어(尊稱語)나가 그것이다. 이 대치 조사에 있어서 보통어는 「아」행, 존칭어는 「사」행으로 구분하여 약기(略記)하고, 그 형태는 영문(英文)의 「V」자형(字型)을 사용하되 발음의 변화에 따라 그 형태도 변화한다.

그리고 보통어인 「아」행은 「V」자형의 약부가 어떤 문자에 연결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벌려진 부분이 윗쪽으로 향해야 하고, 존칭어인 「사」행은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보통어〉

어아	어아만	어아 할	어아지	어아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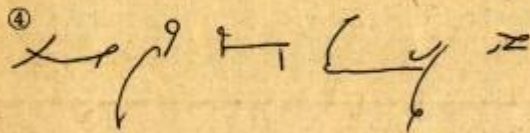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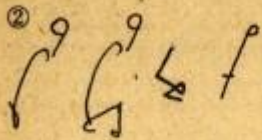
〈존칭어〉

서야, 서서	서야만	서야만할	서야지	서야지요

〈보 기〉

〔예 문〕

- (1) 누구나 자기 책임은 다하여야만 한다.
- (2) 당신도 당신 책임은 다하셔야만 된다.
- (3) 오늘도 나의 일과인 속기 연습을 하여야지요.
- (4) 오늘도 당신의 일과인 속기 연습을 하셔야지요.



V. 원형 약부 (圓型略符)

원형 약부(圓型略符)에는 소원(小圓)·중원(中圓)·대원(大圓)의 3개 약부가 있으며, 그 중 중원과 대원의 약부는 다 같이 중선(中線)에 위치하며, 소원(小圓)만은 용도에 따라 상·중·하선에 각각 위치한다. 그리고 이 약부는 모두 독립형(獨立型)이다.

1. 소원 약부 (小圓略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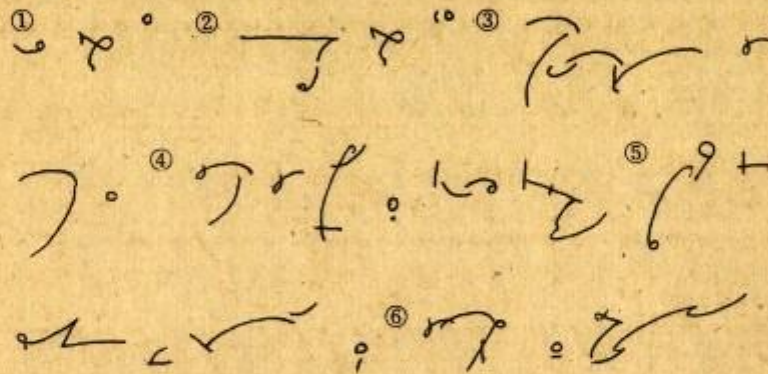
- 1) 상선 $\begin{cases} \circ \dots\dots \text{올시다.} \\ (\circ \dots\dots \text{아니올시다.} \end{cases}$
- 2) 중선 $\circ \dots\dots \text{겠습니다.}$

3) 하선 ○.....입니다. 읍니다. 니다.

4) 소원 부속약부(附屬略符) { ○.....만
○.....마는
○.....니까

[예 문]

(1) 나는 학생이읍시다. (2) 그 사람은 학생이 아니읍시다. (3) 무슨 영문인지 잘 모르겠읍니다. (4) 물론 잘 아실 것입니따만 이번만은 이해하세요. (5) 당신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6) 잘못된 일입니따마는 할 수 없지요.



2. 중원 약부(中圓略符)














○- 여하간 ○, 여하든 ○, 여하한 ○ 하여간 ○ 하여든

[예 문]

(1) 당신은 오늘만은 여하간 들어갈 수 없읍니다. (2) 나는 오늘밤 하여든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3) 여하한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완성하세요. (4)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여간 당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5) 하여든 우리는 오늘 출발해야만 합니다.

① *이제부터* ② *지금부터*
부터 ③ *지금부터* ④ *지금까지*
10시부터 ⑤ *지금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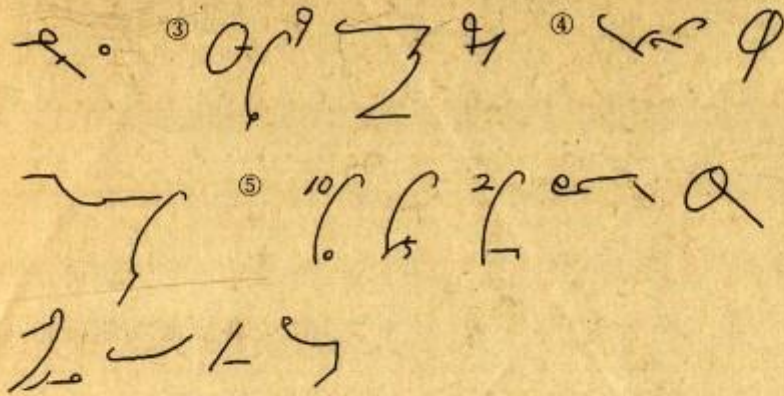
3. 대원 약부 (大圓略符)

				
지금	지금으로	지금은	지금도	지금의
				
지금에	지금으로부터	지금부터	지금까지	지금이라도
				
지금과 같은	지금과 같이	지금 현재		

[예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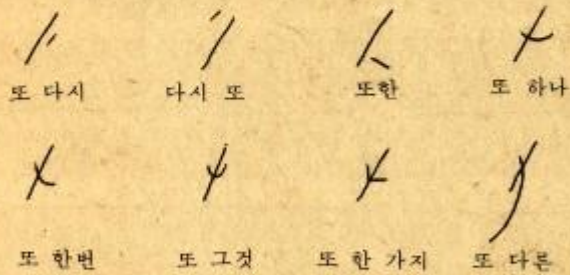
(1) 우리는 지금 속기 연습을 하고 있다. (2) 지금으로부터 제36회 졸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3) 지금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4) 화재 현장에 지
 금이라도 가 보고 싶다. (5) 10시부터 시작해서 두 시간이 경과한 지금 현재처
 리 안건은 겨우 두 건뿐이다.

① *10시부터* ② *지금으로부터*



VI. 「또」응용 약부 (應用略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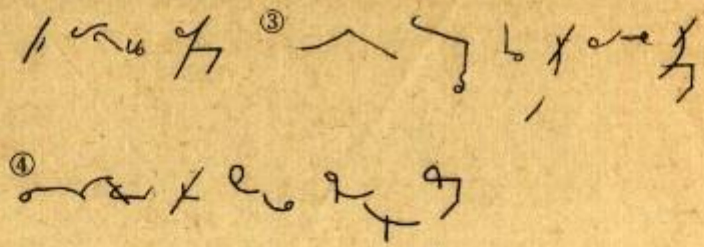
중선의 위치에 쓴 1cm 길이의 「도」에다 빠침선·기본문자 및 다른 약부를 부가(附加)하여 응용한다.



(예 문)

(1) 속기문자는 간편하고 필치 또한 경쾌하다. (2) 그러한 불상사가 또다시 재현되어서는 안 되겠다. (3) 오후 회의에서는 이와는 또다른 안건을 다룰 것이다. (4) 문제 해결의 또 한 가지 방법은 인쇄뿐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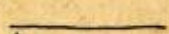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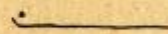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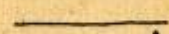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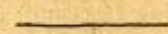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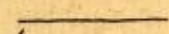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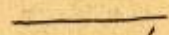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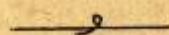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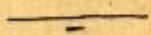




Ⅶ. 최장선 접속사 약기법 (最長線接續詞略記法)

동방식 속기법에서의 기본 문자 중 가장 길이가 긴 문자가 15mm였으나, 본 약기법에서 사용되는 최장선(最長線)을 이용한 접속사 약부의 길이는 2cm에서 2.5cm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속기 문자(速記文字) 중 가장 긴 문자이며, 항상 독립(獨立)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그 형(型)은 「가」행 최장선 접속사 약부와 「아」·「자」행 최장선 접속사 약부로 나누어진다.

1. 「가」행 최장선 접속사 약부

			
그러며	그러니	그러나	그리고
			
그러네	그렇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다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깐	그렇지만

그러한	그런데도	그런데도 X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므로	그럼으로써	그리하여	그리하여서
그런고로	그런고로 해서		

2. 「아」·「자」행 최장선 접속사 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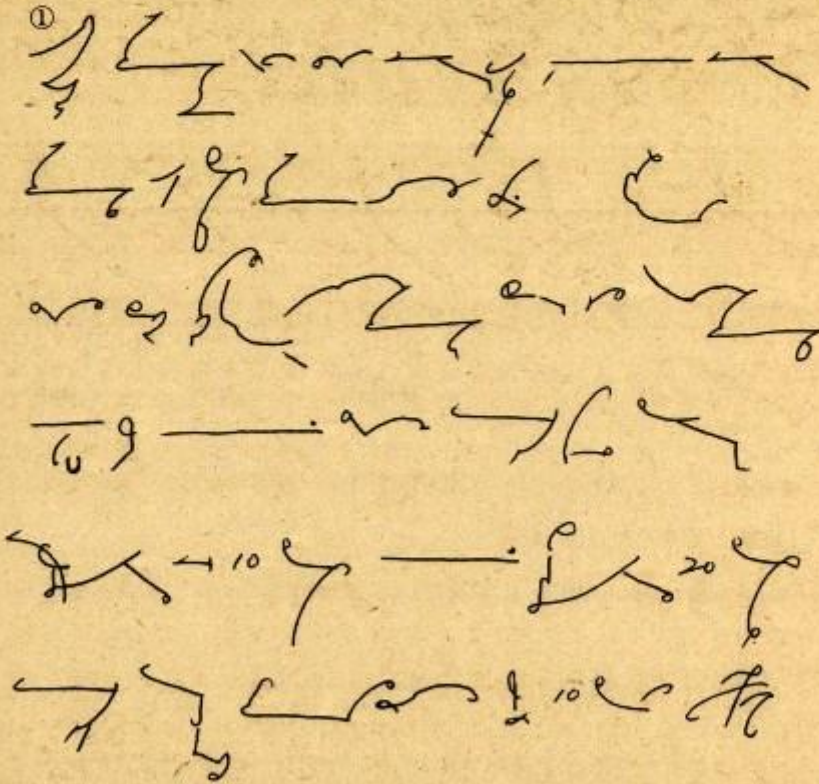
있어서	있어서는	있어서도	있어서의	있어서나
없어서	없어서는	없어서도	없어서의	없어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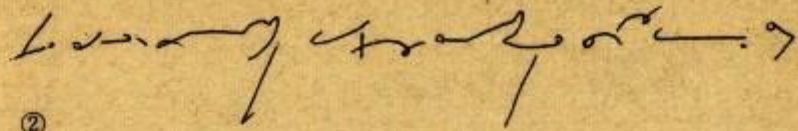
[최장선 접속사까지의 예문]

- ① 우리나라에서 속기사라고 하면 먼저 국회가 연상된다. 그러면 국회 속기사는 어떤 방식으로 속기 업무를 수행하는지 살펴 보자. 한 조(組)는 경력과 실력이 풍부한 주무 속기사와 경험이 적은 부무 속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한 조가 기록하는 시간은 본회의와 특별위원회는 각각 10분씩,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20분씩을 기록하는데, 회의에 임하려는 대기조(待期組)는 업무에 임하기 10분 전에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안건(案件)에 대한 참고 자료 등의 유인물을 간주려 놓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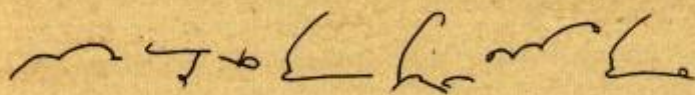
② 속기 조의 교대를 할 때에 있어서는 먼저 조의 부무와 다음 조의 주무가 교대를 하면서 쓰기 시작하면 먼저 조는 쓰기를 그치고 다음 조의 부무와 교대를 하는 것이다. 또한, 번문을 할 때에 있어서는 주무·부무가 반반씩 나누어서 우선 부무가 번문하기 좋은 부분을 선택하게 하고 서로 대조를 한다. 그래서 대조가 끝나면 바로 번문에 착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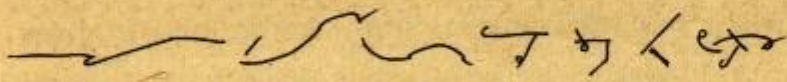
③ 그리고 번문된 원고는 부무·주무·속기 담당 사무관을 거치면서 오자(誤字) 및 탈자(脫字) 등이 정리되고, 원고는 취합하여 편집담당으로 넘어가서 최종적인 검토를 하고 인쇄소로 이송 속기록으로 발간되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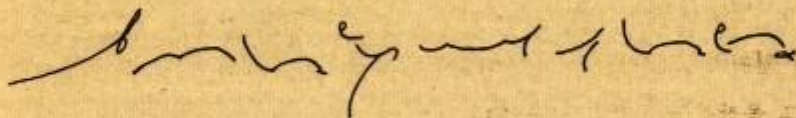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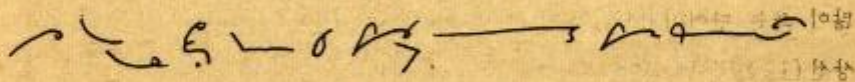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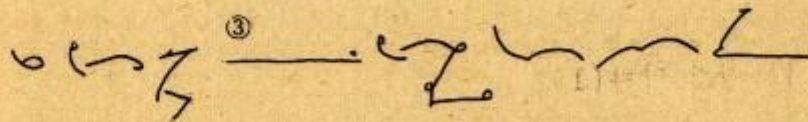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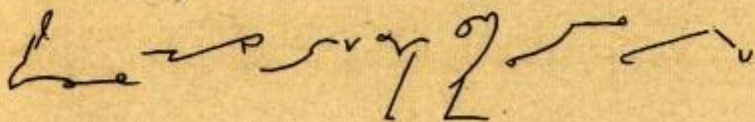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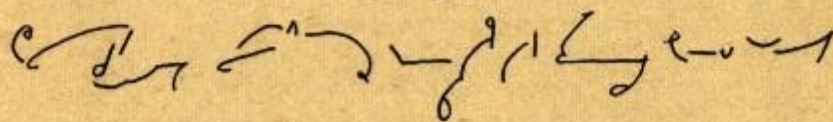






③ 























第3章 上線略字

상선 약자(上線略字)는 원칙적으로 한자(漢字)를 응용한 약자물 말 하며, 그 위치는 상선(上線)이다.

























이 상선 약자는 주로 우리말의 형용사(形容詞) 또는 명사(名詞) 등을 한 자의 1개의 문자로 표현하는 방법이며, 한자 응용(漢字應用)의 원칙을 벗 어난 실리적 약기법(實利的略記法)인 특별상선 약자도 있는바, 본장(本章) 에서는 주로 실리적 약기법을 다룬다. 그리고 상선 약자는 약자 자체(略字 自体)가 평음(平音)의 형체(形體)로서 약자화(略字化)되었기 때문에 기본 문자의 원위치(元位置)인 중선(中線)에다 찍기하면 평음과 혼동되기 쉬우 므로 그 복잡성을 피하고 번문(翻文)을 돕는 동시에 우리말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므로 약자(略字)의 기본 목적에 부합시키기 위해 상선(上線)에다 기록한다.

1. 상선 약자(1)



















우리	우리들	우리네	우리네들	우리 나라	저 것
그 것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이래서	저래서
무엇	무엇인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나	무엇이나 하면	무엇보다























					
무엇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어떻게	어떠한	어떠나
					
어떠나 하면	특별	특별한	특별히	특수	특수한
					
사람	사람들	그사람	더구나	더군다나	더더군다나

2. 상선 약자 (2)

					
어디까지	어디까지나	얼마	얼마나	언제	언제나
					
까닭	까닭에	때문	여기	정치	다음, 정책
					
그다음	처음	문계	만큼	처럼	도둑, 도루
					
현대	따름이다	하물며	이야기	얘기	도대체

3. 상선 약자 (3)

					
당시	현명	사이	아무	이미	대책
					
적어도	아울러	아울러서	전국	전국적	가운데
					
최근	채택	누구	누구나	너무	너무나

					
마지막	어느	어느 때보다	아무런 어린애	아무리 어린이	부득이
					
부득이한	결과	결국	결코	결론	아직
					
어쩌면	자기	자신	사느냐 죽느냐	죽느냐 사느냐	전지에서
					
오로지	이바지	취지	요지		

[상선 약자(上線略字)까지의 예문]

- ① 사람을 만드는 敎育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敎育이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敎育이 그 일생을 좌우할만큼 결정적인 人間의 基盤을 만들기 때문이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은 바로 그 점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世界的으로 어린이에 대한 敎育은 다각도로 연구 검토되고, 그 다양한 이론은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데, 開發途上國인 우리 나라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런데 해방 후 이제까지 막연히 民主主義敎育이라는 美名 아래 논의되고 있는 주장 가운데는 일론 들기에 그럴듯하면서 상당한 疑心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 없지 않다. 그 중 하나는 어린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어른들의 배려가 어쩌면 어린이의 知的 情緒的發育의 密度를 貳박하게 하고 그 意志的인 成長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 ② 天使같이 때문지 않은 童心을 키워줘야 한다든가 걸음은이를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든가 하는 주장은 전혀 잘못이 아니지만, 그런 배려가 지나쳐서 未熟한 상태를 바람직한 상태로 오래도록 지속시킨다는 것은 어린이의 진정한 成長發展을 위하여 이롭지 못할 뿐더러 극히 해로운 어른들의 恣意와 착각이 아닌가 싶다.

어린이의 童心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어른들의 즐기기 위한 感傷的인 對象일 수는 없으며, 그런 관점에서 어린이의 어른에의 발돋움을 꾀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어른은 어린이의 後身이요, 어린이는 어른의 前身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잊고, 어린이는 어른과 전혀 다른 世界의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그릇 규정할 때 생기는 잘못은 溫室栽培의 당연한 귀결로 쓸모없는 나약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며, 過保護로 말미암아 언제나 남에게 매달리려는 依他心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獨立心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③ 어른들은 어린이의 어린 상태를 아쉬워하는 나머지 언제까지나 제물풍이로 남겨두려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어린이를 위한다면 어린이의 어린 상태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將來」에 보다더한 관심을 기울여 그 잘못까지 이해함으로써 세세하고 강한 어른으로 만들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어떤 角度에서 보면, 어른이 어린이를 쉽게 어린이로만 다루려는 것은 어른으로 성장하려는 어린이의 希冀를 경시하고, 그 의무를 억압하는 처사가 되며, 어린이의 正當한 權利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명백한 하나의 罪惡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른으로서 어른이 책임지는 사회, 곧 나라라는 單位를 알 시킴은 어른과 어린이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은 先進國과 後進國과의 관계인 동시에 先進國民과 後進國民의 인간 관계이다. 이제 우리는 後進國이 아니라 中進國이랄 수 있는 골격을 갖추기에 이른 탓으로, 더욱 그 필요성은 절실한 것이 아닌가 한다.

- ④ 우리는 결코 友邦의 우리에게 대한 配慮와 關心을 경시하거나 曲解하려 하지 않는다. 個人도, 나라도 孤獨하거나 孤立해서는 살 수 없는 것이 人間世界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가 獨立된 뒤 어려운 狀況의 연속 속에서 成長發展함에 美國을 위시한 友邦으로부터 힘입은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닌만큼 그 점도 우리는 결코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근래 느끼는 것은 어쩌면 先進友邦이 이 나라를 지나치

계 「어린이」로 다루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좋게는 어린이를 위한다는 어른으로서의 配慮를 안 느끼는 것은 아니나, 급속한 成長發展을 이룩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나친 어른의 부당한 干涉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 ⑤ 우리는 언제까지나 先進友邦의 재롱둥이일 수는 없다. 바꿔 표현하면 어른들의 비위만 맞추는 착한 어린이로서 머무를 수 없다는 말이다. 진실로 어린이를 위하는 어른이면, 그 어린이의 個性이 키워져서 자기와는 다른 하나의 人格을 確立하는데 拍手를 보내야 하듯이 그 때 어른은 어린이의 거칠거나 버릇 없는데도 성장의 가능성을 엿보는 법이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실로 友邦을 위한다면 결코 자기만을 담은 작은 또하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歷史와 文化的 傳統的 必然으로서의 나라로 成長發展하는데 拍手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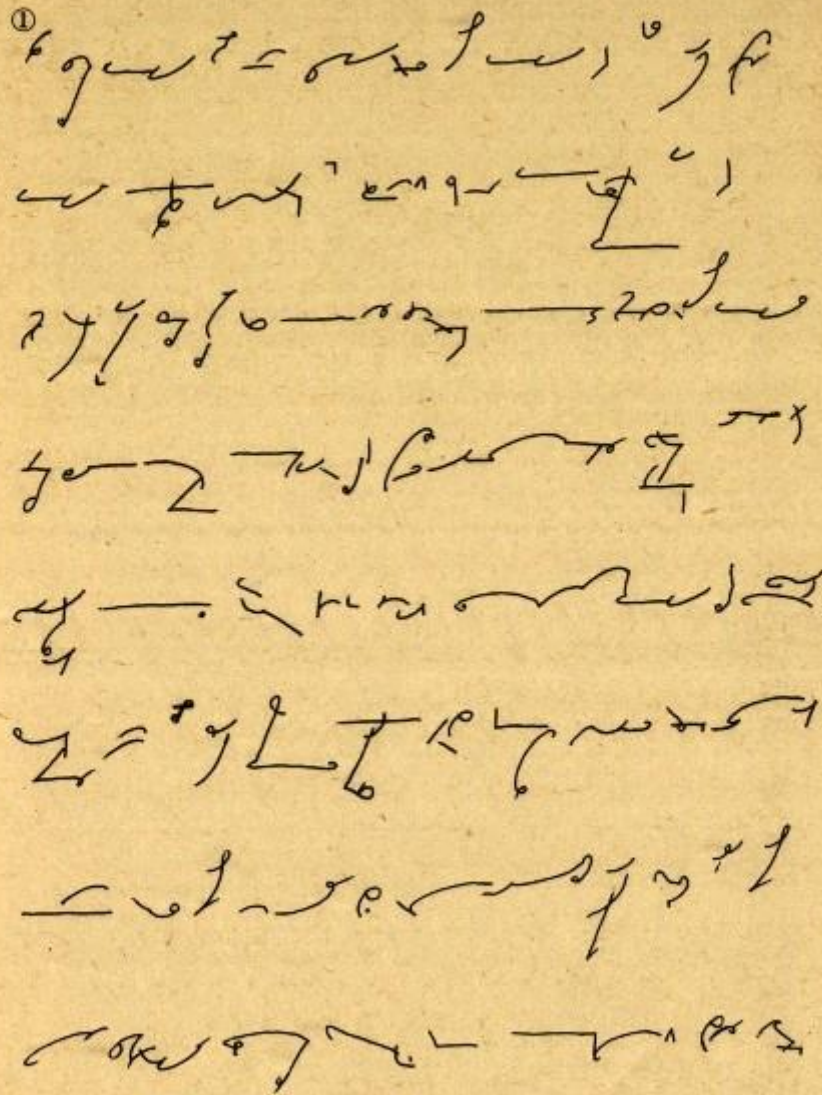
물론 그렇다고 우리는 人間生存이 갖추어야 하는 普遍的인 眞理나 道德性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民族과 나라에 따라 人情 風俗이 다르고 색다른 意識이 政治 外交상의 예의와 방법에 색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을 相對的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 友邦이 서로 갖추어야 할 美德인 것도 또한 人間實存의 理論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先進友邦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어린이로 다루려는 高姿勢가 우리의 希望을 경시하고 간접적으로 발전의 의욕을 억압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先進의 後進에 대한 하나의 僞善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 ⑥ 어린이가 언제까지나 응석으로, 어른의 비위만 맞추어 재롱둥이로 머무르려 할 때 짓비린내나는 어린이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後進이라고 하여 언제까지나 先進에게만 매달려 그 비위만 맞추는 것을 友邦에의 友誼로 착각하고 행동할 때 百年, 千年이 가도 그 나라는 獨立性을 확립하고, 先進으로 뛰어오를 수는 절대로 없다.

좋게 내어도 흉내는 끝내 흉내에 지나지 않는 법이다. 거듭 우리는 어른이 될 뜻이 없으면, 나이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어른이 되지 못하고 그

야말로 늙은 어린이로 머물 밖에 없다는 것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한 인
간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한 나라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을....

① 

1

②

...

...

...

...

...

...

...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likely a title or section header.

③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possibly a list item or a specific note.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continuing the text.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continuing the text.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continuing the text.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continuing the text.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continuing the text.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continuing the text.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in vertical columns, likely representing a specific dialect or shorthand system. The characters are fluid and connected, with some variations in stroke thickness and direction. A circled number '4' is visible in the third line from the top.

상선 약자 (3) 53

상선 약자 (3) 53

상선 약자 (3) 53

상선 약자 (3) 53

상선 약자 (3) 53

상선 약자 (3) 53

상선 약자 (3) 53

상선 약자 (3) 53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in vertical columns, likely representing a shorthand system. The characters are fluid and connected, typical of a cursive style. The text is arranged in approximately 10 vertical columns, with some characters appearing to be variations or components of a larger set. The paper is aged and yellowed.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five-line staff, featuring various rhythmic values and melodic lines.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five-line staff, continuing the piece with more complex rhythmic patterns.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five-line staff, including a section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five-line staff, showing further melodic development.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five-line staff, concluding the piece with a final cadence.

第4章 중간 약자 (中間略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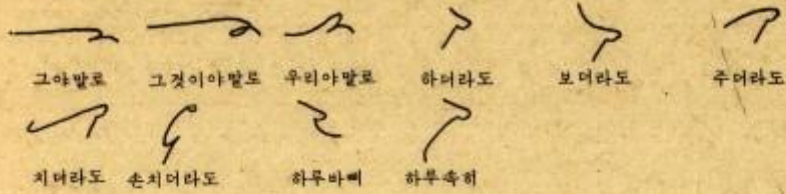
중간 약자(中間略字)는 3자(字) 이상으로 구성된 말을 2자(字)로 단축시킨 약부를 말한다.

우리가 일상 사용하고 있는 담화나 강연·연설 등에서 4자 이상으로 구성된 숙어(熟語)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숙어는 대체로 첫자와 다음 자만 보아도 능히 알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줄여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이」의 경우 그 첫자인 「이」자와 한 자 건너서 나오는 「같」자의 중간에 반소원(半小圓)으로 연결시켜 「와」와 「이」자를 생략한다. 쓰는 위치는 상·하선(上·下線)에만 쓸 필요 없이 중선(中線)에다 쓰면 된다. 그리고 중간 약부는 문법적으로 일정한 규정을 세워 그 규정 밑에서만 적용시킬 필요 없이 속기사(速記士) 자신이 구상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1. 중간 약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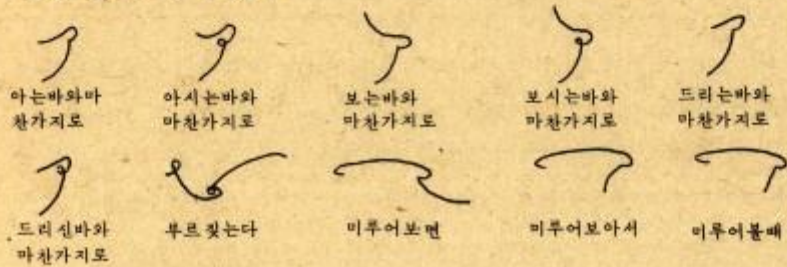
이와같이	이와같은	바와같이	바와같은	아는바와같이	아는바와같은
아시는바와같이	아시는바와같은	잘아는바와같이	잘아는바와같은	잘아시는바와같이	잘아시는바와같은
드린것과같이	드린것과같은	드린바와같이	드린바와같은	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아래와같이	아래와같은	위와같이	위와같은	그와같이	그와같은



2. 중간 약자(2)



3. 중간 약자(3)





유종의미를 거꾸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약자까지의 예문)

- ①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온 바와 같이 조사(助詞)에서부터 시작하여 접속사(接續詞), 상선(上線) 약자를 거쳐 중간(中間) 약부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기본 문자는 많이 익혀졌으나 새로이 배우는 약기법에는 익숙하지 못한 이유로 해서 그다지 속도는 못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기본 문자와 약자를 머리속에 익히는 연습은 많이 되었으나, 직접 지면에 옮기는 연습이 부족한 탓도 있을 것입니다.
- ② 우리가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10년 이상 한글을 써 왔고 또 읽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글로써 빠른 말을 기록할 때 한글이 말의 속도를 못 따라가서 그렇지 한글 자체가 생각이 나지 않아 기록 못하는 사람이나 써놓은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한 바와 같이 한글은 10년 이상 우리의 생활 속에 일부분이 되어 쓰여지고 읽혀져 온 이유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 ③ 한글에 대한 말이 났으니 말이지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독일의 어느 언어 학자는 「민족 문자로서 그 민족의 문화를 측정한다면, 한국 민족은 세계에서 제 1위의 영광을 차지 하리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언어 학자들도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서라도 한글이 지니고 있는 우수성과 민족 문자로서의 독창성은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자랑이요, 긍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④ 이러한 한글에 못지 않게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동방식 속기 문자도 어떠한 말이든지 간편하게 표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빨리 쓸 수 있는 우수한 문자 이므로 동방식 속기 문자를 배우고 익히는 우리들의 속기 능력은 날이 갈수록 빠른 속도로 향상되어 갈 것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속기 문자는 언어의 속도에 따라 갈수 있도록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써놓은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⑤ 그밖에 초보자는 속기 문자가 빨리 써 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잘 읽어지지 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속기 문자가 한글과는 달리 손과 눈에 익혀지지 않았다는 단 한 가지의 이유에서 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으면 쓸 수 있어야 하고 써 놓으면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요컨대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한 연습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⑥ 그리하여 속기 문자가 우리의 손과 눈에 익혀져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읽고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필기 생활은 윤택을 더 하게 되고 사무의 능률은 크게 향상 되어갈 것입니다.

아무췌록 많이 쓰고 많이 읽는 꾸준한 연습만이 한글과 같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상기하여서 끊임없는 청진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①

6. $\frac{1}{2}a^2 + 2ab + b^2 = (a+b)^2$

7. $\frac{1}{2}a^2 + ab + \frac{1}{2}b^2 = (a+\frac{1}{2}b)^2$

8. $\frac{1}{2}a^2 - ab + \frac{1}{2}b^2 = (\frac{1}{2}a-b)^2$

9. $\frac{1}{2}a^2 + ab - \frac{1}{2}b^2 = (\frac{1}{2}a+b)^2 - b^2$

10. $\frac{1}{2}a^2 - ab - \frac{1}{2}b^2 = (\frac{1}{2}a-b)^2 - b^2$

11. $\frac{1}{2}a^2 + ab + \frac{1}{2}b^2 = (\frac{1}{2}a+b)^2 - b^2$

12. $\frac{1}{2}a^2 - ab + \frac{1}{2}b^2 = (\frac{1}{2}a-b)^2 + b^2$

13. $\frac{1}{2}a^2 + ab - \frac{1}{2}b^2 = (\frac{1}{2}a+b)^2 + b^2$

14. $\frac{1}{2}a^2 - ab - \frac{1}{2}b^2 = (\frac{1}{2}a-b)^2 + b^2$

15. $\frac{1}{2}a^2 + ab + \frac{1}{2}b^2 = (\frac{1}{2}a+b)^2 + b^2$

1. $\frac{1}{2} + \frac{1}{4} + \frac{1}{8} + \frac{1}{16} + \dots$

$\frac{1}{2} + \frac{1}{4} + \frac{1}{8} + \frac{1}{16} + \dots$

② $\frac{1}{2} + \frac{1}{4} + \frac{1}{8} + \frac{1}{16} + \dots$

$\frac{1}{2} + \frac{1}{4} + \frac{1}{8} + \frac{1}{16} + \dots$

$\frac{1}{2} + \frac{1}{4} + \frac{1}{8} + \frac{1}{16} + \dots$

$\frac{1}{2} + \frac{1}{4} + \frac{1}{8} + \frac{1}{16} + \do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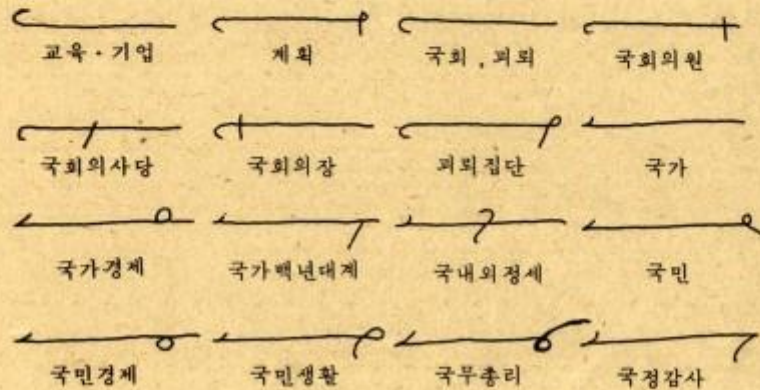
$\frac{1}{2} + \frac{1}{4} + \frac{1}{8} + \frac{1}{16} + \do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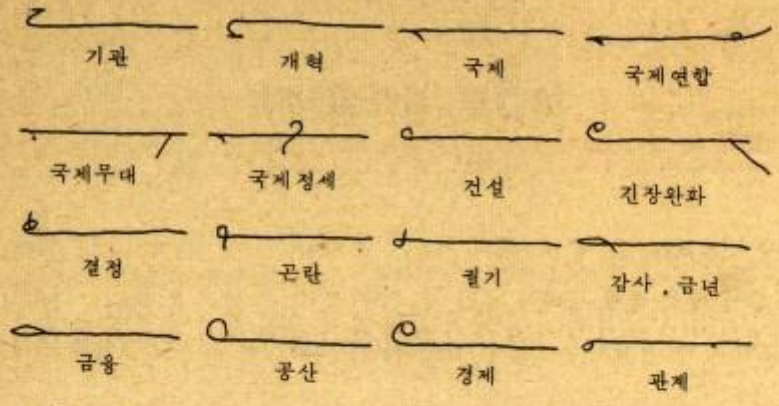
第5章 最長線略字

최장선(最長線)은「제 2 장 Ⅷ의 최장선 접속사 약기법」에서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속기 문자 중에서 가장 긴 문자(文字)로, 2~2.5cm의 문자이다. 그리고 이 최장선을 이용한 약자(略字)를 최장선 약자(最長線略字)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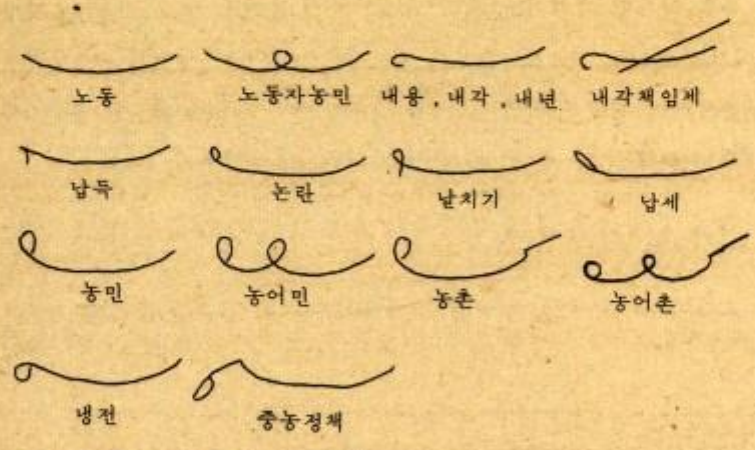
최장선 약자는 대개 일반적으로 사용 빈도수가 높은 명사(名詞)나 속어(熟語) 등을 약기한 약자이며, 모든 약자·약부 중에서 가장 간편한 약법(略法)이기도 하다. 특히 그 구성은 원칙적으로 명사나 속어의 첫 글자를 길게 연장시키는 형태를 취했고, 쓰는 위치는 원위치(元位置)인 중선이며, 상선 약자(上線略字)와 같이 명조사(名助詞)를 응용한다.

1. 「가」행 최장선 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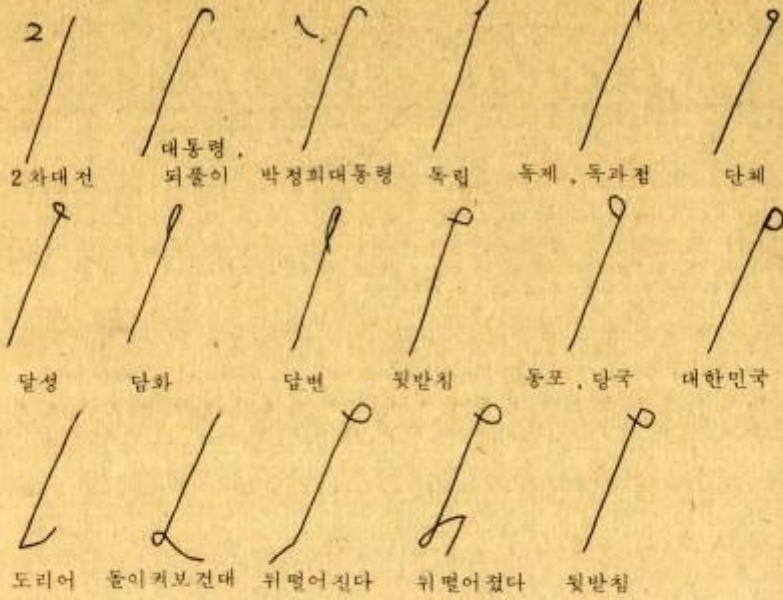
2. 「나」행 최장선 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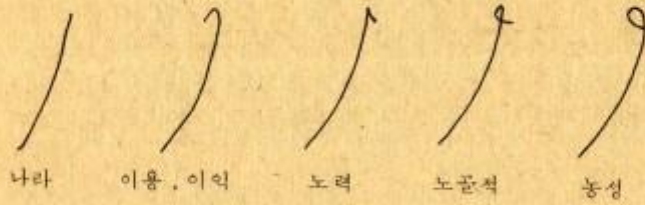
3. 「다」행 최장선 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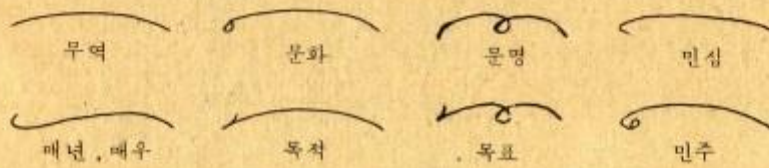
5. 「마」행 최장선 약자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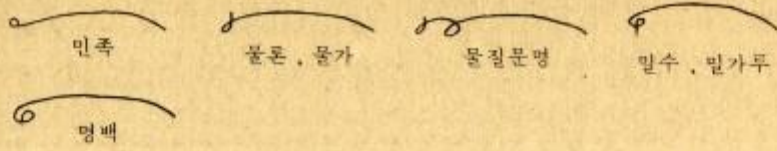


4. 「라」행 최장선 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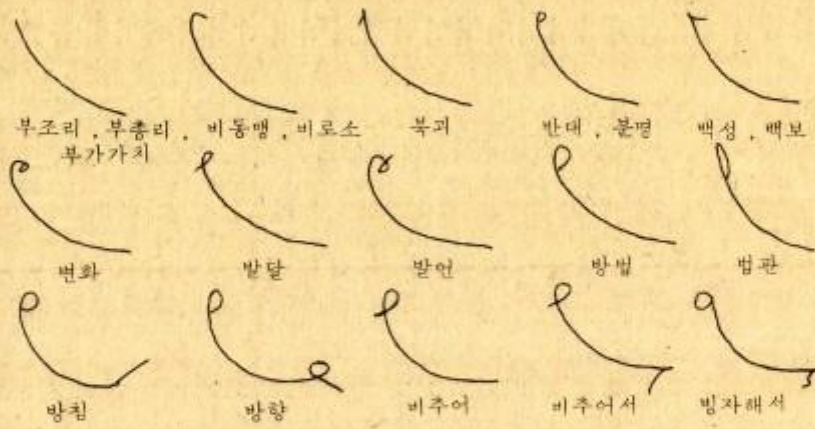


5. 「마」행 최장선 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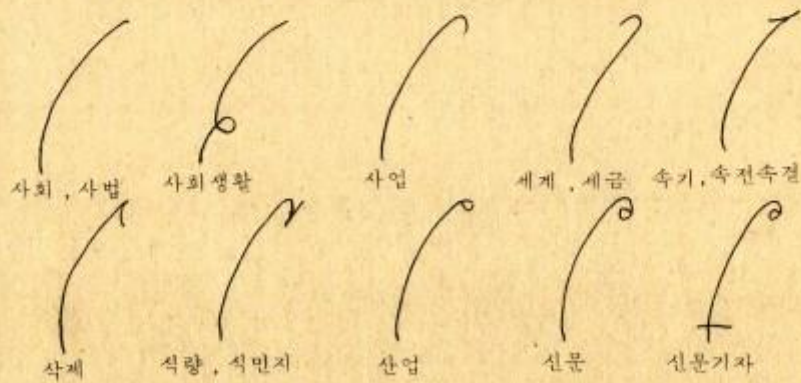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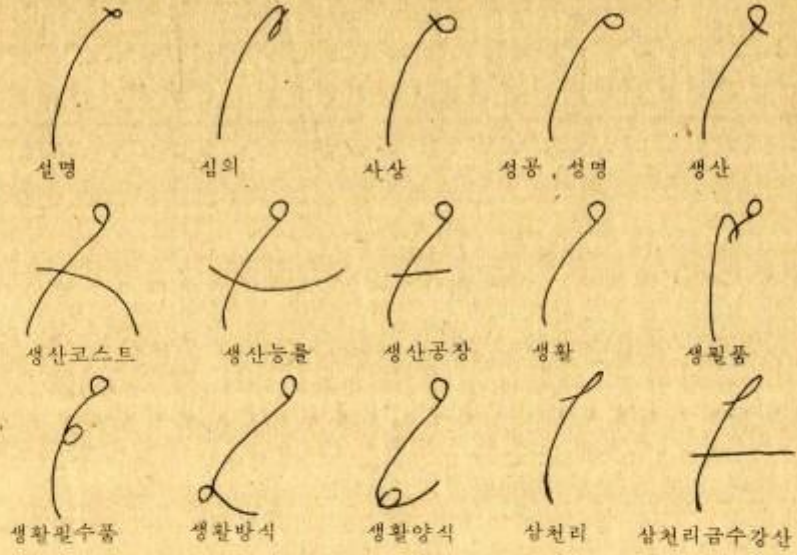


6. 「바」행 최장선 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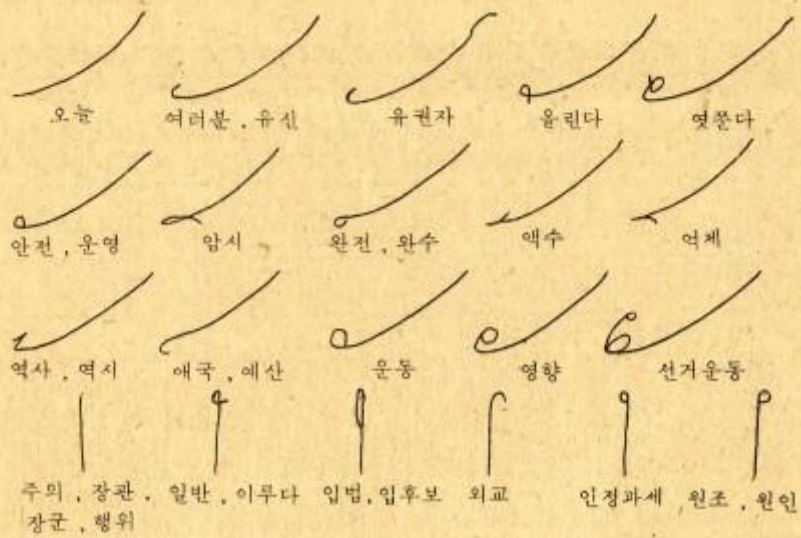













7. 「사」행 최장선 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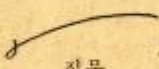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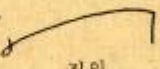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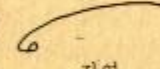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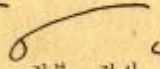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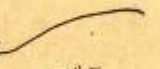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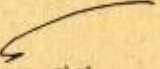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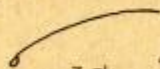



8. 「아」행 최장선 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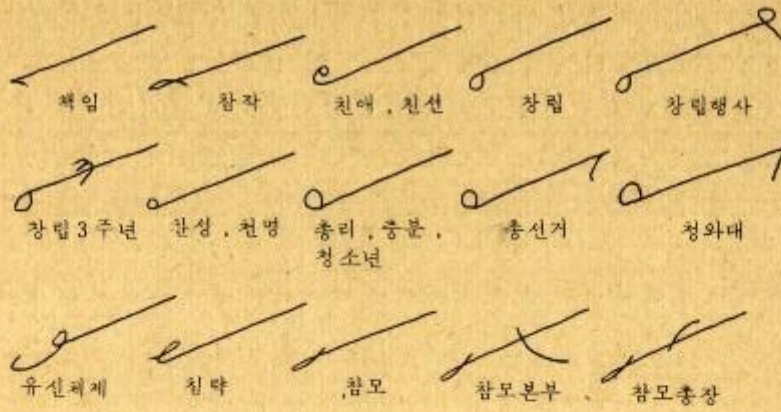
					
원칙	일으키고, 이루고	이루어졌다	이르렀다	이르기까지	이르러서
					
일으켜	이루어진	이루어질수있는	이루어질수없는	이름대면	

9. 「자」행 최장선 약자

				
자유, 조건	지도, 지극	지나치게	지나친	조문
				
질문	질의	진영	정부, 정실	제도
				
작년, 작전	직접	존경	잠시	

10. 「차」행 최장선 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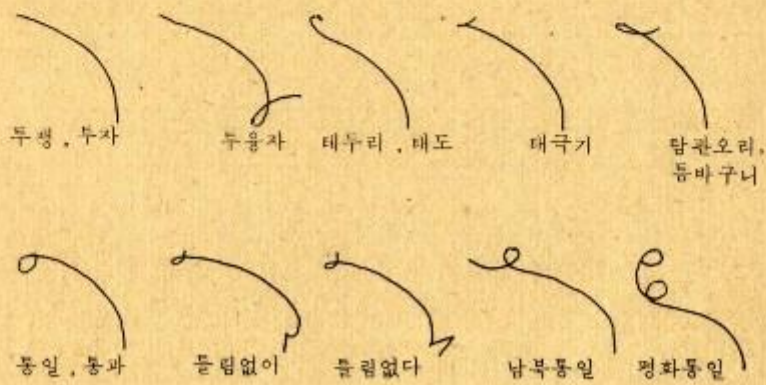
				
추진	촉진	체계	철저히	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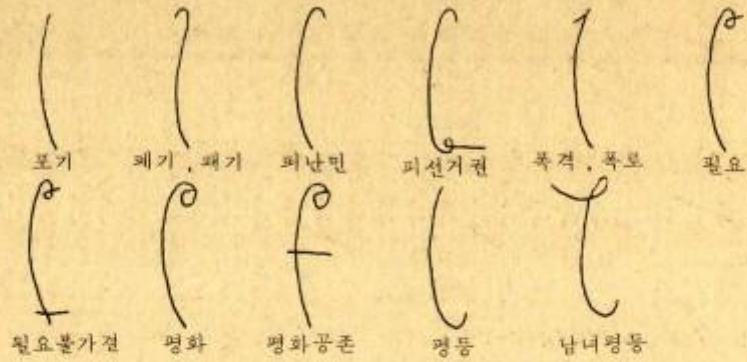
11. 「카」행 최장선 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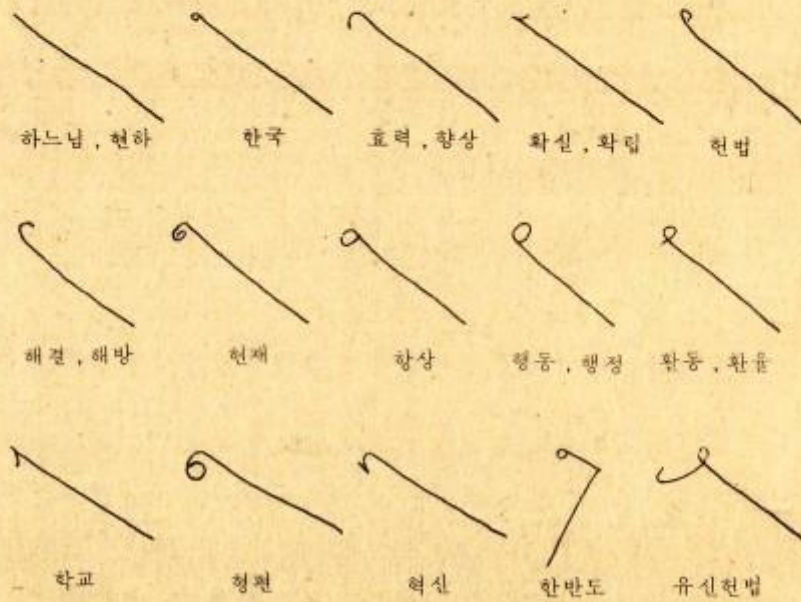
12. 「타」행 최장선 약자



13. 「과」행 최장선 약자



14. 「하」행 최장선 약자



[최장선 약자까지의 예문]

① 尊敬하는 閔復基 大法院長 閣下. 金鍾泌 國務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 그리고 親愛하는 議員 여러분!

例年에 없이 늦더위가 酷甚하였던 여름을 무사히 보내고 오는 議員 여러분께서 健康한 모습으로 자리를 같이 하여 第94回定期國會 開會式을 갖게 된 것을 本人은 眞心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定期國會는 汝矣島 新築議事堂에서 첫 開會式을 갖는다는 데에 큰 意義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새 議事堂의 建立은 制憲國會 開院以來 우리의 宿願이었읍니다.

② 그동안 汎國民的인 支援과 議員 여러분의 協調 아래 지난 1969年 制憲節을 기하여 礎起工의 삽을 든 이래 6年餘에 걸친 夢과 意志의 結晶으로 오늘 날 우리는 漢江邊에 우뚝 솟은 莊嚴한 議事堂의 竣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은 國民의 聲援과 議員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眞心으로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舊 太平路 議事堂에서의 波瀾만던 歷程을 돌이켜 볼 때 이 나라 議政史의 첫 出帆은 實로 感慨 깊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③ 親愛하는 議員 여러분!

우리는 둘 한조각 들 한포기에도 國民의 精誠이 어린 새 議事堂에서 國事를 論함에 있어 維新國會의 傳統을 더욱 공고히 다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國會가 眞正한 民意를 代辯하는 代議政治의 本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國民이 眞正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正確히 把握

하고 이를 사실대로 國政에 反映하여야 하겠습니다.

民主政治는 힘의 對決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反對와 批判을 國會로 集中시켜 문제의 解決을 議會政治로 歸着시키는데에 본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反對와 批判이 지나쳐 分裂을 招來한다면 이는 民主社會의 正道를 逸脫하는 것으로 眞正한 代議政治의 俱現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④ 새 議事堂은 모든 政治行爲의 求心點이 되도록 傳統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政治的 爭點이나 政策의 對決은 妥協과 協商, 討論과 折衷을 通하여 理想的인 合意點에 到達하도록 努力하여야 하겠습니다.

與野의 黨派的 利害는 이를 調整하고 濾過하여 民族的 利害로 昇華시켜야 하겠으며, 國政에 관한 國民의 궁금증은 이를 昭詳히 풀어줌으로써 國民의 信賴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與野는 互讓과 對話의 姿勢로 돌아가 當面한 難題는 虛心坦懷하게 討議하는 努力과 誠意를 보여야 하겠으며, 성급한 感情論에 흘러 無責任한 事態를 빚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現 時點에서 이 나라의 議會政治에 必要的인 與野關係는 政略的 次元에서 가 아닌 國家的 次元에서의 協調 雰圍氣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⑤ 세계 우리는 尊敬받는 國會의 傳統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國會는 立法活動에 있어 當代와 後世에 責任을 져야 합니다.

黨利黨略이나 小我的인 利害關係를 超越하여 大局的 見地에서 우리의 所任을 충실히 履行하고 政府가 國會에서 處理되는 모든 國事를 성실히 國政에 反映하여 이 議事堂을 國民과의 對話의 廣場으로 百分 活用할 때 國會

의 權威는 스스로 높아질 것이며 또한 尊敬받게 될 것입니다.

國會가 이같이 하여 生産的이고 能率的인 運營을 期함으로써 새로운 國家像을 定立할 때 이 議事堂은 名實相符하게 統一을 祈願하는 民族의 展望臺로 繁榮을 約束하는 歷史의 證言塔으로 이 時代의 우리의 뜻과 遺産을 子孫萬代에 길이 傳하게 될 것입니다.

⑥ 親愛하는 議員 여러분!

오늘날 印度支那 事態以後 韓半島에 대한 國際的 관심은 더욱 高潮되고 있습니다.

印度支那事態는 우리에게 힘이 곧 正義라는 支配의 原理가 아직도 이 地球上에서 通用되고 있음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國際潮流가 緊張緩和와 和解의 時代를 志向하고 있다해도 우리는 그 實像과 虛像을 명백히 區別하여야 하겠습니까.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教條的 主觀만으로 現下 國際情勢를 度外視하고 오직 힘에 의한 韓半島의 赤化野慾에만 汲汲하고 있습니다.

北傀의 用意周到한 南侵計劃과 악랄한 奇襲의 戰術構想에 대하여 우리는 한시도 放心할 수 없습니다.

지금 北傀는 「게릴라」戰을 위한 特殊兵力 8萬名으로 特殊8軍團을 創設하는 등 南侵準備를 加速化해 가고 있을뿐 아니라 社會를 混亂시키기 위하여 계속 遊擊隊를 南派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⑦ 우리는 이같은 냉엄한 現實을 直視하고 우리의 基本的生存權을 保障하기 위하여서라도 우선 무엇보다 安保態勢 強化와 國力培養에 總力을 다하여야만 하겠습니까.

自主·自立만이 自由와 主權을 守護하는 마지막 堡壘임을 銘心하고 舉國的 安保態勢의 確立에 加一層 奮發해 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親愛하는 議員 여러분!

이번 定期國會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새해 豫算案을 審議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國民生活과 互結된 豫算案 審議야 말로 國民을 代表하는 國會議員으로서 가장 중요한 所任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國民의 意志와 決意가 담긴 豫算案을 審議함에 있어 議員 여러분께서는 오늘을 犧牲하여서라도 來日 몇몇이 잘 살려고 노력하는 國民의 所望에 어긋남이 없도록 무거운 責任感과 냉철한 양심으로 오직 國利民福에 이바지하도록 最善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豫算案을 편성한 政府當局者들은 國會에서 成立된 豫算을 성실히 執行하여야 할 것입니다.

⑥ 오늘날 世界의 經濟的 與件은 資源難과 通貨秩序의 混亂, 극심한 「인플레이션」 造成 등으로 經濟的 成長에 많은 障礙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逆境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의 成功的인 完遂와 3 次 5 個年計劃의 效果的인 推進으로 產業構造의 高度化를 이룩하였으며, 自立經濟의 基盤을 더욱 擴大하였습니다.

비록 世界의 趨勢가 우리에게 影響을 미친다 하더라도 온 國民이 合心協力하여 試鍊과 難關을 克服하고, 굳굳하게 밀고 나갈 때 우리는 기필코 民族의 繁榮을 達成하게 될 것입니다.

親愛하는 議員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加一層 安保態勢를 強化하고 繼續적으로 經濟成長을 이룩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時點에 놓여 있습니다. 기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一致團結하여 勇氣와 忍耐, 슬기와 叡智로 難關을 克服하고 보다 밝은 來日을 創造하도록 最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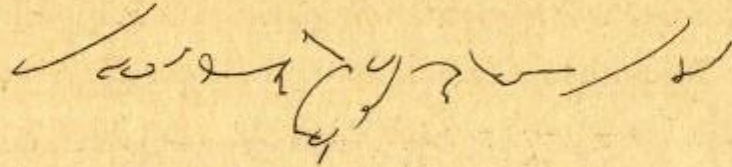
끝으로 議員 여러분의 健勝과 家庭의 幸福을 祈願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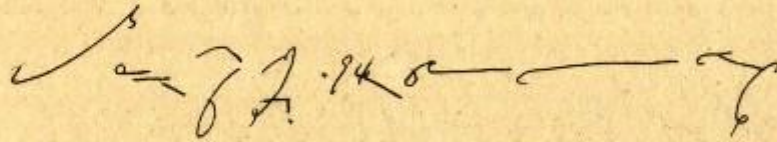
感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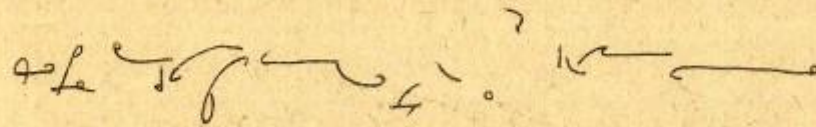
1975年 9月 22日(月) 午前 10時 國會議長 丁一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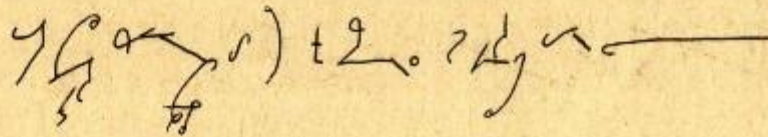
① 











①

②

1969

③

④

⑤

⑥

이것이 바로 최장선 약자의 예문이다.

이것이 바로 최장선 약자의 예문이다.

이것이 바로 최장선 약자의 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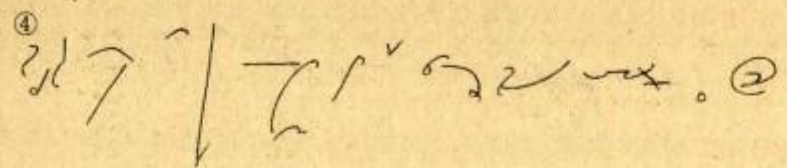
이것이 바로 최장선 약자의 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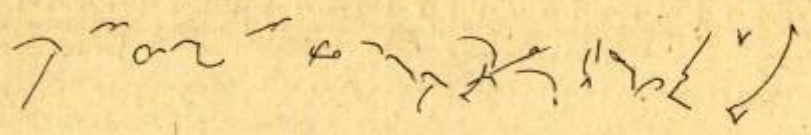
이것이 바로 최장선 약자의 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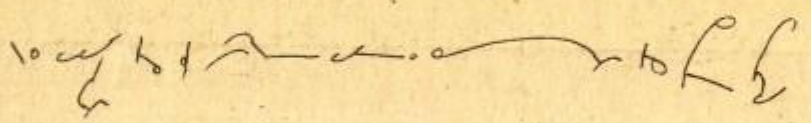
이것이 바로 최장선 약자의 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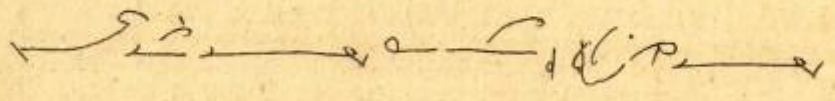
이것이 바로 최장선 약자의 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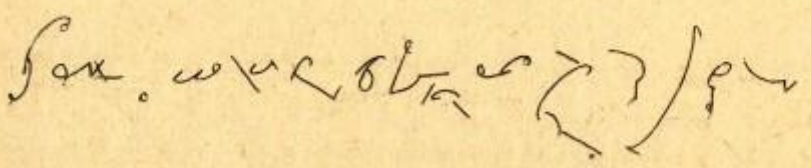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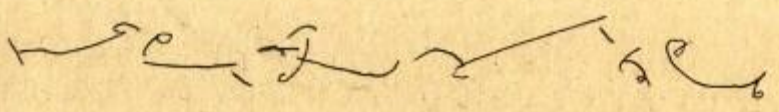
④  ②











4. ㄱ 1) ㄱ (ㄴ ㄹ ㄷ ㄱ)

ㄴ ㄹ ㄷ ㄱ ㄴ ㄹ ㄷ ㄱ ㄴ ㄹ ㄷ ㄱ

⑤
③ ㄴ ㄹ ㄷ ㄱ ㄴ ㄹ ㄷ ㄱ

ㄴ ㄹ ㄷ ㄱ ㄴ ㄹ ㄷ ㄱ ㄴ ㄹ ㄷ ㄱ

ㄴ ㄹ ㄷ ㄱ ㄴ ㄹ ㄷ ㄱ ㄴ ㄹ ㄷ ㄱ

ㄴ ㄹ ㄷ ㄱ ㄴ ㄹ ㄷ ㄱ ㄴ ㄹ ㄷ ㄱ

ㄴ ㄹ ㄷ ㄱ ㄴ ㄹ ㄷ ㄱ ㄴ ㄹ ㄷ ㄱ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possibly a variation of 'f' or 't'.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possibly a variation of 'e' or 'y'.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possibly a variation of 'a' or 'o'.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possibly a variation of 'i' or 'u'.

⑥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possibly a variation of 's' or 'z'.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possibly a variation of 'n' or 'm'.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possibly a variation of 'l' or 'k'.

— ㄱ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

ㄱ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ㄱ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ㄱ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 ㄱ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

ㄱ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 ㄱ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single staff, featuring various rhythmic values and melodic lines.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single staff, including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single staff, showing a melodic line with a fermata.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single staff, featuring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single staff, including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single staff, showing a melodic line with a fermata.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single staff, including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Handwritten diagram showing a horizontal line with a vertical tick mark on the left. A curved line starts from the tick mark, loops up and right, then down and right, ending at a point labeled '3.5'. To the right of this is another horizontal line with a vertical tick mark and a small wavy line at its end.

Handwritten cursive script, likely a stylized representation of a character or word.

Handwritten cursive script, similar to the previous line but with more pronounced loops and curves.

Handwritten cursive script, showing a different variation of the style.

Handwritten cursive script, continuing the sequence of variations.

Handwritten cursive script, showing a more complex and stylized form.

Handwritten cursive script, the final variation shown on the page.

Handwritten cursive Korean text, likely a signature or name, starting with a small circle and a vertical stroke.

Handwritten cursive Korean text, appearing to be a date or a specific reference.

Handwritten cursive Korean text, possibly a name or a short phrase.

1875 9 22 @ 5 107 — 1 4

第6章 最長線應用略字

최장선(最長線) 응용 약자(應用略字)라 함은 최장선 약자(最長線略字)를 응용한 약자로서 그 길이는 최장선 약자와 마찬가지로 2~2.5cm이다.

최장선 응용 약자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사용 빈도수가 높은 숙어(熟語)의 첫음(音)에다 최장선 약자 또는 해당발음(該當發音)의 어느 행(行)을 최장선 약자의 길이로 연결한다.

즉, 「백의 민족」은 「백」자에다 「민족」에 해당하는 「마」행을 2~2.5cm로 연결하고, 「국민학교」는 「국」자에다 「학교」의 최장선 약자를 연결하여 최장선 응용약자를 구성한다.

1. 민 족(民族)

백의민족

약소민족

배달민족

단일민족

민족적 총결기

2. 역 사(歷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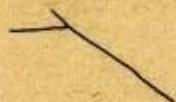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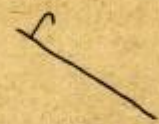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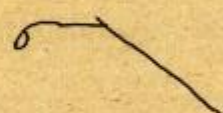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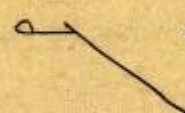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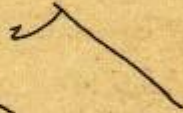
반만년 역사

유구한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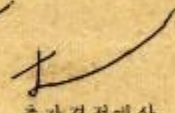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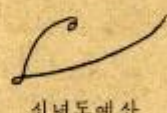
빛나는 역사

 찬란한 역사
  오랜 역사

3. 학 교 (学校)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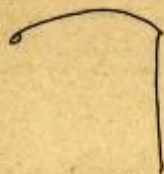
4. 예 산 (豫算)

 추가예산
  추가경정예산
  추경예산
  신년도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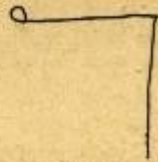
5. 정 신 (精神)

 삼일정신
  헌법정신
  혁명정신
 자립정신
  준법정신
  새마을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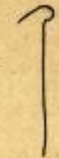
6. 주의(主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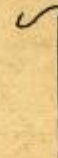
민주주의



공산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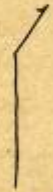
자본주의



제국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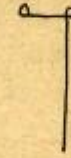
사회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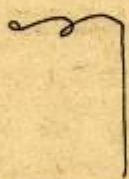
독재주의



군주주의



군국주의



민족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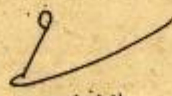


한국적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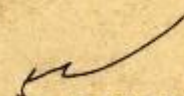
7. 여러분



동포여러분



애국동포여러분



5천만동포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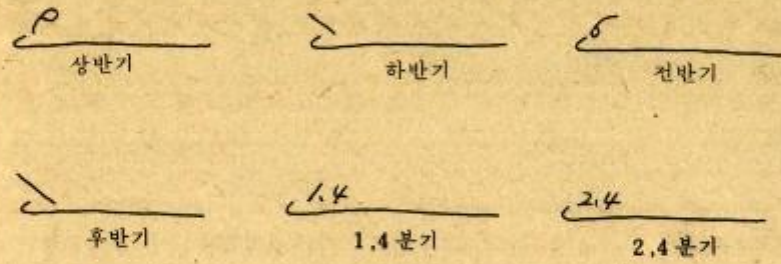


친애하는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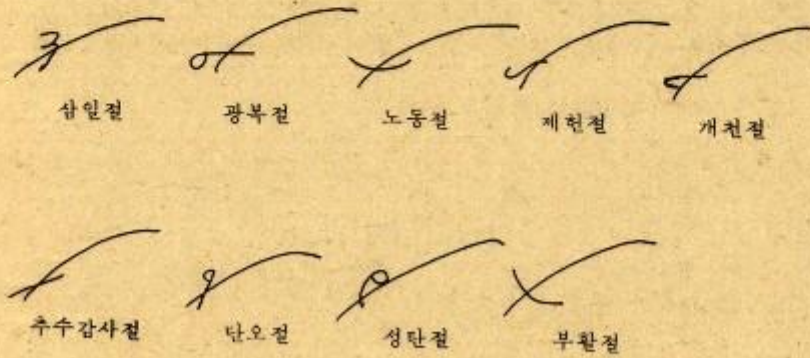
8. 협정(協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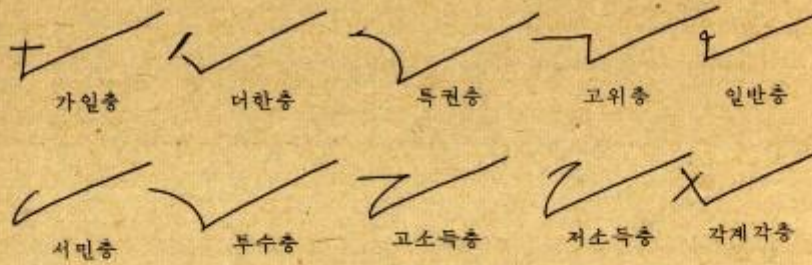
9. 기 (期) 및 분기 (分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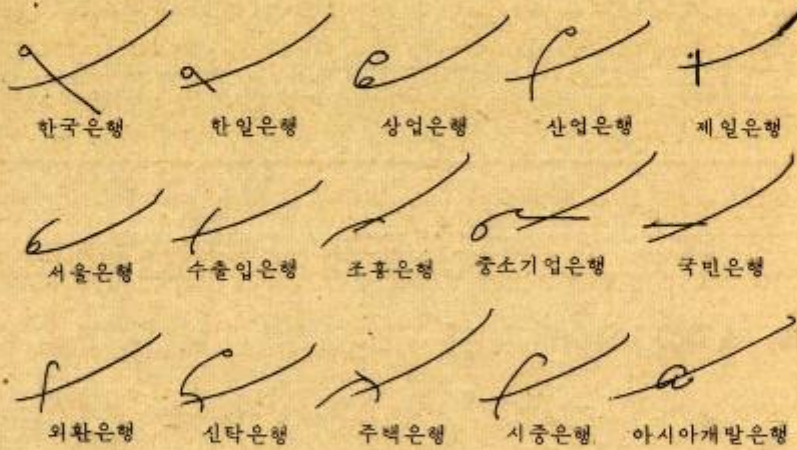
10. 절 (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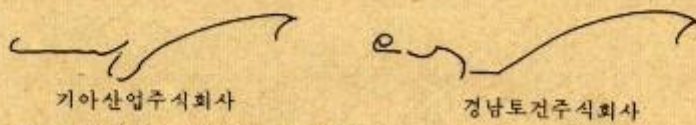
11. 층 (層)



12. 은행 (銀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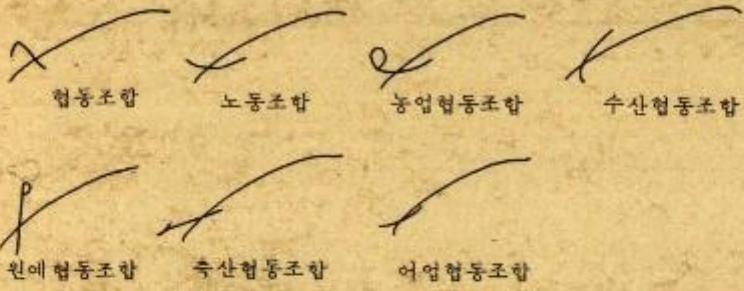


13. 주식회사 (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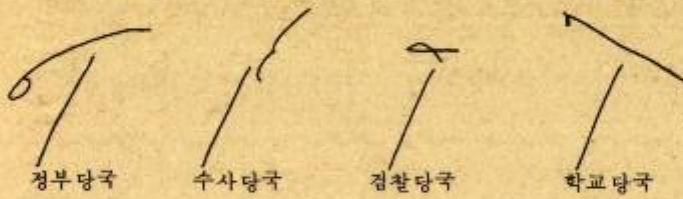


※ 고유명사는 생략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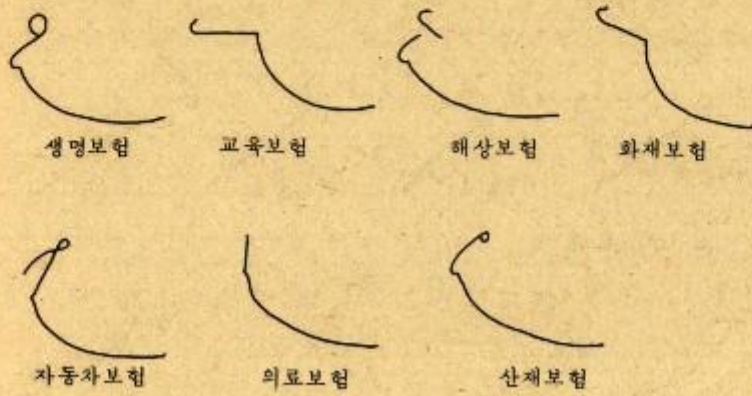
14. 조 합 (組 合)



15. 당 국 (當 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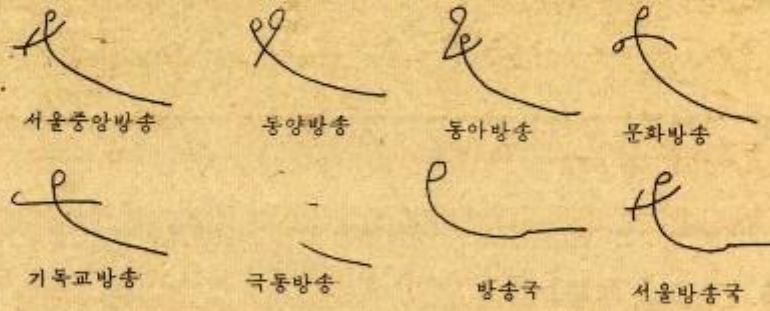
16. 보 험 (保 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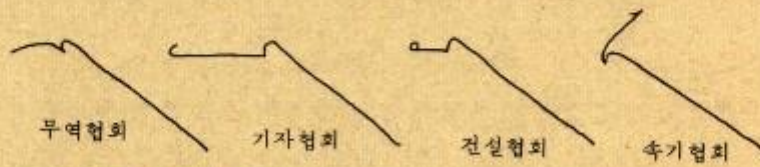
17. 자 금 (資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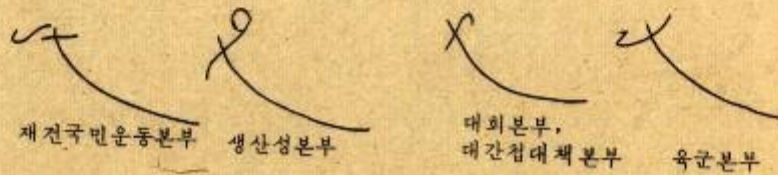
18. 방 송 (放送)



19. 협 회 (協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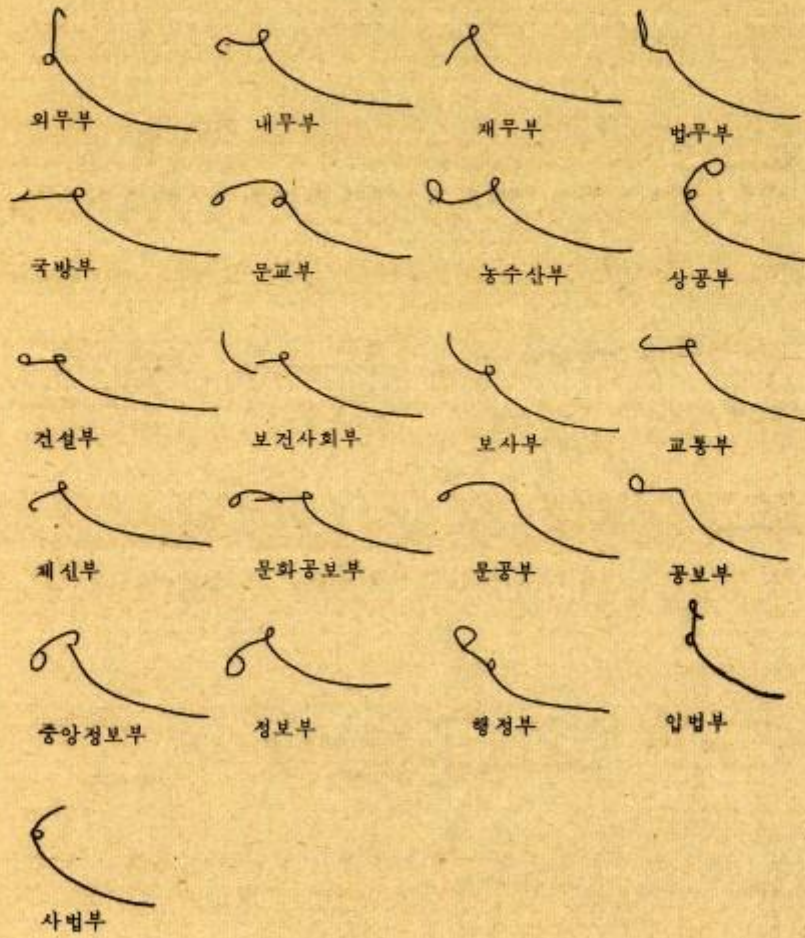


20. 본 부 (本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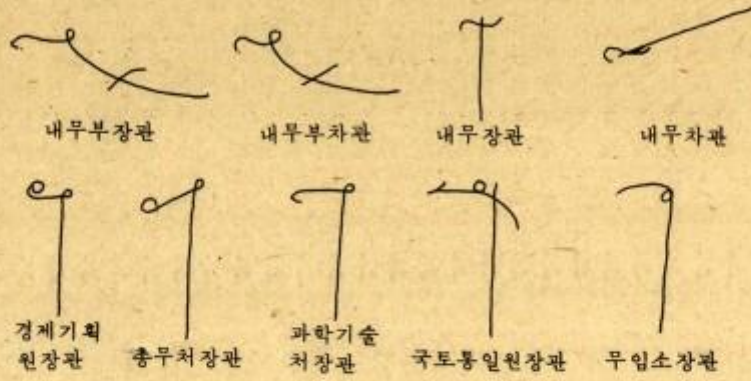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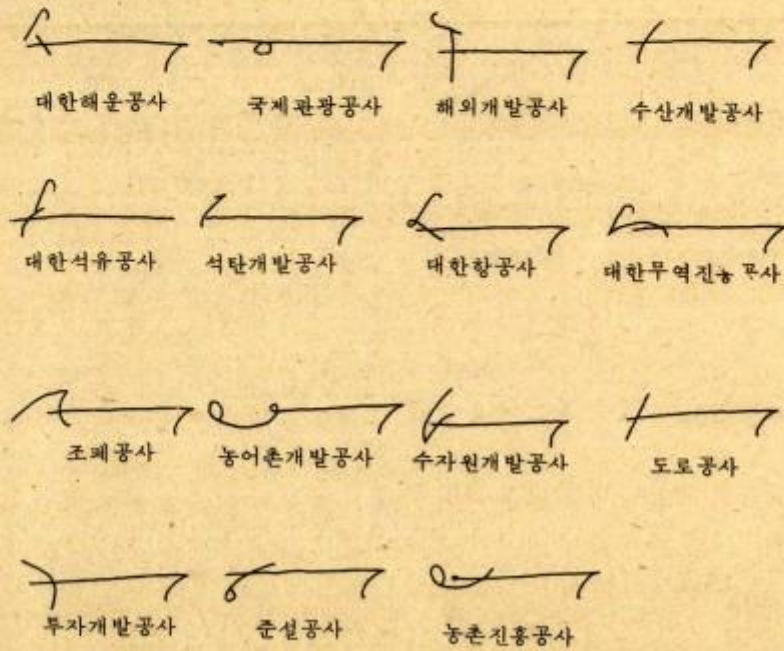
21. 부(部) 및 부(府)



22. 장 관(長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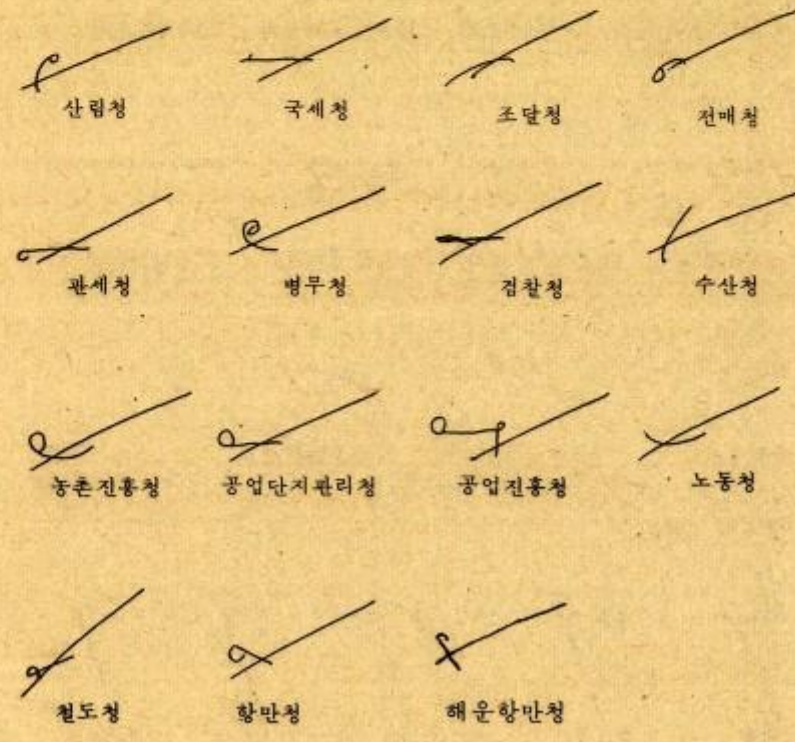
23. 공 사(公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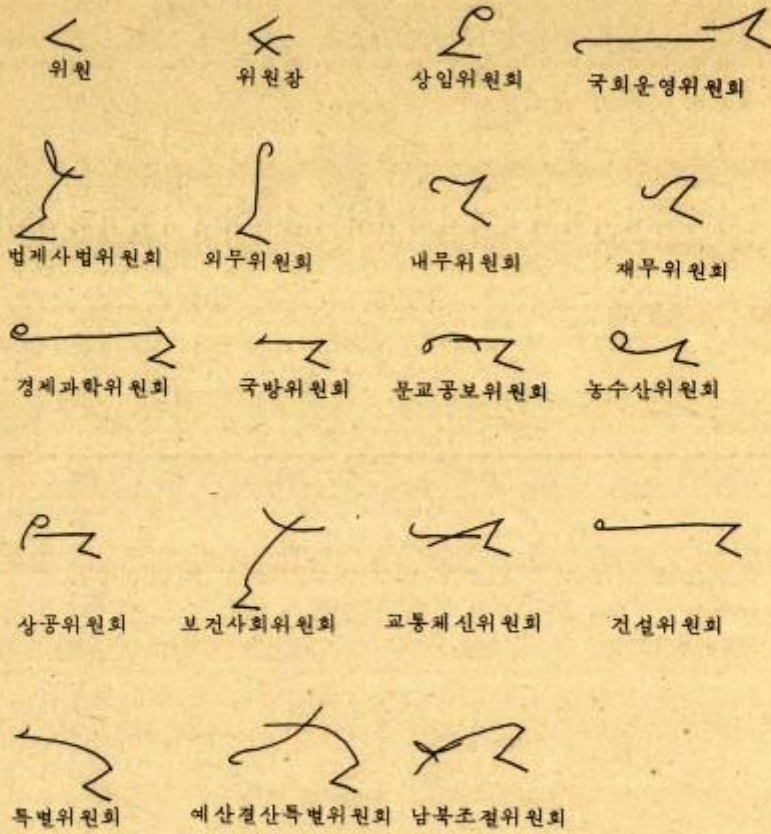
24. 계 획 (計 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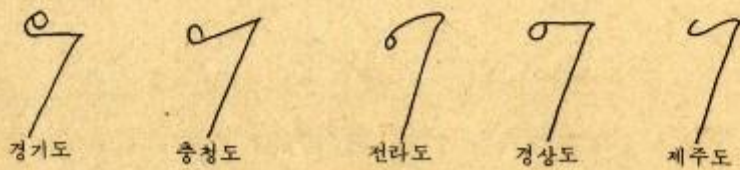
25. 청 (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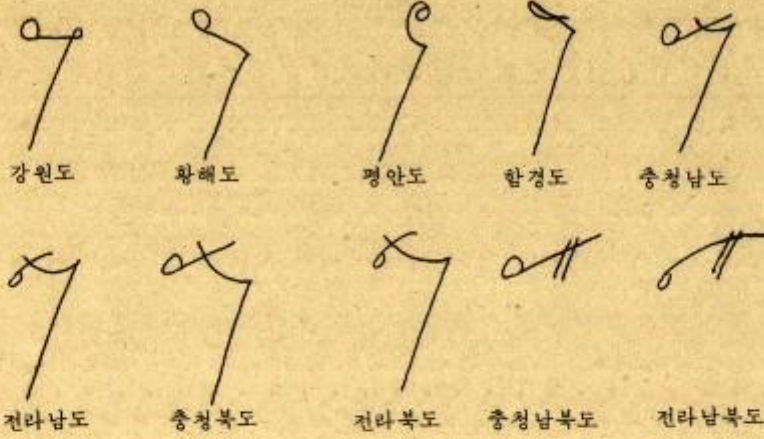


26. 위원회 (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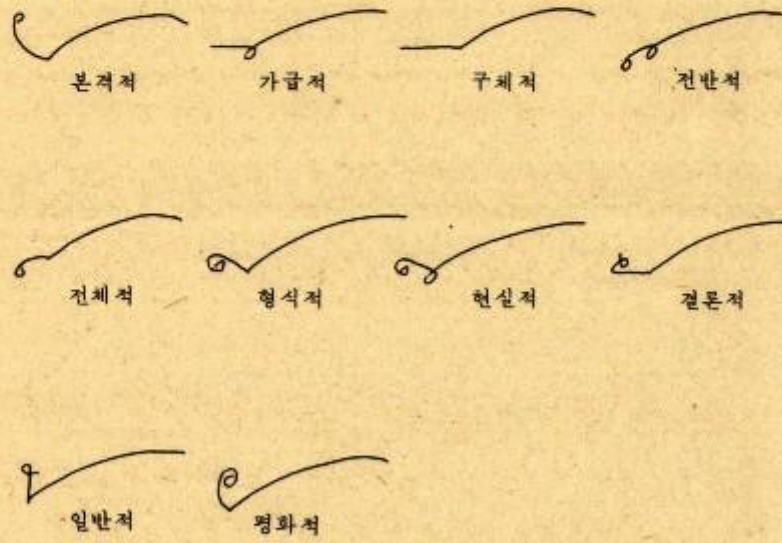


27. 도 (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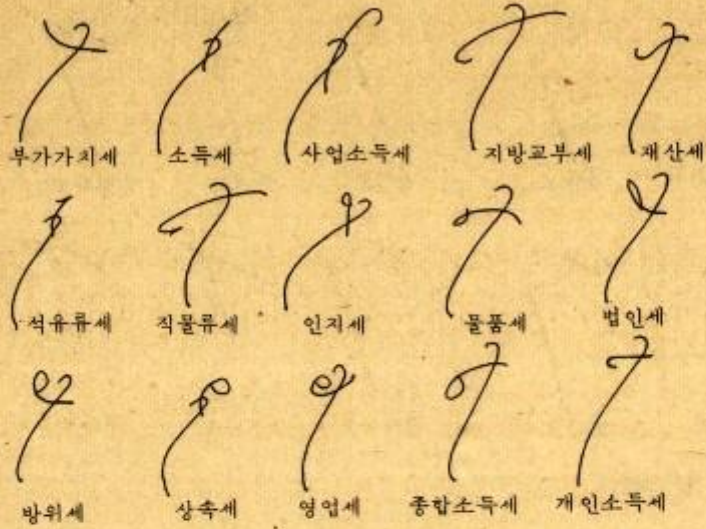




28. 적 (的)




29. 세 (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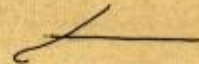
30. 법 (法)





31. 특별 회계 (特別會計)



특별회계



일반회계



예산회계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



사법시설특별회계



조달사업특별회계



재정차관관리특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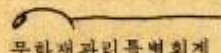

교도작업특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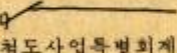

재정자금운영특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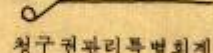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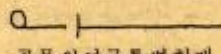

군인연금특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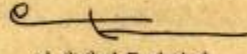

전매사업특별회계


문화재관리특별회계


원도사업특별회계


청구권관리특별회계


공무원연금특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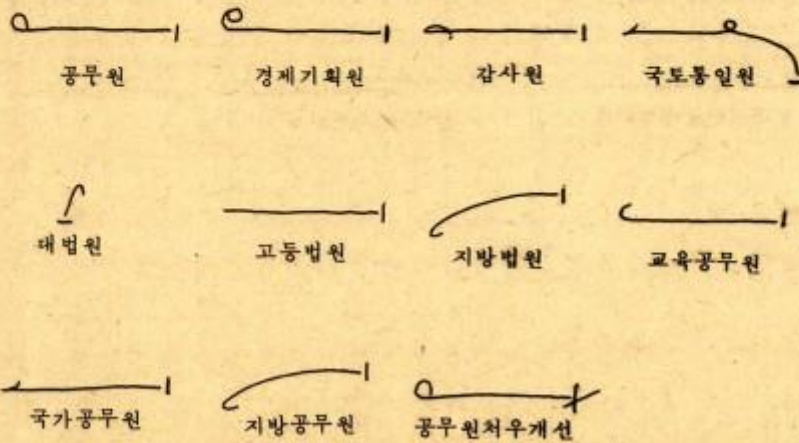

경제개발특별회계

第7章 一般應用略字略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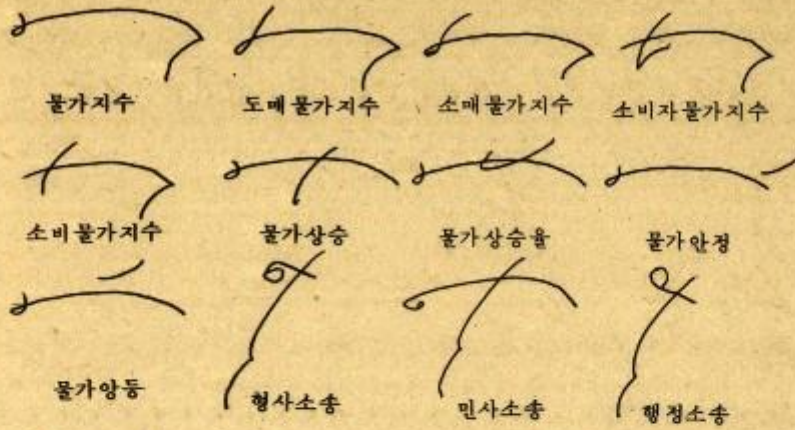
본장(本章)에서 다루는 일반응용약자는 주로 시사적(時事的)인 용어와 전문분야(專門分野)의 용어가 많고, 이들은 모두 실리적(實利的)인 약자들이다. 그리고 이같은 약기법(略記法)은 전장(前章)에서 배운 것보다 중복되는 것이 있으나 전문적(專門的)이라는 말을 상기한다면 혼동의 우려는 없을 것이다.

I. 일반 응용 약자 · 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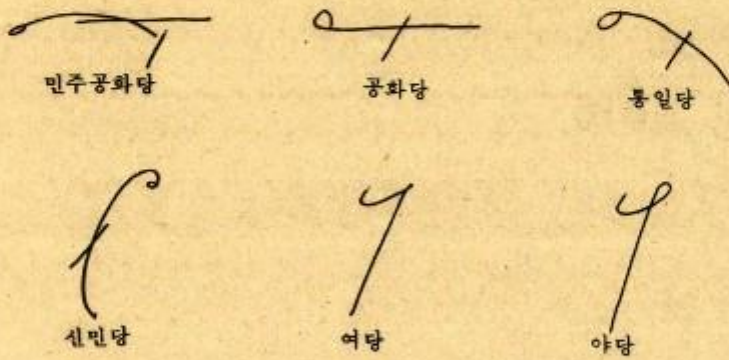
1. 원(院·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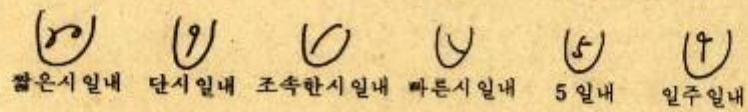
2. 물가(物價) 및 소송(訴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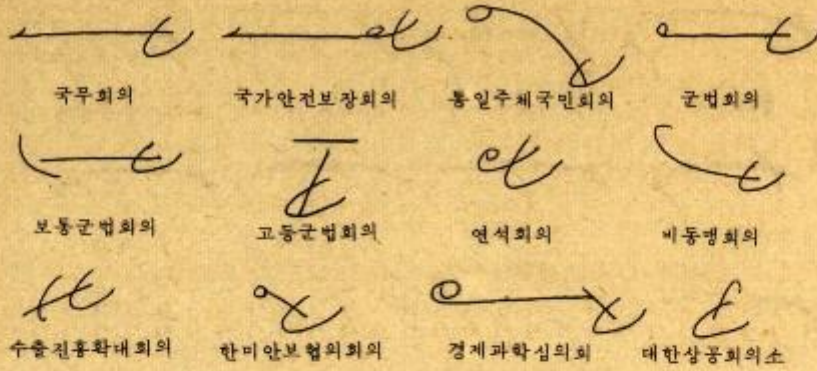
3. 당(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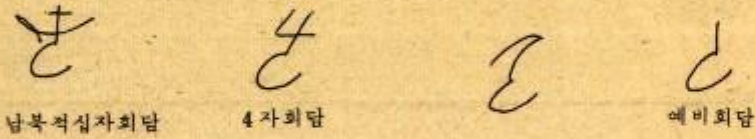
4. 시일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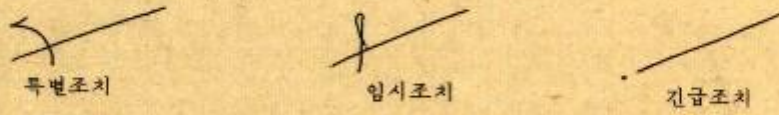
5. 회의(會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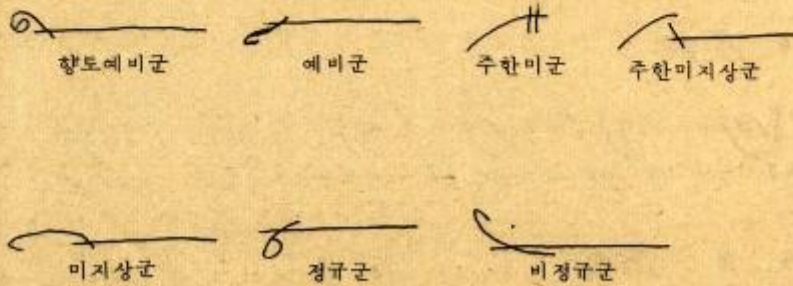
6. 회담(會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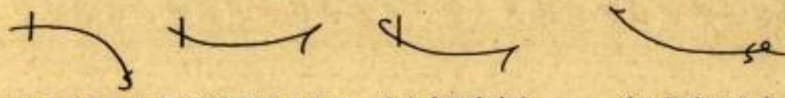
7. 조치(措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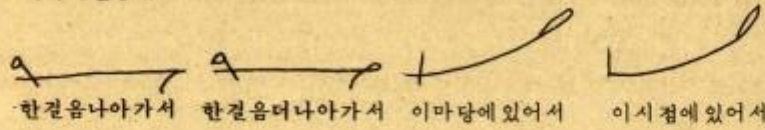
8. 군(軍)



9. 기 타(其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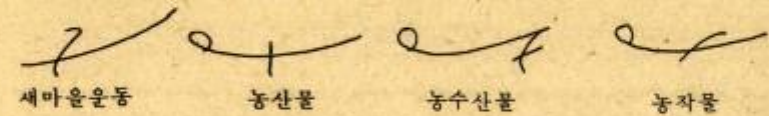
이자리물통해서 이자리에나와서 이자리물빌어서 백보물양보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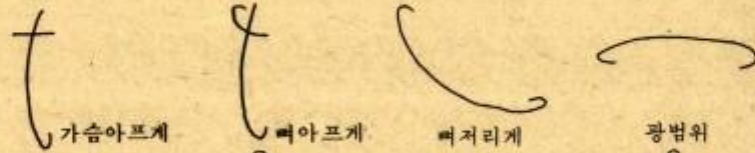
한걸음나아가서 한걸음더나아가서 이마당에있어서 이시점에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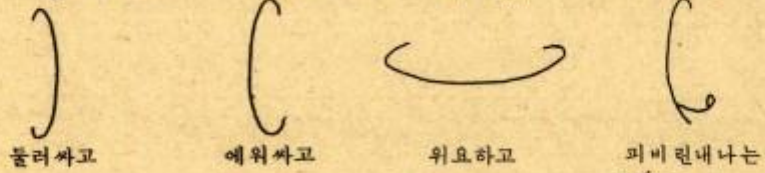
여야할것없이 여야가릴것없이 조그마한 어마어마한



새마을운동 농산물 농수산물 농작물



가슴아프게 뼈아프게 뼈저리게 광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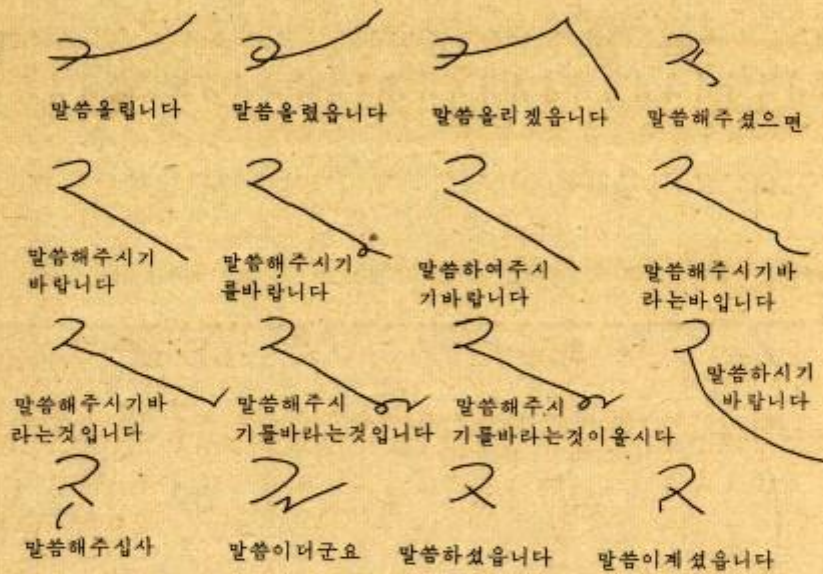
둘러싸고 에워싸고 위요하고 피비린내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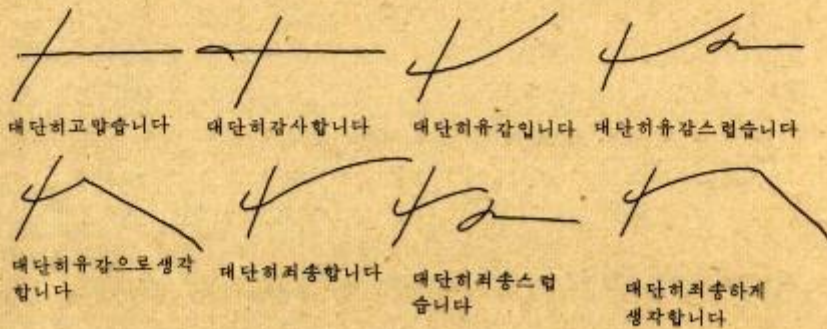
수단방법을가리지않는 남북대화 7·4남북공동성명 특파원


II. 회의 용어 약자·약부 (會議用語略字·略符)

1.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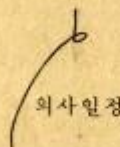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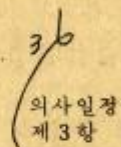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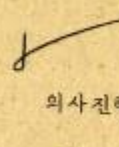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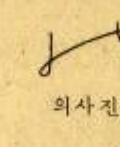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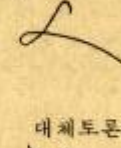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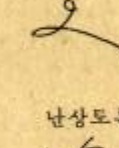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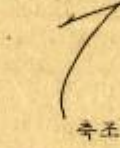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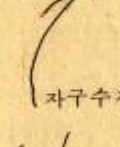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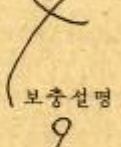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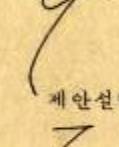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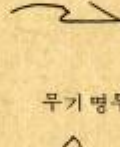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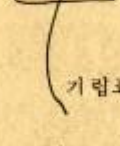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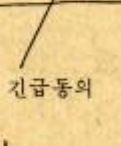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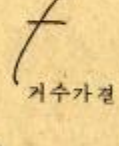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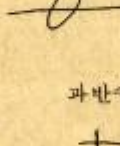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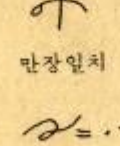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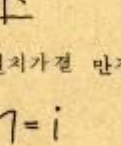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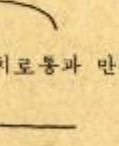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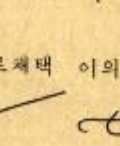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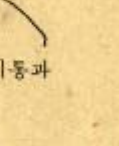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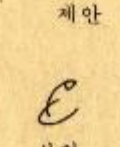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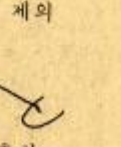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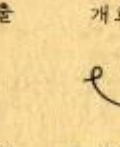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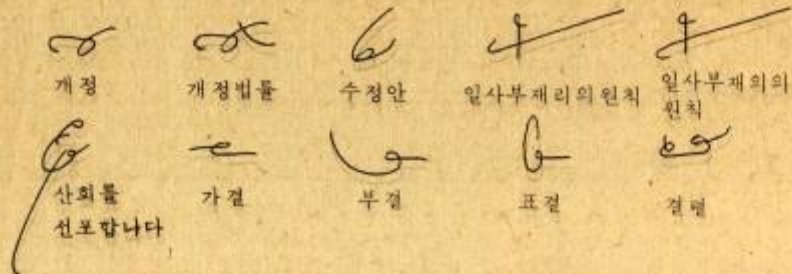
2. 대단히




대단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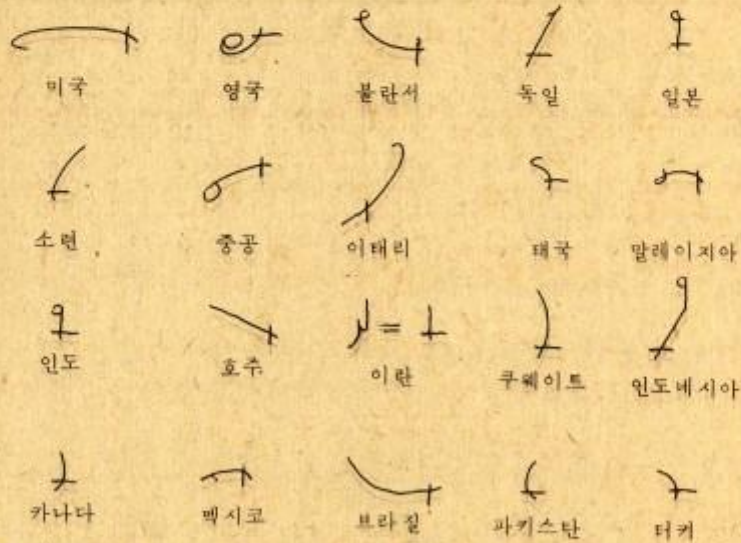
3. 기 타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 3 항	의사진행	의사진행말언	
				
심사보고	대체토론	난상토론	축조심의	
				
자구수정	보충설명	제안설명	무기명투표	
				
기립표결	진급동의	거수가결	과반수	
				
만장일치	만장일치가결	만장일치로통과	만장일치로채택	이의없이동과
				
제안	제외	제기	제출	개회
				
산회	휴회	폐회	불신임	불신임결의안



Ⅲ. 국명 약자 (國名略字)

국명 약자는 국명의 첫째 자 자미를 2mm의 「이」행이나 「가」행으로 절단하여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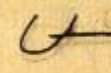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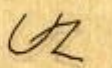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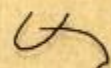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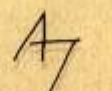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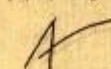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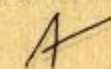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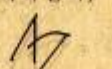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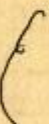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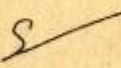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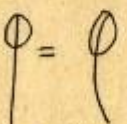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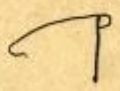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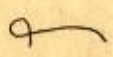




※ 나머지 국명도 이와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

第8章 英文字 應用略字·略符

영문자 응용 약자·약부는 문자 그대로 영문자와 속기문자를 적절히 병합하여 이루어진 약자·약부이다.

속기문자로 영문을 발음 그대로 표기하게 되면 그 길이가 길 뿐만 아니라 발음 속도도 우리말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한글속기법으로 영문 발음을 그대로 받아 적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빈도수가 높은 국제기구나 고유명사 및 기타 외래어 등의 첫자에 해당하는 영문자에 한글 속기문자를 적절히 병합하여 약자·약부와 하고 있다.

				
UN총회	UN회원국	UN상임국	UN헌장	UN사무총장
				
UN안전보장 ·사회	UN정치위원회	UN에두리안에서	UN신탁통치 이사회	발트해 UN사무총장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METO (중동방위조약기구)	A·I·D (국제개발처)		
				
A·I·D자금	A·I·D차관	ANZUS (대서양안전보장조약기구)		

			
UNKRA (UN한국민간권조위원단)	UNCURK (UN한국통일부흥위원회)	USOM (주한미국경제협조회)	
			
U.N.C (UN군사령부)	UNESCO (UN교육·과학·문화기구)	E.E.C (구수공동협약체)	
			
케이스바이케이스	이너시어티브	인플레	인플레이션
			
미스프린트	이데올로기	더블레	더블레이션
			
프로젝트	페리티지수	스포츠	시스템
			
올림픽	G.N.P	커뮤니케	메세지
			
커센태이지	프로태이지	셀레이션	엘리트

第9章 基本動詞 略記法

I. 기본 동사 약자(基本動詞略字)

본 속기법(本速記法)에 있어서 속도를 내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고도 능률적인*속기법은 동사 활용(動詞活用)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들의 일반 대화나 연설 및 강연 등에서 가장 변화가 심한 품사가 동사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동사는 현재(現在)·과거(過去)·대과거(大過去)·미래(未來)의 4개형의 시제 변화(時制變化)와 규정(規定)·준규정(準規定)·의사 표시(意思表示)·가능(可能)·불능(不能)·추측(推測) 등을 포함해 모두 10개형의 동사 변화가 있으며, 이들 각 동사형(動詞形)에 다시 어미 변화 30개형이 있으니 결국 한 개의 동사 변화형은 무려 300여 개라는 놀라운 숫자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본 속기법에서는 규칙적인 10개형의 동사형(動詞形)에다 불과 14개의 부호를 위치 변화시켜 무난하게 300여개라는 동사형을 간편하고도 적절히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본항(本項)에서의 기본 동사 약자(基本動詞略字)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되는 32개의 동사를 선정한 것이며, 그 구성 방법에 따라 일반동사(一般動詞)와 특수 동사(特殊動詞)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 동사 약자의 쓰는 위치는 하선(下線)이다.





II. 기본 동사 약자(基本動詞略字)의 원형(原形)

1. 일반 동사 약자의 원형

일반 동사 약자(一般動詞略字)라 함은 「간다」는 「가」, 「안다」는 「아」, 「준다」는 「주」와 같이 자기 문자의 행을 씀으로써 그 동사의 원형을 대신하는 약자(略字)를 말한다.


 간다(가)
 
 나간다(고)
 
 그렇다(그)
 
 둔다(두)
 
 모른다(모)


 믿는다(므)
 
 바란다,
버린다(바)
 
 바이다(바: 본다, 보다(보))
 
 안다(아)


 온다(오)
 
 준다(주)
 
 했다(하)
 
 해준다(호)

2. 특수 동사 약자의 원형

특수 동사 약자라 함은 일반 동사 약자처럼 자기 문자의 행(行)을 쓰지 않고 다른 문자의 행으로 표기한 동사 약자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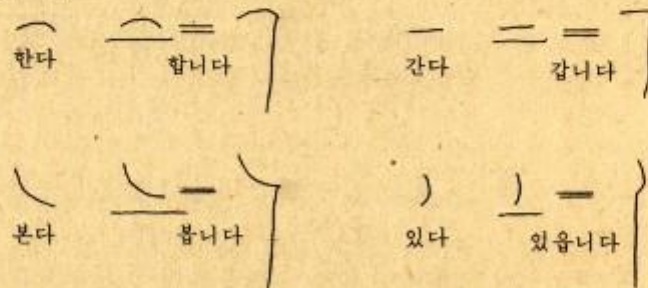
이처럼 특수 동사 약자를 설정하는 이유는 명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있다」, 「없다」, 「한다」, 「된다」, 「않으면 안 된다」, 「것이다」 등등의 동사는 그 동사의 머리 글자가 본 속기 문자로 보아 반소원(半小圓)이



Ⅲ. 존 칭 (尊稱)

문장 중에는 논설체문(論說體文)과 연설체문(演說體文)이 있다. 예컨대 동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비칭인 「한다」의 경우와 존칭인 「합니다」라는 경우가 있는바, 후자의 존칭은 전자의 비칭, 즉 보통문의 하단에 밑줄을 그어 주거나 보통문의 끝나는 부분에 이어 180도의 수평선이나 90도의 수직선을 그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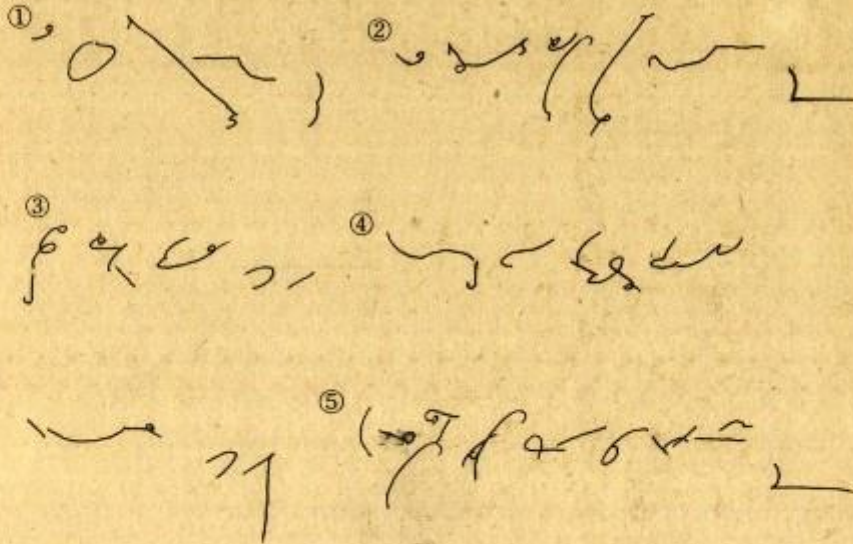
(보 기)



[예 문]

- (1)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 (2) 나는 학원에서 열심히 속기름 배우고 있습니다.
- (3) 선생님께 결석한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 (4) 부모님께 왜 수학 여행을 다녀와야 하는가를 말씀드립니다.
- (5) 포항에는 현대식 시설을 갖춘 종합

제철 공장이 있습니다.



IV. 동사 및 일반 문자의 어미 변화

동사 약자나 일반 문자의 정측(正側)·반측(反側) 또는 선단(先端)·후단(後端)의 특정된 위치에 점·삐침선·직선·소원(小圓) 등을 부기(附記)함으로써 어미 변화시킬 수 있다.

1. 점(·) 위치 변화



① 며 ② 니 ③ 나 ④ 고 ⑤ 는데 ⑥ 지

2. 좌하(左下) 빠침선(/) 위치 변화



① 면 ② 님까 ③ 느나 ④ 다고(라고) ⑤ 다는데(라는데) ⑥ 는쪽(인지)

3. 가행 직선(-) 위치 변화



① 면서 ② 니잔 ③ 느나고 ④ 티라고 ⑤ 리라는데 ⑥ 지만

4. 소원형 (o) 위치 변화



① 다면(라면) ④ 고는(라고) ⑤ 는데는 ⑥ 지는

5. 우상(右上) 빠침선(ノ) 위치 변화



① 차면 ③ 느냐하는 ④ 다고하면

6. 영문 에스형「ㄷ」위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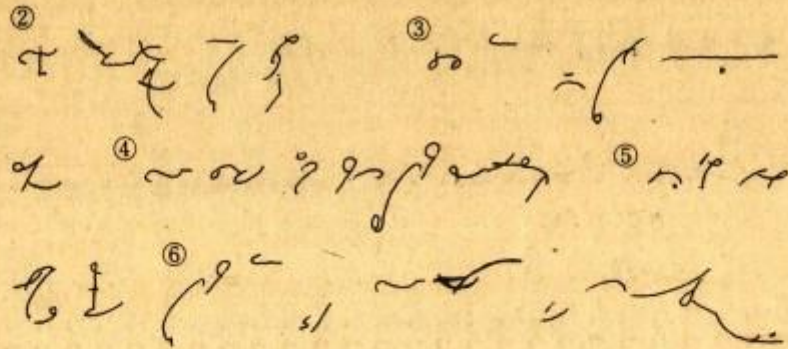


① 다고(라고)해서 ⑤ 는데에서

[예 문]

- (1) 창 밖을 가만히 내다 보는데 당신의 뒷모습이 보였다.
- (2) 내일이 합격자 발표날이니까 가슴이 설레인다.
- (3)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네.
- (4) 내가 만약 새라면 당장에 당신에게로 날아 갈텐데
- (5) 먹고 살자면 차비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 (6)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겁낼 줄 아느냐? 마음대로 해 보게나.

① *Handwritten cursive examples of the verb '다오' (do) in various forms, illustrating the hook positions discussed in the text.*



V. 동사의 시제 변화(時制變化)

1. 「현재 · 과거 · 대과거 · 미래」의 동사 변화

속기법(速記法)에 있어서 동사의 시제 변화(時制變化)는 동사 약자(動詞略字)의 원형(原形)을 현재(現在)로 하고, 반소원(半小圓)과 「ㄱ」받침을 이용하여 과거(過去) · 대과거(大過去) · 미래(未來)를 구분하고 있다.

- (1) **현재** : 「...다」에 해당하는 현재형은 일반동사 약자 또는 특수동사 약자의 원형이다.
- (2) **과거** : 「...였다」에 해당하는 과거형은 현재형 동사 앞머리 정측에다 반소원(半小圓)을 붙인다.
- (3) **대과거** : 「...였었다」에 해당하는 대과거형은 현재형 동사 말단 정측에다 조사 「에」의 반소원을 붙인다.
- (4) **미래** : 「...ㄹ 것이다」에 해당하는 미래형은 현재형 동사 앞머리에다 「ㄱ」받침형을 붙인다.

(보 기)

현재	과거	대과거	미래
((((



2. 기타 동사 변화

동사의 변화는 현재·과거·대과거·미래 등 시제의 변화 외에 규정(規定)·준규정(準規定)·의사 표시(意思表示)·가능(可能)·불능(不能)·추측(推測) 등의 변화가 있다.

- (1) 규 정 : 「...는 것이다」에 해당하는 규정(規定)은 동사 약자의 원형 말단에 반측(反側)에 꺾침선을 붙인다.
- (2) 준규정 : 「...ㄴ 것이다」에 해당하는 준규정(準規定)은 동사 약자의 원형 앞머리에다 「ㄴ」받침형을 붙인다.
- (3) 의사표시 : 「...겠다」에 해당하는 의사표시(意思表示)는 동사 약자의 원형 앞머리에다 「ㄹ」받침형을 붙인다.
- (4) 가 능 : 「...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가능(可能)은 동사 약자의 원형 말단에다 조사 「을」형을 붙인다.
- (5) 불 능 : 「...고 수 없다」에 해당하는 불능(不能)은 동사 약자의 원형 말단에다 조사 「어야」형을 입벌린 부분의 정측(正側)을 향하도록 붙인다.
- (6) 추 측 : 「...었을 것이다」에 해당하는 추측(推測)은 동사 약자의 원형 앞머리에다 조사 「어야」형을 입벌린 부분이 정측(正側)을 향하도록 붙인다.

규 정	준규정	의 사	가 능	불 능	추 측
ㄴ	ㄴ	ㄹ	을	어야	어야
ㄴ	ㄴ	ㄹ	을	어야	어야
ㄴ	ㄴ	ㄹ	을	어야	어야

추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능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가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의사표시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준규정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구정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미레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대과거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과거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제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위치 방법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④	⑤	⑥	①	③	④

위 번호	현재	과 거	대과거	미 래	규 정	준규정	의사표시	가 능	불 능	추 측
④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⑤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Ⅵ. 복합시제 응용약기법 (複合時制應用略記法)

우리 한글은 표음문자(表音文字)로 발음의 표기법(表記法)이나 문법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문자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한글처럼 한 가지 뜻이 다량(多量)·다형(多型)하게 표현되는 언어 또한 없을 것이며, 특히 동사의 어미 변화는 실로 변화무쌍하다. 하지만 이같이 변화무쌍한 동사의 어미 변화도 앞서 배운 동사시제 변화를 응용하면 극히 간단히 표기할 수가 있다.

예컨대 「할 수 있는 것이다」의 복합동사도 분석하면 「할 수 있다」라는 가능동사와 「것이다」라는 규정동사의 결합형태이고, 또 「할 수 없을 것이다」의 복합동사는 「할 수 없다」라는 불능동사와 「...」것이다」라는 미래동사의 결합형태인 바, 이와 같은 복합동사의 표기법도 앞에서 배운 동사의 시제변화를 다음과 같이 적절히 응용하면 된다.

ㄴ 하였던 것이다=과거(였다)+규정(것이다)

ㄴ 할 수 있는 것이다=가능(ㄴ 수 있다)+규정(ㄴ 것이다)

ㄴ 할 수 없는 것이다=불능(ㄴ 수 없다)+규정(ㄴ 것이다)

ㄴ 할 수 있었다=가능(ㄴ 수 있다)+과거(였다)

할 수 없었다=불능(ㄱ 수 없다)+과거(였다)

하였겠다=의사표시(겠다)+과거(였다)

할 수 있을 것이다=가능(ㄱ 수 있다)+미래(ㄱ 것이다)

할 수 없을 것이다=불능(ㄱ 수 없다)+미래(ㄱ 것이다)

할 수 있겠다=가능(ㄱ 수 있다)+의사표시(겠다)

할 수 없겠다=불능(ㄱ 수 없다)+의사표시(겠다)

할 수 있었던 것이다=가능(ㄱ 수 있다)+과거(였다)+규정(ㄴ 것이다)

할 수 없었던 것이다=불능(ㄱ 수 없다)+과거(였다)+규정(ㄴ 것이다)

할 수 있었겠다=가능(ㄱ 수 있다)+과거(였다)+의사표시(겠다)

할 수 없었겠다=불능(ㄱ 수 없다)+과거(였다)+의사표시(겠다)

[복합 시제 동사 약자 연습도]

한다	간다	된다	본다	준다	온다	있다	없다	시킨다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in a traditional Korean style, consisting of nine horizontal lines of notes and rests. The notation is organized into three columns: the first column contains the main melodic line, the second column contains rhythmic markings (likely 'jangjuk' or 'jangjuk' marks), and the third column contains additional rhythmic or performance instructions. The notes are connected by curved lines, and the rests are represented by specific symbols. The paper is aged and yellowed.

第10章 動詞應用略記法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말의 동사 변화는 매우 복잡하고도 다양하다. 따라서 속기문자의 동사변화도 그만큼 복잡성과 다양성을 면 것만은 사실이나, 일정한 변화 법칙만 습득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즉, 동사의 선단(先端)이나 말단(末端)에 기본 문자의 극소문자(極小文字)(1.5mm)를 첨가하거나, 동사의 위치 변화 자리에 속기문자 또는 그 밖의 부호를 첨가하여 아무리 복잡한 동사 변화라 할지라도 간편하게 약기(略記)할 수 있는데, 이같은 약기법을 동사 응용 약기법이라 한다.

I. 「근수」 생략법

동사의 시제변화 중 「할 수는 있다」나 「할 수가 없다」와 같이 가능(可能) 또는 불능(不能)의 동사 중간에 「은·는·이·가…」 등이 있을 때 「근수」를 생략함으로써 약기할 수도 있다.

예컨대 「할 수는 있다」의 경우 「근수」를 생략하면 「하는 있다」가 되고, 이를 약자로는 「ㄴㄷ)」와 같이 표기한다. 마찬가지로 「할 수가 없다」는 「ㄴㄷ)」와 같이 표기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복합동사의 중간에 「은·는·이·가…」 등의 조사가 붙어서 변화하는 동사가 아무리 복잡하여도 「근수」만 생략해 주고,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복합동사 중 조사가 붙는 동사에 해당 조사를 붙여 동사 변화의 복잡성과 다양화를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ㄹ수」생략법의 복합동사 변화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1. 가 능

할수는 있는데 → 하는 있는데 ㄹ)
 할수도 있다면 → 하도 있다면 ㄹ)
 할수가 있다고 → 하가 있다고 ㄹ)

2. 불 능

할수는 없으니 → 하는 없으니 ㄹ)
 할수도 없지만 → 하도 없지만 ㄹ)
 할수가 없느냐 → 하가 없느냐 ㄹ)

3. 의 문

볼 수는 있는가 → 보는 있는가 ㄹ)
 볼 수도 있는가 → 보도 있는가 ㄹ)
 볼 수가 있는가 → 보가 있는가 ㄹ)

※ 「는가」의 빼침선은 우상(右上) 빼침선이다.

4. 규 정

알 수는 없는 것이다 → 아는 없는 것이다 ㄹ)
 알 수도 없는 것이다 → 아도 없는 것이다 ㄹ)
 알 수가 없는 것이다 → 아가 없는 것이다 ㄹ)

5. 미래

- 드릴 수는 있을 것이다→드리는 있을 것이다..... ㄴ } ㄷ
- 드릴 수도 있을 것이다→드리도 있을 것이다..... ㄴ } ㄷ
- 드릴 수가 있을 것이다→드리가 있을 것이다..... ㄴ } ㄷ

6. 의사 표시

- 있을 수는 없겠다→있는 없겠다..... ㄴ } ㄷ
- 있을 수도 없겠다→있도 없겠다..... ㄴ } ㄷ
- 있을 수가 없겠다→있가 없겠다..... ㄴ } ㄷ













7. 추측







- 올 수는 있었을 것이다→오는 있었을 것이다..... ㄴ } ㄷ
- 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오도 있었을 것이다..... ㄴ } ㄷ
- 올 수가 있었을 것이다→오가 있었을 것이다..... ㄴ } ㄷ

II. 「동사기본형+조사」-「ㄴ」받침 동사 응용약기법

어미가 「ㄴ」받침인 동사는 소원(小圓)을 동사 말단(末端)의 정측(正側) 또는 반측(反側)에 붙임에 따라 어미변화를 포기할 수 있다. 즉, 동사 말단의 정측에 소원을 붙이면 「은, 는」이 되고, 반측에 소원을 붙이면 「에는, 다는」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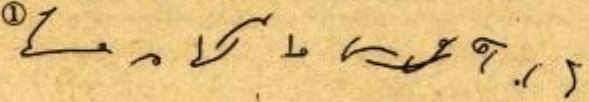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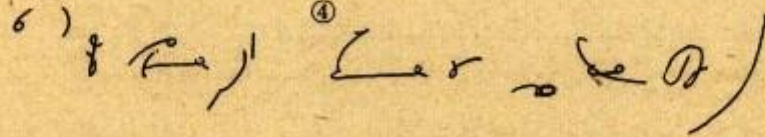

(보 기)

					
하는	한다는	있는	있다는	아는	안다는
					
오는	온다는	주는	준다는	보는	본다는

					
수 있는	올 수 있다	줄 수 있	줄 수 있	볼 수 있는	볼 수 있
	는	는	다는		다는

(예 문)

- (1) 속기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있을 것이다.
 (2) 연극을 본다는 자체는 정서면에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된다. (3) 의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좋은 성과를 이룬다. (4) 속기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첫째도 노력, 둘째도 노력, 그리고 셋째도 노력이다.

①  ② 
 ③  ④ 
 ⑤ 

Ⅲ. 「동사+의문형」 약기법

의문형 동사에는 「ㅂ니까」, 「십니까」, 「는가」, 「ㄹ까」형이 있다.

1. 「ㅂ니까」형

「ㅂ니까」형 약기법은 동사의 말단(末端)으로부터 약간 띄운 위치에서 「다」 방향으로 2.5mm 길이의 좌하(左下) 뻗침선을 표기한다.

ㄴ한다+ㅂ니까→합니까

(보 기)

하였습니다	있습니다	갑니까	압니까	줍니까	읍니까
줄 수 있습니다	볼 것입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시킨 것입니다	주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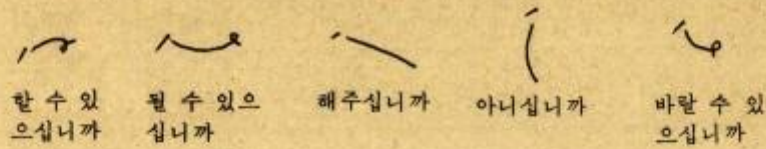
2. 「십니까」형

「십니까」형 약기법은 동사의 선단(先端)으로부터 약간 띄운 위치에서 「다」 방향으로 2.5mm 길이의 좌하(左下) 뻗침선을 표기한다.

ㅅ한다+십니까→하십니까

(보 기)

아십니까	가십니까	추십니까	보십니까	오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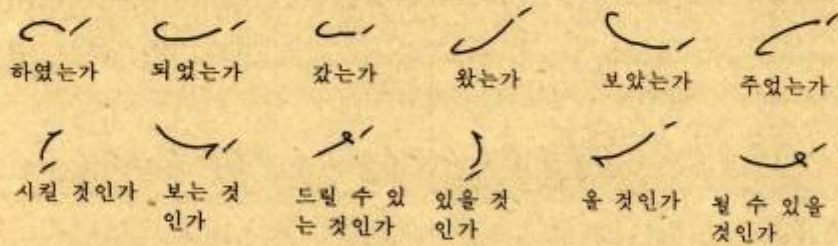


3. 「는가」형

「는가」형 약기법은 동사의 말단(末端)으로부터 약간 띄운 위치에서 「차」 방향으로 2.5mm 길이의 우상(右上) 삐침선을 표기한다. 단, 다음과 같이 「것이다」+「는가」인 경우엔 「는가」는 「인가」로 변문된다.

.....한다+는가→하는가
 하는 것이다+는가→하는 것인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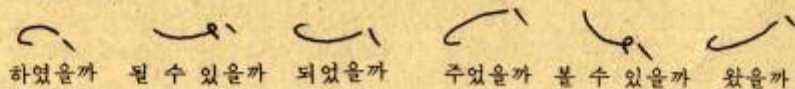



4. 「근까」형

「근까」형 약기법은 동사의 말단(末端)으로부터 약간 띄운 위치에서 「하」 방향으로 2.5mm 길이의 우하(右下) 삐침선을 표기한다.

.....한다+근까→할까

(보 기)





 드렸을까 갈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 오는 것일까 드릴 수 없을까 한 것일까

IV. 접두어 및 접미어 응용동사 약기법

1. 접두어 응용동사 약기법



 못한다 안한다 잘한다 아니한다

위와 같이 「못한다」의 「못」, 「안한다」의 「안」, 「잘한다」의 「잘」, 「아니한다」의 「안」 등과 같은 접두어가 붙는 동사의 경우 해당 접두어를 먼저 쓴 다음 약간 띄운 위치에서 동사를 써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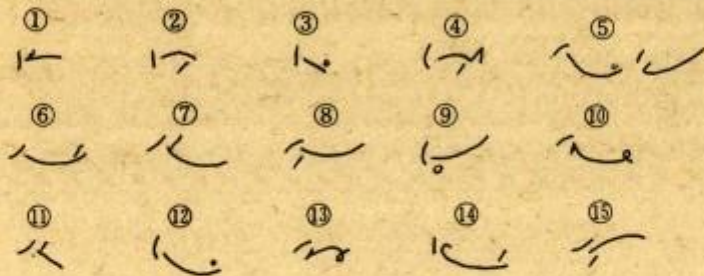
그리고 「못」은 「이」행, 「안」은 「아」행, 「잘」은 「자」행, 「아니」는 「과」행이며, 이들 접두어의 길이는 모두 2.5mm이다.

(보 기)

					
못간다	못온다	못준다	못본다	못된다	못시킨다
					
안간다	안온다	안준다	안본다	안된다	안시킨다
					
잘간다	잘온다	잘준다	잘본다	잘된다	잘시킨다
					
아니간다	아니온다	아니준다	아니본다	아니된다	아니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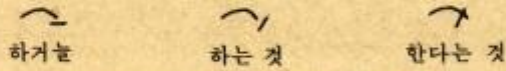
[연습]

- (1) 못 갈 것이다 (2) 못한다고 (3) 못했는데 (4) 아니 할 수 없다고 (5) 잘 보고 왔으니까 (6) 안 된다고 (7) 안 보니까 (8) 잘 되면 (9) 아니 온다면 (10)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11) 안 했으면 (12) 아니 보고 (13)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14) 못 보았다고 (15) 안 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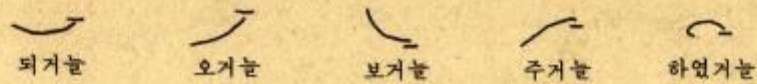
2. 접미어 응용동사 약기법 (1)

동사+「거늘·는 것·다는 것」



위와 같이 「하거늘」의 「거늘」, 「하는 것」의 「는 것」, 「한다는 것」의 「다는 것」등과 같은 접미어가 붙는 동사의 경우 동사를 먼저 쓴 다음 「거늘」은 약간 띄운 위치에 「가」행을, 「는 것」은 「다」행을, 그리고 「다는 것」은 동사의 말단(末端)에 「다」행을 걸쳐준다. 단 접미어의 길이는 모두 3 mm 이고 「다는 것」과 「라는 것」은 혼용한다.

〈보기〉



되는 것	오는 것	보는 것	주는 것	하였던 것
된다는 것	온다는 것	본다는 것	준다는 것	하였다는 것

[연습]

- (1) 보는 것은 (2) 온다는 것이 (3) 줄 수 없다는 것을 (4) 할 수 있는 것도
 (5) 받을 수 없다는 것을 (6)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7) 될 수 있거늘 (8) 못
 하였거늘 (9) 잘 할 수 있다는 것도 (10) 드리겠다는 것은 (11) 줄 수 있거늘
 (12) 잘 수 있는 것이 (13) 안 준다는 것은 (14) 알 수 없는 것이 (15) 모르겠거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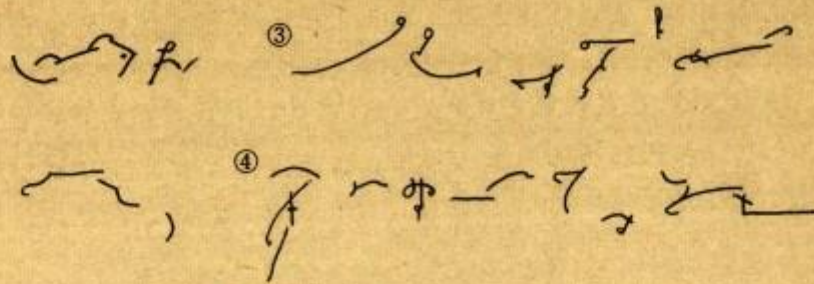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예문]

(1) 당신의 위문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2) 내가 그렇게도 청렴결백하라고 했거
 늘 부정축재 하다니 될 말인가. (3) 오늘은 단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관상대에
 서 이미 며칠 전에 예고한 바 있다. (4) 무슨 일이든 자기가 맡은 일을 꾸준히
 계속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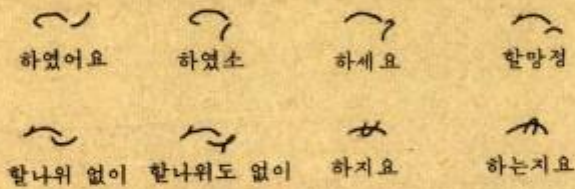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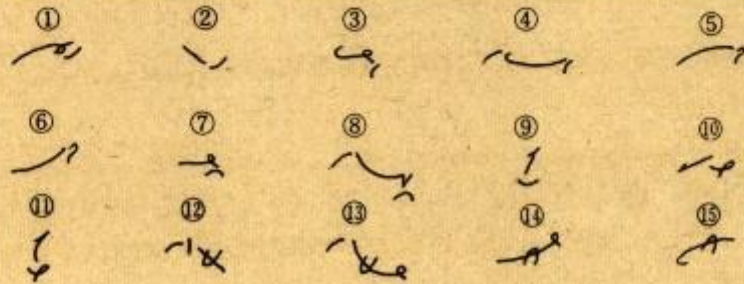
3. 접미어 응용동사 약기법 (2)

동사+「어요·소(오)·세요·망정·나위없이·지요·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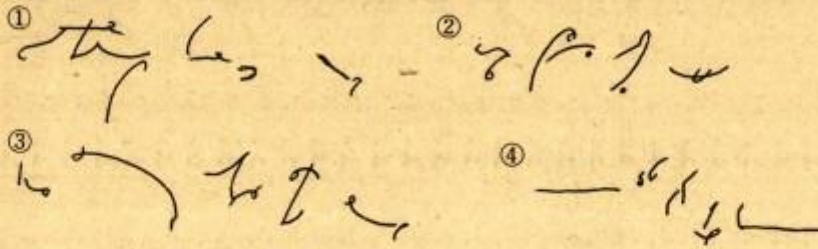
[연습]

- (1) 줄 수 없어요 (2) 했어요 (3) 갈 수 있었오 (4) 잘 되었소 (5) 주세요
 (6) 오세요 (7) 갈 수 있을 망정 (8) 잘 볼 수 없을 망정 (9) 말할 나위 없
 이 (10) 드릴 나위도 없이 (11) 시킬 나위도 없이 (12) 잘못 했지요 (13) 잘
 볼 수 있지요 (14) 올 수 있을는지요 (15) 주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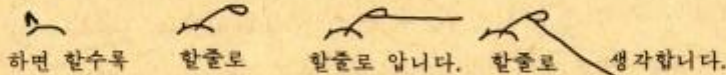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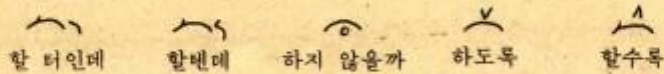
(예 문)

(1) 외국을 돌아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2) 메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지요. (3) 이번에는 틀림없이 우수작을 만들어 보겠소. (4) 그 사실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4. 접미어 응용동사 약기법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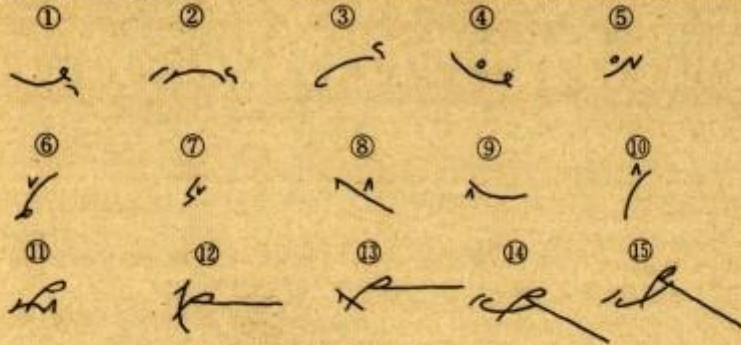
동사+「터인데·텐데·지 않을까·도록·수록·~면 ~수록·줄로·줄로
입니다. 줄로 생각합니다.



위의 「터인데」와 「텐데」는 조사 「인데」의 위치에 「타」행 5mm이고, 「지
않을까」는 조사 「나」의 위치에 소원(小圓)이며, 「도록」과 「수록」은 조사
「지」의 위치인데 반해 「~면 ~수록」은 조사 「면」의 위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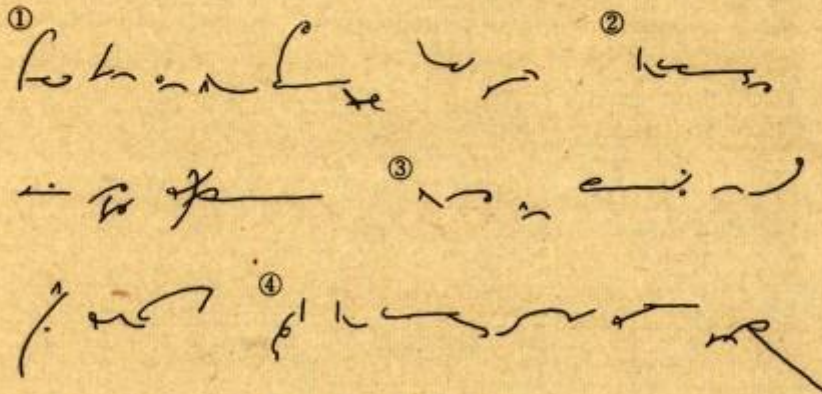
-[연 습].....
- (1) 될 수 있을 터인데 (2) 잘 모를텐데 (3) 주었을 텐데 (4) 볼 수 있지 않을까
 - (5) 알 수 없지 않을까 (6) 받을 수 있도록 (7) 말할 수 없도록 (8) 해 줄 수록
 - (9) 보면 볼 수록 (10) 받으면 받을 수록 (11) 할 수 없을 줄로 (12) 아닐줄로 압니
다 (13) 했을 줄로 압니다. (14) 잘 되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15) 안왔을 줄로 생각

합니다.



[예 문]

(1) 시간 내에 도착만 한다면 보면 볼 수록 신기한 것을 보여줄 터인데... (2) 이번 경기에서만은 꼭 좋은 성적을 올릴줄로 압니다. (3) 학문은 하면 할 수록 깊어지고 마음은 쓰면 쓸 수록 넓어진다. (4) 이 선생이 이번 기회에 업무차 출국할 줄로 생각합니다.



5. 접미어 응용동사 약기법 (4)

동사+「거니와·려니와·십시오·더니·~자마자·고자·고자 합니다·려고 합니다·예요」

위의 「십시오」는 조사 「나」의 위치이고, 「더니」는 동사 선단(先端)을 「다」행 3mm로 끊어주며, 「자마자」는 조사 「지」의 위치, 「고자」는 조사 「고」의 위치, 「려고」는 조사 「고」의 위치이고, 「예요」는 동사 말단(末端)에서 약간 띄운 위치에 「아」행 중음인 「애」를 3mm 길이로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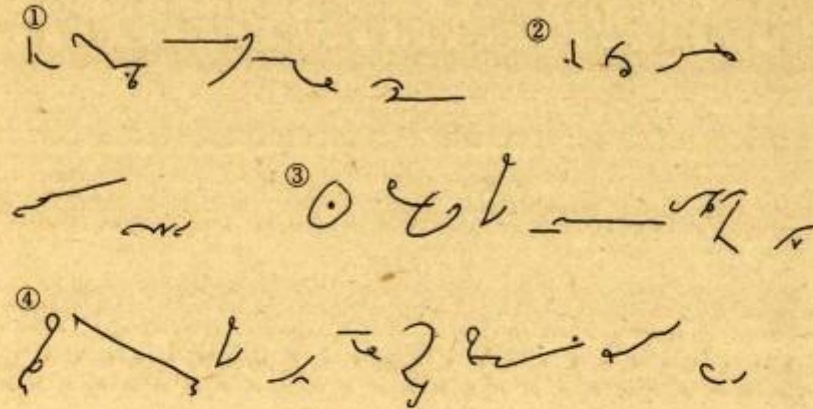
[연 습]

(1) 드릴 수 없거니와 (2) 볼 수 있거니와 (3) 잘 보십시오 (4) 안 갖더니 (5) 오자마자 (6) 볼 수 없더니 (7) 반자마자 (8) 주십시오 (9) 반고자 (10) 알고자 합니다. (11) 드리려고 합니다. (12) 안 주려고 (13) 믿을려고 합니다. (14) 잘려고 생각합니다. (15) 받을 수 있는 것이예요.

[예 문]

(1) 이번 휴가 때에는 그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2) 이와 같은 사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예요. (3) 지금부터 본 회의에 들어가하고자 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4)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마루바닥에 뺑개치

고 물어 버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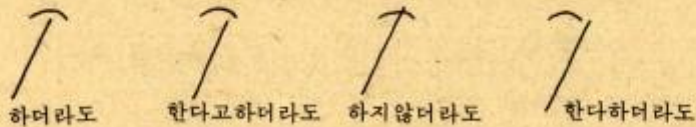


6. 접미어 응용동사 약기법 (5)

동사+「더라도」

동사 「한다」에 어미 「더라도」가 붙는 동사 변화는 「하더라도」, 「한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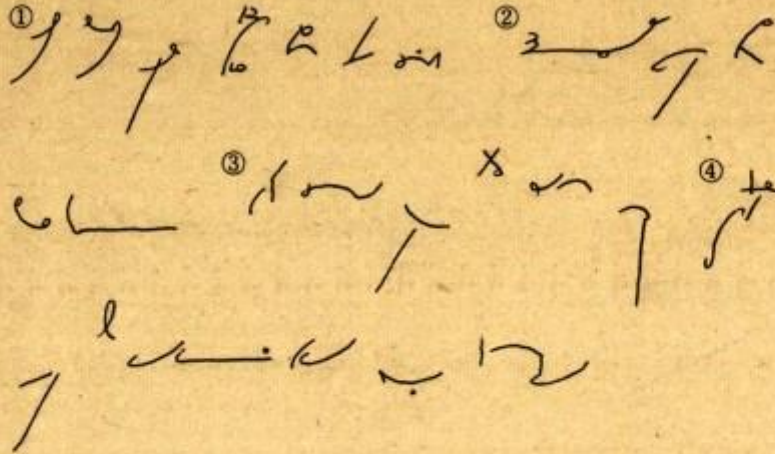
「더라도」는 해당 동사 「나」의 위치, 「다고 하더라도」는 「고」의 위치, 「지 않더라도」는 「지」의 위치, 「다 하더라도」는 해당 동사 말단(末端)에서 약간 띄운 위치에 2cm 길이의 「다」행을 각각 표기한다.



[예 문]

- (1) 아무리 빨리 올 수 있더라도 12시까지에는 설마 도착할 수 없겠지. (2) 3백원 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손해 본 것은 아닙니다. (3) 더 이상 물어보지 않더라도 결과는 알만 합니다. (4) 이것을 당신에게 드린다 하더라도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

될지 의문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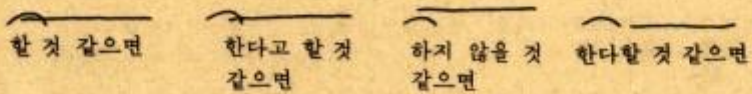


7. 접미어 응용동사 약기법 (6)

동사+「ㄹ것 같으면」

동사 「한다」에 어미 「ㄹ것 같으면」이 붙는 동사변화는 「할 것 같으면」·「한다고 할 것 같으면」·「하지 않을 것 같으면」·「한다 할 것 같으면」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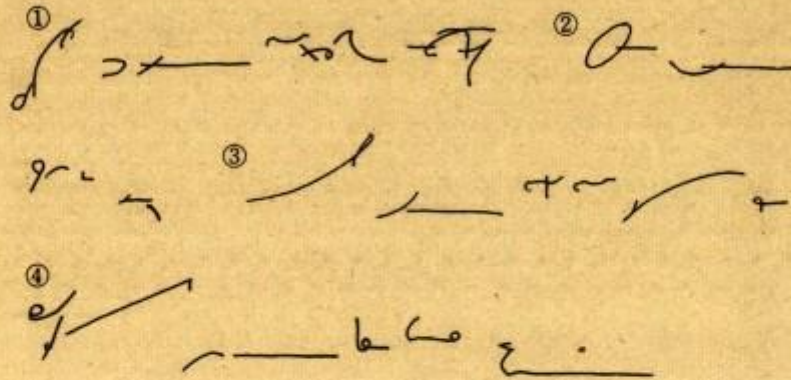
「ㄹ것 같으면」은 해당 동사 「나」의 위치, 「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고」의 위치, 「지 않을 것 같으면」은 「지」의 위치, 「다 할 것 같으면」은 해당 동사 말단(末端)에서 약간 띄운 위치에 2cm 길이의 「가」행을 각각 표기한다.



[예 문]

- (1)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내가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소 (2) 지금 끝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장 가지고 갈 터인데, (3) 오늘도 오지 않을 것 같으면 내일 내가 직접 가겠다. (4) 용돈을 충분히 준다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사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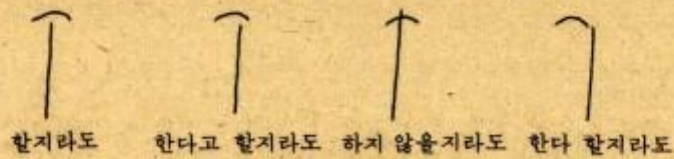


8. 접미어 응용동사 약기법 (7)

동사+「근지라도」

동사 「한다」에 어미 「근지라도」가 붙는 동사 변화는 「할지라도」·「한다고 할지라도」·「하지 않을지라도」·「한다 할지라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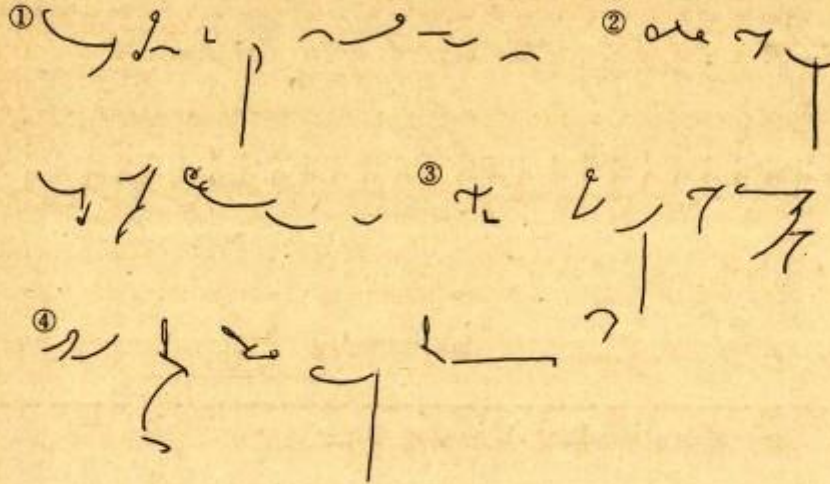
「근지라도」는 해당 동사 「나」의 위치, 「다고 할지라도」는 「고」의 위치, 「지 않을지라도」는 「지」의 위치, 「다 할지라도」는 해당 동사 말단(末端)에서 약간 띄운 위치에 2cm 길이의 수직선인 「이」행을 각각 표기한다.



[예 문]

(1) 비록 돈은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마음은 가난하다. (2) 창 밖을 내다 본다

고 할지라도 보이는 것은 어둠 속의 별빛 뿐이다. (3) 내일까지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계속 기다리겠소. (4) 어려운 입학 시험에 합격은 되었다 할지라도 입학금이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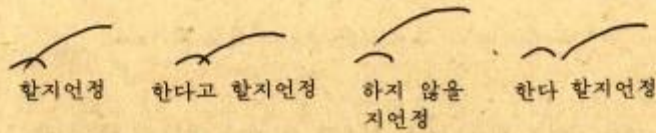


9. 접미어 응용동사 약기법 (8)

동사+「근지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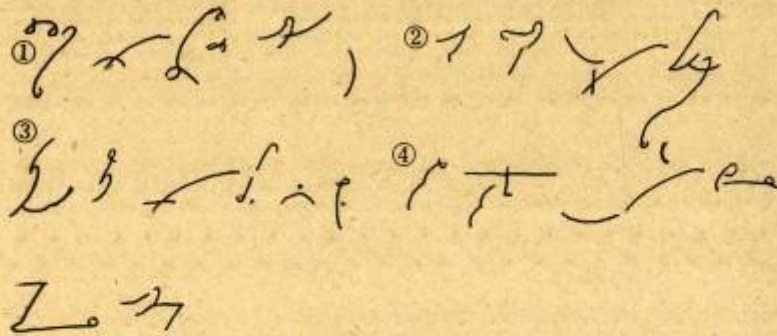
동사 「한다」에 어미 「근지언정」이 붙는 동사 변화는 「할지언정」·「한다고 할지언정」·「하지 않을지언정」·「한다 할지언정」 등이 있다.

「근지언정」은 해당 동사 「나」의 위치, 「다고 할지언정」은 「고」의 위치, 「지 않을지언정」은 「지」의 위치, 「다 할지언정」은 해당 동사 말단(末端)으로부터 약간 띄운 위치에 2cm 길이의 「자」행을 각각 표기한다.



[예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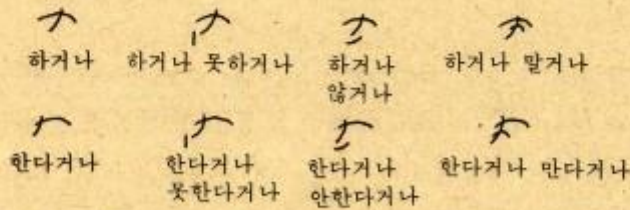
(1) 말은 쉽게 할지언정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아래가 내려다 보인다고 할지언정 뛰어내릴 수는 없다. (3) 소리내어 달려가지 않을지언정 대답은 해야 하지 않겠나. (4) 설사 그 일이 성사된다 할지언정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겠다.



10. 접미어 응용동사 약기법 (9)

동사+「거나」 및 동사+「다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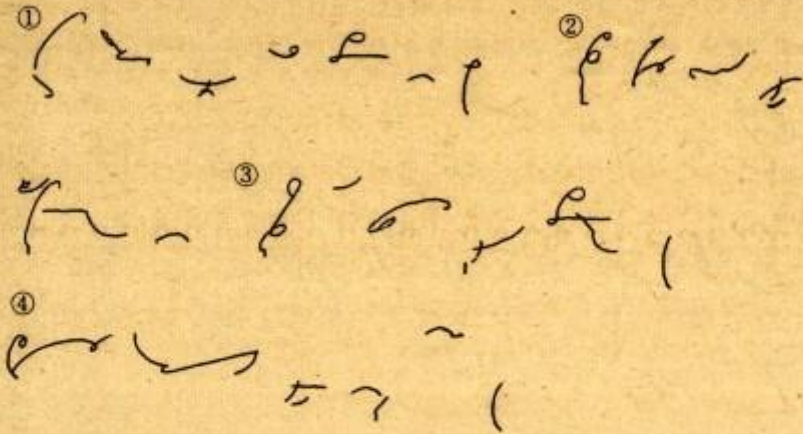
동사+「거나」의 약기법은 해당동사의 중간에 「ㄱ」받침 평음 연철법과 같은 2.5mm의 「라」행을 걸쳐 주고, 동사+「다거나」의 약기법은 해당 동사의 선단(先端)에 「ㄱ」받침 중음연철법과 같은 2.5mm의 「라」행을 걸쳐 준다.



[예 문]

(1) 시험에 합격이 되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2) 선생님이 숙제를 내어 주거나 안주거나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3) 동생이 우리 집에 온다거나 못온

다거나 상관할 바 아니다. (4) 편지를 부치러 간다거나 안간다거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11. 접미어 응용동사 약기법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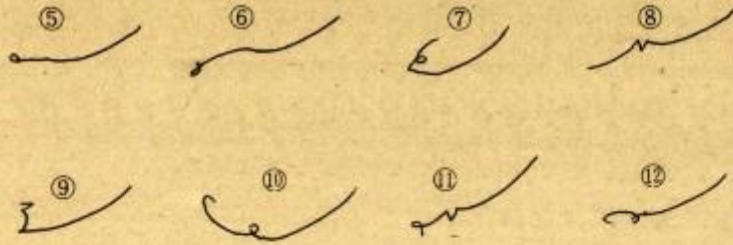
동사+「기 때문에」

「때문에」 약기법은 상선약부에서 이미 기술한 바 있으며, 여기서는 「때문에」의 접미어가 동사와 연결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2cm의 「아」행을 해당 동사 말단에 연결시킨다.

(보 기)

- (1) 있기 때문에 (2) 하였기 때문에 (3) 되었었기 때문에 (4) 볼 것이기 때문에
 (5) 간 것이기 때문에 (6) 주졌기 때문에 (7) 시킬 수 있기 때문에 (8) 올 수 없기 때문에 (9)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10) 볼 수 있었기 때문에 (11) 알 수 없었기 때문에 (12) 할 수 있었기 때문에





V. 복합동사 응용 약기법

우리말의 동사는 「할 것이라 한다」 또는 「시켜 준다」 등과 같이 두 개 이상의 동사가 합하여 이루어지는 복합동사의 변화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속기 문자로는 이같은 동사 변화도 일정한 법칙하에 규칙적으로 약기할 수가 있다.

복합동사의 변화형에는 두 가지 변형이 있는데 「이라」 변형과 「동사+동사」 변형이 그것이다. 예컨대 「할 것이다」와 「한다」가 합하여 「할 것이라 한다」가 되는 형이 전자의 「이라」 변형이고, 「시킨다」와 「준다」가 합하여 「시켜준다」가 되는 형이 후자의 「동사+동사」 변형이다.

1. 「이라」 변형 약기법

- ㄱ ㄱ 할 것이라 한다=할 것이다+한다
- ㄷ ㄷ 줄 것이라 하는데=줄 것이다+하는데
- ㅂ ㅂ 볼 것이라 하지만=볼 것이다+하지만
- ㅇ ㄷ 올 것이라 하면서도=올 것이다+하면서도

2. 「동사+동사」 변형 약기법

- (/)시켜 준다=시킨다+준다
- (— /) 가져 오는데=가진다+오는데
- (\ /) 보아 주지만=본다+주지만
- (~ /) 하여 보면서도=한다+보면서도

[예 문]

(1) 늦어도 내일까지는 도착할 것이라 한다. (2) 창 밖을 내다 볼 것이라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3) 비가 올 것이라고 하면서도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 (4) 직접 전해 줄 것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망설여진다. (5) 그림을 보여 주었는데 칭찬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6) 그 일을 꼼꼼히 생각하여 보았는데 별 수 없더군요. (7)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생활만을 보아 왔다고 말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① 늦어도 내일까지는 도착할 것이라 한다. ② 창밖을 내다 볼 것이라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③ 비가 올 것이라고 하면서도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 ④ 직접 전해 줄 것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망설여진다. ⑤ 그림을 보여 주었는데 칭찬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⑥ 그 일을 꼼꼼히 생각하여 보았는데 별 수 없더군요. ⑦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생활만을 보아 왔다고 말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3. 위치 변화 응용 약기법

「하지 않는다」, 「하고 있다」 등과 같은 복합동사인 경우의 약기법은 동사의 위치 변화를 응용한다. 즉 「하지 않는다」는 「한다」동사의 「지」 위치에서 시작하여 동사 「있다」를 표기한다. 특히 「하고 있습니다」의 「고 있습니다」는 해당 동사 「고」의 위치에서 시작하여 2cm 길이의 수직선을 표기한다.

(보 기)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하지 않는다는	주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하고 있다	하고 있는	하고 있다는	주고 있다	오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다는

위의 법칙은 일반 문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응용된다. 그리고 또 동사의 위치 변화 역시 일반 문자에 응용된다.

[예 문]

(1)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즐기고 싶은 놀이이다. (2) 그렇게 하
치 않고 이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 그림을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4) 바람이 불면 당신의 옷깃이 날리고 있다고 생각
하겠지.

① 美 心 持 有 人 只 樂 欲 遊 戲 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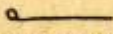








② 不 該 如 此 而 不 知 其 能 否 也 ③ 圖 畫 之 有 實 據 而 斷 定 之 謂 之 時 宜 也

























④ 風 吹 則 君 之 衣 襟 必 飛 也 豈 不 然 乎

第11章 漢字應用略記法

한자 응용 약기법은 표의문자(表意文字)인 한자(漢字)의 뜻을 이용하여 형용사나 동사 변화를 표기하는 약기법을 말한다. 즉, 두 자 이상의 문자를 한자의 한자로서 약기(略記)하는 기법이 그것이다. 예컨대, 「푸르다」는 「푸를 청(靑)」자를 「아름답다」는 「아름다울 미(美)」자들, 그리고 「움직인다」는 「움직일 동(動)」자모써 표기하고, 그 위치는 상선(上線)이며, 「고나·며……」 등의 위치 변화는 동사 약기법을 그대로 응용한다.

I. 한자 응용 약자의 기본형



			
(開) 열리다	(覺) 깨닫다	(建) 세우다	(感) 느끼다
			
(驚) 놀라다	(光) 빛나다	(起) 일어나다	(動) 부지런하다
			
(落) 떨어지다	(難) 어렵다	(待) 기다리다	(動) 움직이다
			
(得) 얻다	(亂) 어지럽다	(美) 아름답다	(分) 나누다

			
(削) 없애다	(送) 보내다	(守) 지키다	(愚) 어리석다
			
(流) 흐르다	(育) 기르다	(引) 이끌다	(任) 맡기다
			
(作) 만들다	(正) 바르다	(終) 끝마치다	(着) 붙이다
			
(聽) 듣다	(治) 다스리다	(脫) 벗어나다	(痛) 아프다
			
(破) 깨뜨리다	(膨) 늘어나다	(好) 좋다	(學) 배우다
			
(現) 나타나다	(行) 다니다	(獲) 거두다	(訓) 가르치다

※ 이상의 약자(略字) 이외에도 속기자(速記者)의 능력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나름대로의 약자를 만들 수 있다.

II. 한자 응용 약자의 시제 변화

한자 응용 약자의 시제 변화는 약자의 말단에다 동사 시제 변화를 그대로 적용한다.

- 현 재  만들다
 과 거  만들었다……현재형 말단의 정측에 조사 「에」형을 붙인다.

대 과거 ㄷ 만들었었다……과거형 말단에 다시 조사 「에」형을 붙인다.

미 래 ㄹ 만들 것이다……현재형 말단에 정측으로 45°의 삐침선을 붙인다.

규 정 ㅈ 만드는 것이다……현재형 말단에 반측으로 조사 「의」 또는 「하
는」형의 삐침선을 붙인다.

의사표시 ㅍ 만들겠다……현재형 말단에 조사 「와」형의 삐침선을 붙인다.

가 능 ㄴ 만들 수 있다……현재형 말단에 조사 「을」형을 붙인다.

불 능 ㄹ 만들 수 없다……현재형 말단에 조사 「어야」형을 입벌린 부
분이 정측을 향하도록 붙인다.

추 측 ㅅ 만들었을 것이다……현재형 중간을 3mm 직선으로 절단시킨다.

〈보 기〉

(開) ㄹ 열리다 ㄹ 열렸다 ㄹ 열렸었다 ㄹ 열릴 것이다

열리는 것 열리겠다 열릴 수 있다 열릴 수 없다 열렸을 것이다
이다

(覺) ㄹ 깨닫는다 ㄹ 깨달았다 ㄹ 깨달았었다 ㄹ 깨달을 것이다

깨닫는 것 깨닫겠다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을 수 없다 깨달았을 것이다
이다




























































(建) ㄹ 세우다 ㄹ 세웠다 ㄹ 세웠었다 ㄹ 세울 것이다

세우는 것 세우겠다 세울 수 있다 세울 수 없다 세웠을 것이다
이다






(感) ㄹ 느끼다 ㄹ 느꼈다 ㄹ 느꼈었다 ㄹ 느낄 것이다





느끼는 것 느끼겠다 느낄 수 있다 느낄 수 없다 느꼈을 것이다
이다






	(驚)				
		놀라다	놀랐다	놀랐었다	놀랄 것이다
놀라는 것 이다	놀라겠다	놀랄 수 있다	놀랄 수 없다	놀랐을 것이다	
	(光)				
		빛나다	빛났다	빛났었다	빛날 것이다
빛나는 것 이다	빛나겠다	빛날 수 있다	빛날 수 없다	빛났을 것이다	
	(起)				
		일어나다	일어났다	일어났었다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는 것 이다	일어나겠다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났을 것이다	
	(黷)				
		부지런하다	부지런했다	부지런했었다	부지런할 것이다
부지런한 것 이다	부지런하겠다	부지런할 수 있다	부지런할 수 없다	부지런했을 것이다	
	(落)				
		떨어지다	떨어졌다	떨어졌었다	떨어질 것이다
떨어지는 것 이다	떨어지겠다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없다	떨어졌을 것이다	
	(難)				
		어렵다	어려웠다	어려웠었다	어려울 것이다
어려운 것 이다	어렵겠다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울 수 없다	어려웠을 것이다	
	(待)				
		기다리다	기다렸다	기다렸었다	기다릴 것이다
기다리는 것 이다	기다리겠다	기다릴 수 있다	기다릴 수 없다	기다렸을 것이다	
	(動)				
		움직이다	움직였다	움직였었다	움직일 것이다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이겠다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일 수 없다	움직였을 것이다
(得)				
	얻다	얻었다	얻었었다	얻을 것이다
				
얻는 것 이다	얻겠다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없다	얻었을 것이다
(亂)				
	어지럽다	어지러웠다	어지러웠었다	어지러울 것이다
				
어지러운 것이다	어지럽겠다	어지러울 수 있다	어지러울 수 없다	어지러웠을 것이다
(美)				
	아름답다	아름다웠다	아름다웠었다	아름다울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답겠다	아름다울 수 있다	아름다울 수 없다	아름다웠을 것이다
(分)				
	나누다	나누었다	나누었었다	나눌 것이다
				
나누는 것 이다	나누겠다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없다	나누었을 것이다
(期)				
	없애다	없애었다	없앴었다	없앨 것이다
				
없애는 것 이다	없애겠다	없앨 수 있다	없앨 수 없다	없앴을 것이다
(送)				
	보내다	보내었다	보내었었다	보낼 것이다
				
보내는 것 이다	보내겠다	보낼 수 있다	보낼 수 없다	보내었을 것이다






(守)				
	지키다	지켰다	지켰었다	지킬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지키겠다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없다	지켰을 것이다
(愚)				
	어리석다	어리석었다	어리석었었다	어리석을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겠다	어리석을 수 있다	어리석을 수 없다	어리석었을 것이다
(流)				
	흐르다	흘렀다	흘렀었다	흐를 것이다
흐르는 것이다	흐르겠다	흐를 수 있다	흐를 수 없다	흘렀을 것이다
(育)				
	기르다	길렀다	길렀었다	기를 것이다
기르는 것이다	기르겠다	기를 수 있다	기를 수 없다	길렀을 것이다
(引)				
	이끌다	이끌었다	이끌었었다	이끌 것이다
이끄는 것이다	이끌겠다	이끌 수 있다	이끌 수 없다	이끌었을 것이다
(任)				
	맡기다	맡겼다	맡겼었다	맡길 것이다
맡기는 것이다	맡기겠다	맡길 수 있다	맡길 수 없다	맡겼을 것이다
(作)				
	만들다	만들었다	만들었었다	만들 것이다





 만드는 것
이다  만들겠다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없다  만들었을 것이다






(正)  바르다  발랐다  발랐었다  바를 것이다





 바른 것
이다  바르겠다  바를 수 있다  바를 수 없다  발랐을 것이다






(終)  끝마치다  끝마쳤다  끝마쳤었다  끝마칠 것이다





 끝마치는 것
이다  끝마치겠다  끝마칠 수 있다  끝마칠 수 없다  끝마쳤을 것이다






(驚)  붙이다  붙혔다  붙혔었다  붙일 것이다





 붙이는 것
이다  붙이겠다  붙일 수 있다  붙일 수 없다  붙혔을 것이다

(聽)  듣다  들었다  들었었다  들을 것이다

































 듣는 것
이다  들겠다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없다  들었을 것이다

(治)  다스리다  다스렸다  다스렸었다  다스릴 것이다

 다스리는
것이다  다스리겠다  다스릴 수 있다  다스릴 수 없다  다스렸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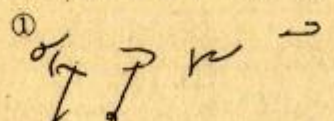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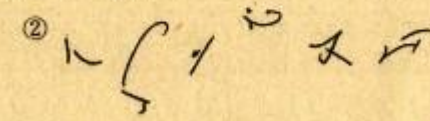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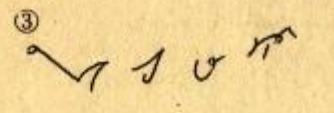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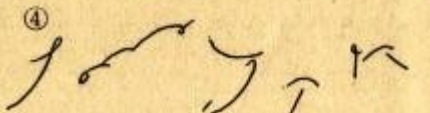

(脫)  벗어나다  벗어났다  벗어났었다  벗어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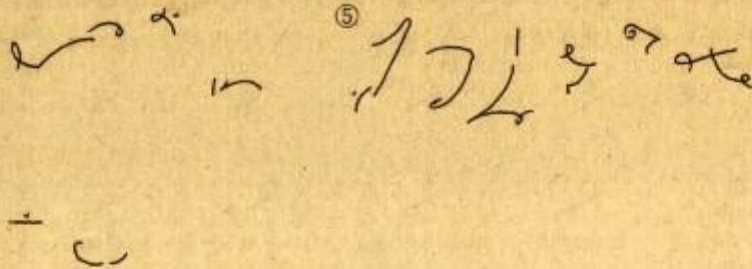
벗어나는 것 이다	벗어나겠다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났을 것이다
(痛)				
아프다	아팠다	아팠었다	아플 것이다	
아픈 것이다	아프겠다	아플 수 있다	아플 수 없다	아팠을 것이다
(破)				
깨뜨리다	깨뜨렸다	깨뜨렸었다	깨뜨릴 것이다	
깨뜨리는 것 이다	깨뜨리겠다	깨뜨릴 수 있다	깨뜨릴 수 없다	깨뜨렸을 것이다
(膿)				
늘어나다	늘어났다	늘어났었다	늘어날 것이다	
늘어나는 것 이다	늘어날 것이다	늘어날 수 있다	늘어날 수 없다	늘어났을 것이다
(好)				
좋다	좋았다	좋았었다	좋을 것이다	
좋은 것이다	좋겠다	좋을 수 있다	좋을 수 없다	좋았을 것이다
(學)				
배우다	배웠다	배웠었다	배울 것이다	
배우는 것 이다	배우겠다	배울 수 있다	배울 수 없다	배웠을 것이다
(現)				
나타나다	나타났다	나타났었다	나타날 것이다	

				
나타나는 것 이다	나타나겠다	나타날 수 있다	나타날 수 없다	나타났을 것이다
(行)				
	다니다	다녔다	다녔었다	다닐 것이다
				
다니는 것 이다	다니겠다	다닐 수 있다	다닐 수 없다	다녔을 것이다
(種)				
	거두다	거두었다	거두었었다	거둘 것이다
				
거두는 것 이다	거두겠다	거둘 수 있다	거둘 수 없다	거두었을 것 이다
(訓)				
	가르치다	가르쳤다	가르쳤었다	가르칠 것이다
				
가르치는 것 이다	가르치겠다	가르칠 수 있다	가르칠 수 없다	가르쳤을 것 이다

[예 문]

(1) 옛 선현들의 말씀들을 이제야 깨달았다. (2) 이번 시험에서 또 떨어졌으니 어떻게 할 작정이다. (3) 혼자서 어떻게 그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 (4) 아무리 잔재주를 부린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주만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5) 어디선지 모르게 이름모를 벌레가 나타나서 옷불을 꺼 버렸어요.

①  ② 
 ③  ④ 
 ⑤ 



Ⅲ. 한자응용 약기법의 활용

한자응용약자에 또 다른 동사나 일반문자가 이어질 때는 먼저 한자응용 약자 현재형을 상선에 써 준 다음 해당 동사나 일반문자를 써준다. 단, 한자응용약자에 일반동사가 이어질 때는 일반동사를 하선에 써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선에 쓰는 한자응용 약자와 하선에 쓰는 일반동사간의 거리감이 있어 속기시 일반동사의 위치가 중선에 쓰여지기 쉬우나, 먼저 쓴 한자응용약자만 상선의 위치에 정확히 쓰여졌다면 다음 동사가 중선에 위치하더라도 번문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또 한자응용약자의 시제법칙은 일반문자에도 응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한자응용 약자+동사

만들어 본다=만들다+본다.....	r
떨어져 버렸다=떨어지다+버렸다.....	r
움직여 주었다=움직이다+주었다.....	c
	g

이끌어 갈 것이다=이끌다+갈 것이다..... ㄱ
 떨어지지 않고=떨어지다+지 않고..... ㄷ

2. 한자응용약자+일반문자

만들고 싶은=만들다+고 싶은..... ㄷ
 떨어지던 것은=떨어지다+던 것은..... ㄷ
 움직여 본 것은=움직이다+본 것은..... ㄷ
 이끌어 진 일이=이끌다+진 일이..... ㄱ

3. 한자응용약자 시제변화의 일반문자 시제변화 응용법

너무나 많겠다=너무나+ 많겠다..... ㄴ
 녹을 것이다=녹을+것이다..... ㄴ
 흠치는 것이다=흠치+는 것이다..... ㄴ
 어쩔 수 없을 것이다=어쩔 수 없다+것이다..... ㄴ

(예 문)

(1) 그는 나에게 매일같이 편지를 보내 주었다. (2) 책상이 두 쪽으로 나누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3) 한말기 꽃송이가 떨어지지 않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다. (4) 본 학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의 사항일 것이다. (5) 아무리 때려도 나의 두지는 조금도 변해질 수 없는 것이다.

① — 4 5 6 7 8 9 ② 1 2 3 4 5 6 7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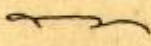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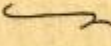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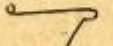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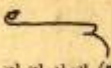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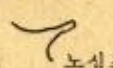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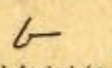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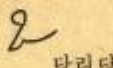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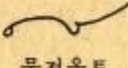

③ 1 2 3 4 5 6 7 8 9 ④ 1 2 3 4 5 6 7 8 9

⑤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第12章 四字成句略記法

우리들의 대화나 라담회 또는 회의 등에서 「감개무량」·「구사일생」등과 같이 4자(四字)로 이루어진 숙어들을 2자(二字)로 간편히 쓸 수 있는 약기법(略記法)이 4자성구약기법(四字成句略記法)이다. 4자성구약자의 쓰는 위치는 최상선 약자·약부의 위치와 같이 중선이다.

			
覺醒眞實	감개무량 (感慨無量)	고도성장 (高度成長)	골육상쟁 (骨肉相爭)
			
공개법인 (公開法人)	과잉충성 (過剩忠誠)	구사일생 (九死一生)	국리민복 (國利民福)
			
금시초문 (今時初聞)	기조연설 (基調演說)	기진맥진 (氣盡脈盡)	근로대중 (勤勞大衆)
			
긴장상태 (緊張狀態)	노심초사 (勞心焦思)	다수가결 (多數可決)	당리당략 (黨利黨略)
			
대동소이 (大同小異)	대의명분 (大義名分)	동족상잔 (同族相殘)	동족상쟁 (同族相爭)
			
명명백백 (明明白白)	명약관화 (明若觀火)	문전옥토 (門前沃土)	방위조약 (防衛條約)

			
복잡다난 (複雜多難)	복잡다단 (複雜多端)	부정부패 (不正腐敗)	부정축재 (不正蓄財)
			
불철주야 (不徹晝夜)	비일비재 (非一非再)	사고방식 (思考方式)	사리사욕 (私利私慾)
			
사사건건 (事事件件)	삼척동자 (三尺童子)	생존경쟁 (生存競爭)	설상가상 (雪上加霜)
			
설왕설래 (說往說來)	숙덕공돈	순국선열 (殉國先烈)	시시비비 (是是非非)
			
시종일관 (始終一貫)	신사숙녀 (神士淑女)	심사숙고 (深思熟考)	아전인수 (我田引水)
			
안녕질서 (安寧秩序)	안전보장 (安全保障)	어부지리 (漁夫之利)	어불성설 (語不成說)
			
언어도단 (言語道斷)	엄중처단 (嚴重處斷)	연구검토 (研究檢討)	옥신각신
			
완가완부 (日可日否)	욕구불만 (欲求不滿)	용두사미 (龍頭蛇尾)	우여곡절 (迂餘曲折)
			
우왕좌왕 (右往左往)	원리원칙 (原理原則)	위험천만 (危險千萬)	유사이래 (有史以來)



유언비어
(流言蜚語)



유효적절
(有效適切)



의정단상
(議政壇上)



인권옹호
(人權擁護)



인권유린
(人權蹂躪)



일로매진
(一路邁進)



일망타진
(一網打盡)



일사천리
(一瀉千里)



일언반구
(一言半句)



일인일기
(一人一技)



일조일석
(一朝一夕)



자급자족
(自給自足)



자가당착
(自家撞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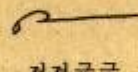
자주국방
(自主國防)



자포자기
(自暴自棄)



적재적소
(適材適所)



전전궁궁
(戰戰兢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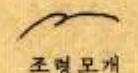
전제조건
(前提條件)



정당방위
(正當防衛)



정정당당
(正正當當)



조령모개
(朝令暮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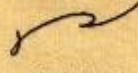
중언부언
(重言復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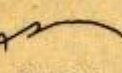
증거인멸
(證據烟滅)



지지부진
(遲遲不振)



질서유지
(秩序維持)



천두천미
(撒頭撒尾)



침소봉대
(針小棒大)



탁상공론
(車上空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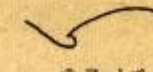
평화애호
(平和愛護)



허무맹랑
(虛無猛浪)



허심탄회
(虛心坦懷)



호구지책
(糊口之策)



호시탐탐
(虎視眈眈)



호언장담
(豪言壯談)



호혜평등
(互惠平等)



혼연일체
(渾然一體)

第13章 記事略符

실무속기(實務速記)에 들어가 속기를 하여 실제 회의록을 작성할 때에는 회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발언자의 발언 내용 사이사이에 청중이나 참석자의 인동 또는 장내 분위기 등을 묘사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예컨대 발언자의 발언 도중 장내가 몹시 소란하거나 박수 또는 웃음 등이 있을 경우 특정의 부호를 사용함으로써 장내의 분위기를 간략히 묘사할 수 있는데, 이같은 부호를 기사약부(記事略符) 또는 기사부호(記事符號)라고 한다.


또 기사약부는 위의 장내 분위기 외에도 번문시 번문의 편의를 돕기 위해 속기 도중 고유명사(固有名詞)나 주의부(注意符), 속기를 시작한다는 발단부(發端符)나 속기를 종료(終了)한다는 종결부(終結符), 기타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특수한 부호도 포함된다.

I. 박수 및 웃음 약부


1. 박 수


「다」행과 「하」행을 「X」자로 걸친다.


- | | |
|-----|-----------------|
| × | 박수(한 사람의 박수) |
| ×× | 박수있음(보통 정도의 박수) |
| ××× | 박수 많음(만장의 박수) |

 일동 박수 (소개 등에 따른 형식적인 박수)

2. 웃 음

 웃음 (한두 사람의 웃음)

 웃음 있음 (보통 정도의 웃음)

 웃음 많음 (만장의 웃음)

 폭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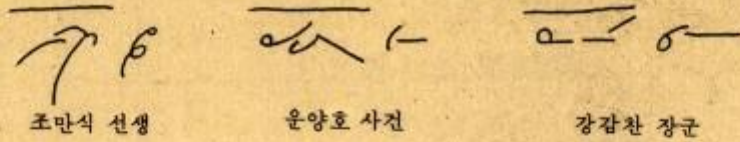
즉기시 이상의 박수 또는 웃음 약부를 표기하였다가 번문할 때도 가능하면 회의록에 기입하면 좋을 것이다. 회의 도중 박수나 웃음소리는 때로는 연사(演士)가 미리 준비했던 발언 내용 까지도 변화시킬 정도로 연설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한 사람의 박수소리나 웃음소리일 지라도 기입하여 두면 번문뿐만 아니라 발언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II. 고유명사(固有名詞)와 주의부(注意符)

1. 고유명사

어느 한 물건이나 사람에 한하여 특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인 고유명사를 번문시 일반명사와 쉽게 구별하기 위하여 고유명사인 속기 문자의 상단(上端) 위에다 가벼운 선을 그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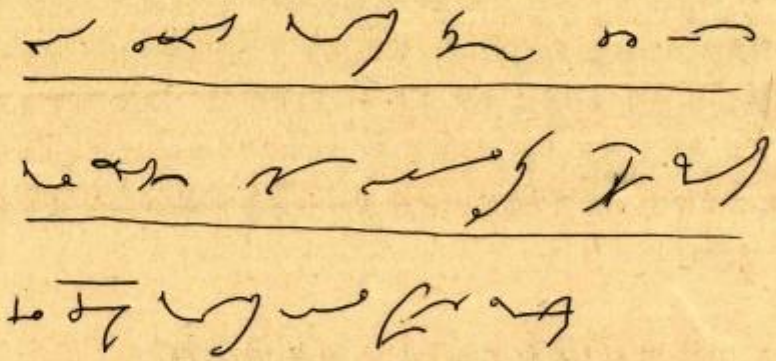
〈보 기〉



2. 주의부

속기글 하는 도중 번문시 주의를 해야 되겠다던가 또는 정확한 청취(聽取)가 곤란하여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속기 문자의 하단(下端)에다 가벼운 선을 그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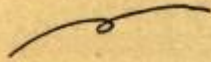
〈보 기〉



「악아 문열이라 복조리 사려무나
 맑은 가문에 복을 탐내랴만
 저다지 외치는 소리를 모른달 줄 있으리」
 이것은 이 광수의 복조리에 나오는 시조(詩調) 중의 한 구절이다.

Ⅲ. 발단부(發端符)와 종결부(終結符)

1. 발단부



속기문자를 쓰기 시작한다는 약부이다. 이 약부는 얼핏 보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연사(演士)가 발언 도중 타인(他人)의 발언 내용을 인용할 때에 그 인용구(引用句)의 발단을 밝히거나 또 발언자가 자주 바뀔 때마다 「쓰기 시작한다」는 표시를 하여 발언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속기시에 번문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지 회의록 작성시에 「발단부」의 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2. 종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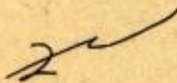


발단부 사용시 그 종료(終了)를 나타내는 약부이다. 이것도 발단부와 마찬가지로 번문의 편의를 돕기 위한 속기상의 필요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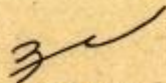
IV. 재청(再請)·삼청(三請) 및 장내 소란(場內騷亂)

각종 회의에 있어서 의안(議案) 상정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의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묘사의 약부이다.

(보 기)



재청이요



삼청이요



장내소란

V. 하는 이 있음

하는 이 있음

하는 이 많음

「을소」하는 이 있음

「을소」하는 이 많음

.....라 야유하는 이 있음

.....라 야유하는 이 많음

기사 약부 예문

(속 기)

①

②

③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ged paper, consisting of several staves of notes and rests. The notation is written in a cursive style. There are circled numbers 4 and 5 above some of the notes, likely indicating specific measures or techniques.

〈속기록〉

(1) 진 행 (〇〇〇) : 다음은 확인 사항으로서 공개법인 요건 (公開法人要件) 확인이 있겠습니다.

(「의장」하는 주주 (株主) 있음)

(2) 의 장(○○○) : 네, 말씀하세요.

(3) 송지운주주 : 공개법인 요건 확인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서도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장께서는 이의 여부(異議與否)를 물으시고 유인물로서 확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요!」하는 주주 있음)

(4) 의 장(○○○) : 네, 감사합니다. 지금 동의와 재청이 제셨습니다. 공개법인 요건 확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주주 있음)

(「확인합니다」하는 주주 많음)

(5) 의 장(○○○)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개법인 요건은 구비된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종합 예문]

第30周年 光復節慶祝辭

(1) 친애하는 남북(南北)의 5천만 동포 여러분!

오늘은 우리 겨레가 일제(日帝)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국권(國權)을 되찾은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0년 전 오늘 우리가 맞이했던 이 광복의 참뜻은 우리들도 이 강토 위에 부강하고 통일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나가면서 세계 평화와 인류의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를 다시 찾았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광복의 의의(意義)를 구현하고자 그 날의 감격을 오늘의 건설로 승화시키고 그 날의 희망을 오늘의 헌신으로 발전시키면서 민족 중흥을 위한 줄기찬 노력을 다하여 온 것입니다.

우리의 이같은 노력은 피땀어린 자고(刻苦)의 결정이며, 또한 보람찬 것이기 때문에 비록 광복 30주년을 맞는 오늘 조국의 현실이 아직도 분단의 비애(悲哀)를 극복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찬란(燦爛)한 미래의 내일을 위하여 이 날을 민족의 축전으로 경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나는 오늘이 감회깊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동포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서 조국의 번영과 평화 통일을 위한 민족적 결의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30년 축하

①

30년 축하

30년 축하

30년 축하

*註1) 뒤찾은지=은지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first line.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second line.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third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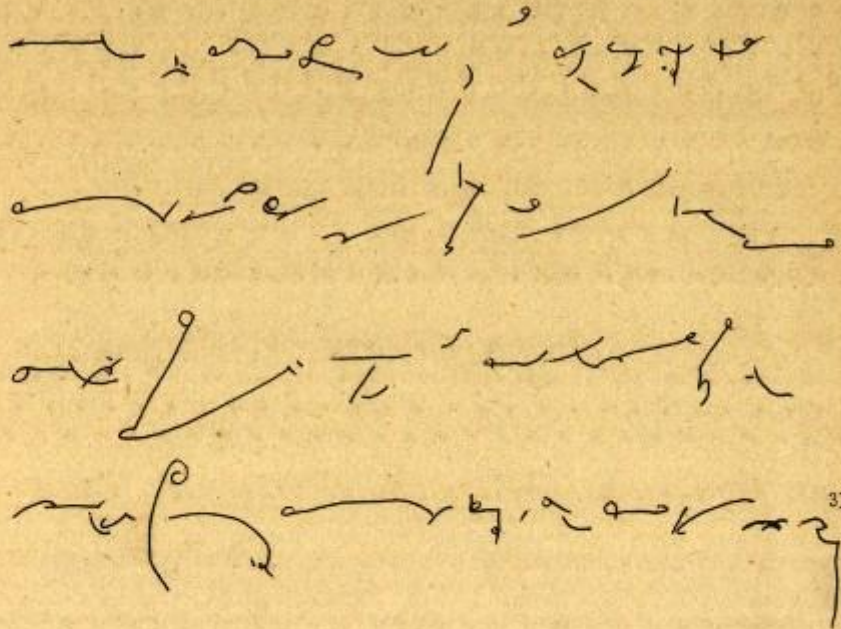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fourth line.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fifth line, with a small '2)' above.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sixth line.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seventh line.

2) : 민족 중흥



(2) 동포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난 30년 동안 내외의 도전과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민족의 발전, 번영과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부단한 전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광복 그 당시 우리 경제는 지극히 빈약(貧弱)한 것이었으며,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북한 공산 집단의 기습 남침은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전국토를 초토화(焦土化)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퇴전(不退轉)의 용기와 파멸어린 노력으로 세 차례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어제의 폐허(廢墟)를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번영의 터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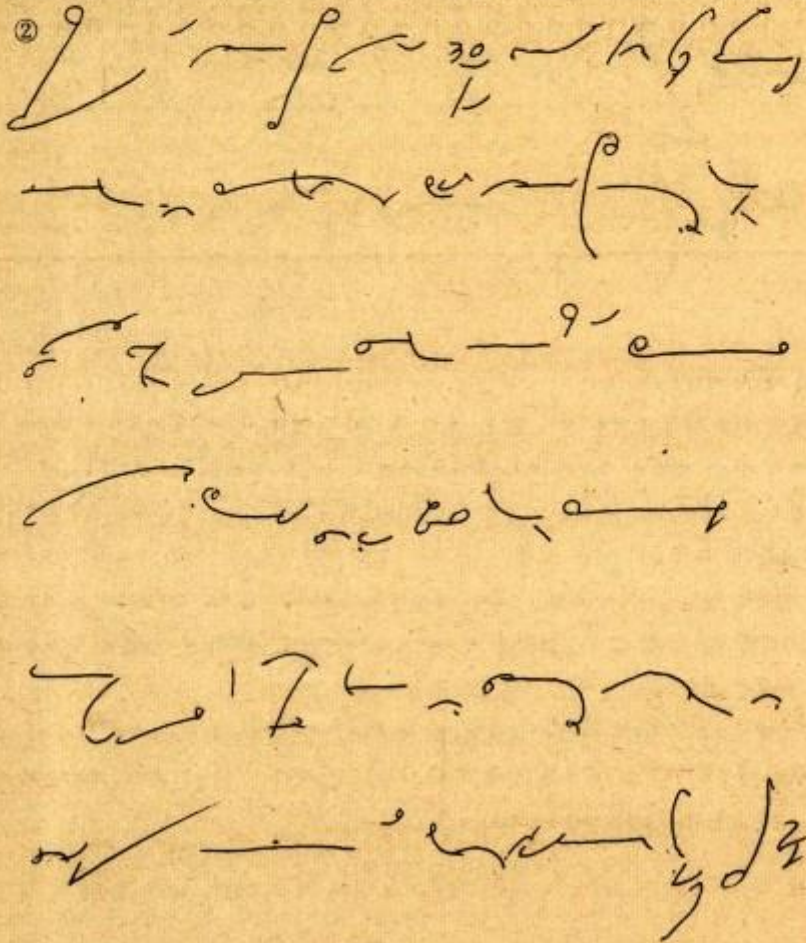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운동이 온 국민의 정신 혁명운동으로 퍼져 나가는 가운데, 바다를 메워서 농토를 만들었고, 낡아빠진 공업단지에는 세계 수준

3) 하는바이다 : 드린다+바이다=드리는바이다

∴ 한다+바이다=하는바이다

을 자랑하는 대규모 공장들이 일추의 여지없이 들어서서 이제 국토는 완연(宛然)히 그 모습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뻗어나는 고속 도로의 건설은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개편함으로써 유동 구조의 개선과 국민 생활의 향상을 크게 촉진하여 도시와 농촌의 구별도 점차 없어지고 우리 모두가 빈곤을 없애고 보다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할 수 있는 「세계 속의 한국」으로 각광(脚光)을 받게 되었으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민족 중흥의 기초를 다지게 된 것입니다.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single staff, featuring a series of notes and rests.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single staff, featuring a series of notes and re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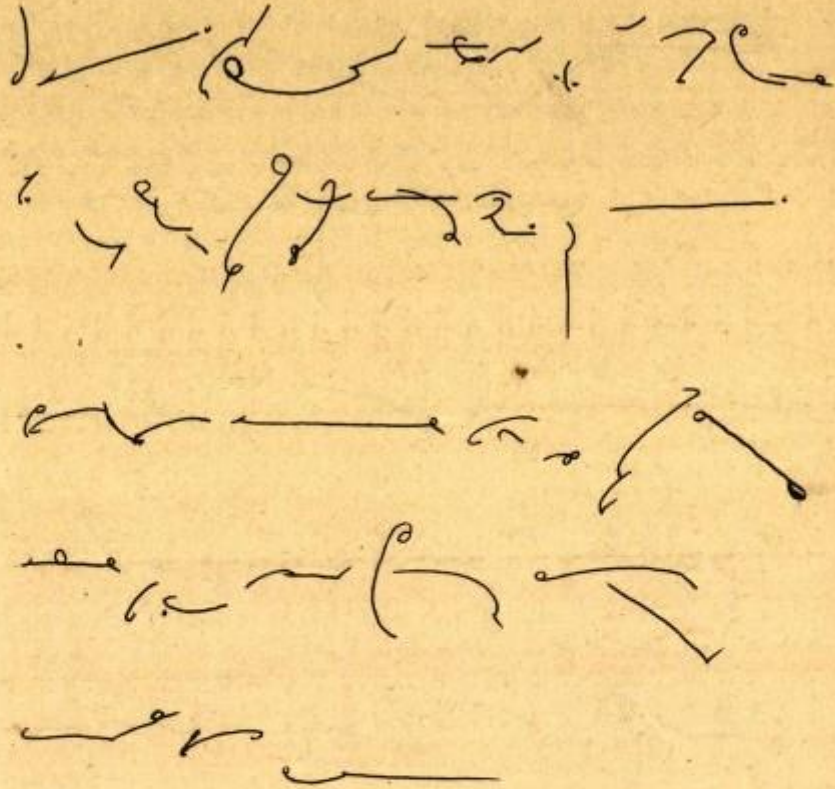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single staff, featuring a series of notes and rests.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single staff, featuring a series of notes and rests.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single staff, featuring a series of notes and rests.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single staff, featuring a series of notes and rests.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single staff, featuring a series of notes and rests.



(3) 우리는 이 귀중한 건설과 창조를 위한 노력을 한시라도 멈출 수 없으며, 더 우기 이처럼 피땀어린 노력의 열매를 또 다시 전화(戰火)로 송두리째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만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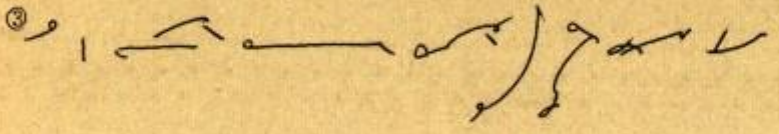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찌기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미연(未然)에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남침의 망상(妄想)을 포기하고 그들도 개발과 건설과 창조를 위한 선의의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고, 7·4 남북 공동 성명과 남북 대화를 주도(主導)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더욱 확고한 궤도(軌道) 위에 올려놓고자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을 선언하였으며,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도록 제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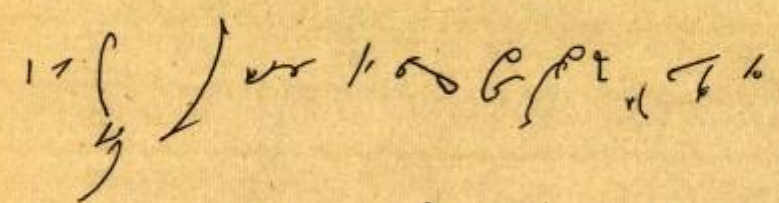
그리하여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이 대화와 교류를 증대하여 상호 신뢰를 회복하게 되면, 이를 토대로 하여 공정한 선거 관리와 감시하에 토착 인구 비례(土着人口比例)에 의한 남북 자유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통일 정부를 수립할 것 등을 밝히는 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을 천명(顯明)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지난 30년 동안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추구될 것이며,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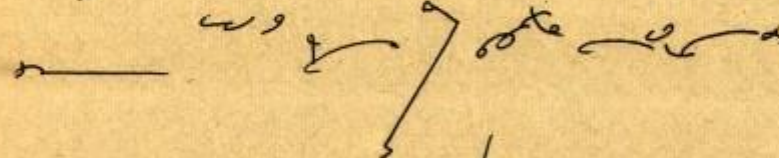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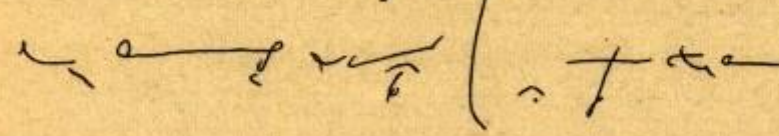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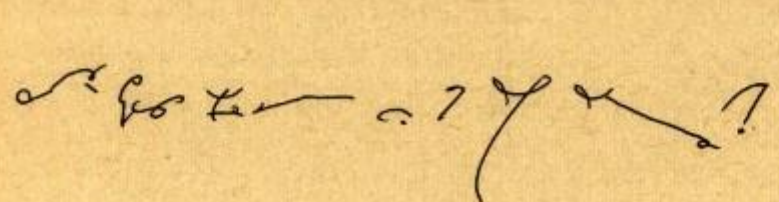
Handwritten signature or scribble



Handwritten signature or scribble



Handwritten signature or scribble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consisting of a horizontal line with several small vertical and diagonal strokes branching off it.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including a large loop on the left and a series of connected horizontal and diagonal strokes on the right.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featuring a horizontal line with a large loop on the left and several small strokes on the right.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consisting of a series of connected horizontal and diagonal strokes.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including a large loop on the left and a series of connected horizontal and diagonal strokes on the right.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featuring a large loop on the left and a series of connected horizontal and diagonal strokes on the right.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including a large loop on the left and a series of connected horizontal and diagonal strokes on the right.

4)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와 정반대의 길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을 기도했으며, 민족의 이익을 배반하고 이질적인 외래 사상(外來思想)을 광신(狂信)하면서 오직 한반도의 공산화와 민족사의 단절만을 꾀해 왔습니다. 일찌기 그들은 신탁 통치(信託統治)를 찬성하였고, UN이 전의한 남북 총선거마저 거부함으로써 민족 분열과 국토 분단의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6. 25 남침을 일으켜 동족을 무참히도 대량 살육(殺戮)함으로써 반 민족적인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조국의 평화 통일을 희원(希願)하는 민족적 여망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들 전범(戰犯) 집단은 휴전 후에도 여전히 침략주의적 망상에 사로잡혀 북한 동포를 흑독(酷毒)하게 착취하면서 이른바 4대 군사 노선을 강행하여 북한 전역을 완전히 병영화(兵營化)하고 남침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북한 동포를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한 개인 우상 숭배의 노예로 만들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말살시킴으로써 우리 조상 전래(傳來)의 도의와 미풍양속, 그리고 민족적 통질성마저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해서는 6. 25 남침 전야와 동일한 방법과 술책으로, 한편으로는 거짓 평화 선전을 통한 기만(欺騙) 선동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④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possibly representing a sequence of characters or a specific phrase.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possibly representing a sequence of characters or a specific phrase.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possibly representing a sequence of characters or a specific phrase.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possibly representing a sequence of characters or a specific phrase.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possibly representing a sequence of characters or a specific phrase.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possibly representing a sequence of characters or a specific phrase.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possibly representing a sequence of characters or a specific phrase.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single staff, consisting of eight measures.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rhythmic values such as eighth and sixteenth notes, rests, and bar lines. The ink is dark and the paper is aged and yellowed.

(5) 1960년대의 청와대 습격기도 사건과 울진·삼척 지구 무장 공비 대량 침투 사건, 대한 항공 여객기 납북 사건 등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는 그들의 무력 도발의 사례(事例)입니다. 그들은 최근에 이르러서도 우리의 서해 5도 해역 침범 사건과 작년 광복절 경축식전에서의 대통령 저격 기도 사건, 그리고 10여 개의 남침용 지하 땅굴을 파는 등, 계속 무력 침략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침략주의자들은 1972년 우리의 남북 대화 제의를 수락하던 그 시기에 이미 뒷전에서는 남침용 지하 땅굴을 파 내려오기 시작했으며, 1973년 대화가 시작된지 불과 1년도 못되어 엉뚱한 구실과 조건을 내세워 남북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말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남북 대화를 상호 신뢰의 회복과 교류의 증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침략의 방편으로 악용하여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작금에 와서는 인도지나 사태에 고무되어 제 2의 6.25를 획책하려 했으나 우리의 총력 안보 태세가 공고해지고 또한 국제 여론이 그들을 비난하게 되자 그들은 침략의 기회가 도래(到來)할 때까지 거짓 선전으로 침략 기도를 은폐하려고 갖은 간계(奸計)를 농(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⑤ 1960년

Handwritten mathematical expression: $\int \frac{1}{x} dx = \ln|x| + C$

Handwritten mathematical expression: $\int \frac{1}{x^2} dx = -\frac{1}{x} + C$

Handwritten mathematical expression: $\int \frac{1}{x^3} dx = -\frac{1}{2x^2} + C$

Handwritten mathematical expression: $\int \frac{1}{x^4} dx = -\frac{1}{3x^3} + C$

Handwritten mathematical expression: $\int \frac{1}{x^5} dx = -\frac{1}{4x^4} + C$

Handwritten mathematical expression: $\int \frac{1}{x^6} dx = -\frac{1}{5x^5} + C$

Handwritten mathematical expression: $\int \frac{1}{x^7} dx = -\frac{1}{6x^6} + C$

Handwritten symbols and characters, possibly representing a specific dialect or shorthand.

Handwritten symbols and characters, possibly representing a specific dialect or shorthand.

Handwritten symbols and characters, possibly representing a specific dialect or shorthand.

Handwritten symbols and characters, possibly representing a specific dialect or shorthand.

Handwritten symbols and characters, possibly representing a specific dialect or shorthand.

Handwritten symbols and characters, possibly representing a specific dialect or shorthand.

(6) 그들의 선전이 얼마나 거짓에 가득차 있는가 하는 것은 남침용 지하 땅굴의 경우만 보더라도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들 지하 땅굴에 대하여 공동 조사를 실시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 선전의 기만성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광복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반도의 냉엄(冷嚴)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비록 이처럼 시련과 도전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시라도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조국의 평화 통일은 떠나 할 것 없이 우리 겨레 모두가 가슴 속 깊이 지니고 있는 한결같은 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적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며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통일 정책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조국 통일이 아무리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폭력이나 무력에 의해 추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後 略)

- (朴正熙大統領, 1975. 8. 15. 第30周年光復節 慶祝辭에서) -

⑥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광복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반도의 냉엄(冷嚴)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비록 이처럼 시련과 도전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시라도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조국의 평화 통일은 떠나 할 것 없이 우리 겨레 모두가 가슴 속 깊이 지니고 있는 한결같은 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적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며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통일 정책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조국 통일이 아무리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폭력이나 무력에 의해 추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後 略)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possibly representing a sequence of characters or a specific phrase.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possibly representing a sequence of characters or a specific phrase.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possibly representing a sequence of characters or a specific phrase.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possibly representing a sequence of characters or a specific phrase.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possibly representing a sequence of characters or a specific phrase.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possibly representing a sequence of characters or a specific phrase.

Handwritten shorthand symbols, possibly representing a sequence of characters or a specific phrase.

Handwritten text in Korean script, consisting of several lines of cursive writing. The text is written on aged, yellowish paper. The first line contains a long horizontal stroke followed by several smaller strokes. The second line starts with a horizontal stroke and continues with more complex cursive characters. The third line begins with a vertical stroke and a series of connected loops. The fourth line is a single horizontal stroke followed by a few dots. The fifth line contains a date: 1975. 15. 20.

第14章 效果的인 速記練習法

속기사는 발언자가 어떠한 말이 나오더라도 주저함이 없이 반사적인 운필(運筆)이 가능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도 난이(難易)한 발음이 있듯이 속기 문자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완전한 속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어떠한 말에도 원활하게 속기해 나갈 수 있도록 광범위한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I. 연습 방법

이미 수차에 걸쳐 기술한 바이지만, 아무리 빨리 발언자의 발언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속기했다고 하더라도 번문(翻文)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낙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시간의 낭비일 뿐이다.

또한 속기틀 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쓰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발언자의 발언 내용을 이해하면서 잡념을 버리고 써야 문자의 흐트러짐을 막고 정확한 번문을 할 수 있다.

1. 쓰기 연습

(1) 보고쓰기

신문·잡지 또는 일반 서적을 보고 속기 문자로 쓰는 방법이며, 이는 정

확한 속기 문자를 쓰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보고쓰기」 연습 때에도 속도에는 상관하지 말고 날자날자를 신경 써서 연습한 다음, 다시 조금 빠른 속도로 써 놓고 자신이 쓴 문자를 살펴 보아 무의식중에 잘못 쓴 문자의 결함을 발견하여 반복 연습함으로써 자기 문자의 특징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방법은 초보 단계에서의 필수적인 연습법이다.

(2) 맹서(盲書)

눈은 신문이나 서적을 보고 계속 읽으면서 자기가 쓰는 속기문자를 보지 않고 써 나가는 방법이며, 초보 단계에서의 속도 연습에 효과적이긴 하지만 정확한 문자를 쓸 수 없어 글씨체를 흐트러뜨릴 염려가 있음이 단점이다.

따라서 맹서(盲書)는 「보고 쓰기」를 충분히 연습한 다음 해야 한다.

(3) 듣고 쓰기

① 녹음기 이용법

녹음기 이용법은 다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녹음기에다 약자 및 약부(조사나 동사 등)를 녹음하여 약기법을 익히는 방법과,

둘째, 자기의 속기 능력보다 1분당 10~20자 정도 빠르게 녹음하여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과,

셋째, 자기의 속기 능력보다 1분당 10~20자 정도 느리게 녹음하여 문자의 정확성을 기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특히, 셋째 방법은 자기가 써 놓은 속기 문자를 마음대로 번문할 수 없는 자에게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다.

② 낭독에 의한 연습법

낭독자가 알맞은 속도로 낭독하여 받아쓰는 방법으로, 특히 이 방법은 여러 사람의 다양한 목소리나 억양 등을 접할 수 있어 다수 발언자의 발언을 속기하는 실무속기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③ 손가락 또는 연상(聯想)에 의한 연습법

용지나 연필 등의 필기 도구없이 손가락 또는 머리 속으로 연습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은 타인과의 대담 중이나 보행시 자기의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와 눈에 보이는 간판·현수막 등의 글자를 손가락으로 써 보거나 머리 속으로 속기 문자를 그려 볼 수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연습이 가능하다.

2. 읽기 연습

속기 문자는 일반 문자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를 장시간 동안 계속할 수 있는 반면에 일반 문자와 같이 속기한 것을 막힘없이 줄줄 읽기가 힘든다는 단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속기한 것을 즉석에서 낭독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평소에 속기 문자를 낭독하는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된다.

속기 문자를 읽을 때에는 너무 부분적으로 속기 문자 자체에만 얽매어 다보면 오역(誤訳)이 나오기 쉬우므로 속기한 내용 전체에 걸쳐 상식과 기억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앞뒤 문자를 살펴가며 문장 위주로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3. 번문 연습

속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의 언어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이를 일반 문자화하는 데 있는 만큼 속기 문자의 필체야 어떻게든 정확한 번문만 될 수

있으면 좋다. 그리고 번문시에는 증거를 요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앞뒤 문장이 잘 연결되는지도 염두에 두고 번문해야 한다.

흔히 우리가 좌담회 석상에서 속기한 내용을 번문해 보면 앞뒤 문장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가 있음은 물론 또 같은 내용이 산발적으로 분산해 있는 예도 허다하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결되지 않는 문장은 기본 문장이 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결시켜 주고, 같은 내용은 한데 묶을 수 있는 문장력을 기르는 연습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문장력이 풍부한 속기사는 속기 문자에서는 다소 오기(誤記)를 하였더라도 번문시에는 바로 잡을 수도 있는만큼, 평소에 풍부한 독서를 하는 것은 문장력을 길러주고, 문장력의 향상은 훌륭한 번문의 첩경이기도 하다.

II. 자기문자체(自己文字體)의 연구

일반 문자에 있어서 사람에 따라 그 필체가 각양각색인 것과 마찬가지로 속기 문자 역시 방향·각도·길이가 사람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필기한 속기 문자를 연구·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의 결점이 발견되기 마련이다.

예컨대 속기 문자 자체가 보기 좋게 천천히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발연 속도와 같이 빨리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매초당 4~5자 이상을 속기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기본 속기 문자에서 변형된 자기 문자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같은 자기 문자의 특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가 필기한 속기 문자를 원칙대로 번문하려면 자칫 오역(誤譯)이 되거나 번문이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러므로 자기 문자의 ① 방향 ② 각도 ③ 길이 ④ 반소원 ⑤ 받침 등의 특징을 발견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효과적인 속기 연습법의 한 방법이다.

第15章 原稿整理

I. 원고 정리의 의의(意義)

속기의 가치(價値)는 속기 문자를 일반 문자화(一般文字化)하는 번문을 전제로 하여 인정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속기를 필요로 하는 각종 회의·좌담 등의 회의록 작성은 대부분 출판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속기한 내용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속기 문자를 일단 원고지(原稿紙) 위에다 일반 문자로 옮겨 쓰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 작성은 건축에 있어서 자재(資材)마련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원고를 쓰는 법은 누구나 다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쓰는 일기나 기록장, 또는 서신의 경우는 형식상의 일정한 방법이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원고는 그렇지 않다.

무릇 인쇄된 출판물이나 인쇄물은 그 모두가 사람이 일일이 한자두자 쓴 원고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출판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이 원고이고, 이 원고를 가지고서 편집과 인쇄 과정을 거쳐 인쇄된 출판물이나 인쇄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정확한 원고 정리아말로 오자(誤字)·탈자(脫字) 없는 정확한 출판물을 제작할 수 있는 초석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원고는 출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이기에 사회성을 띠고 있으며, 그러기에 원고를 작성할 때는 규칙적인「사

회적 공약(公約)이랄까」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규칙에 따라 원고를 작성해야 한다.

Ⅱ. 원고 용지(原稿用紙)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고지는 사륙배판(사륙판 전지 16절)의 크기로, 횡서(橫書)인 경우는 가로를 길게 하여 20자에 10행, 종서(縱書)인 경우는 세로를 길게 하여 20자에 10행의 200자 짜리 용지가 표준이다. 하지만 이 밖에도 용지의 크기를 배로 하여 20자에 20행의 400자 짜리도 있으며, 또 사전·전집 기타 출판물의 조판(組版) 사이즈에 알맞게 자수(字数)와 행수(行数)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

원고지의 글씨 칸의 크기는 작은 것보다 좀 큰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칸이 너무 크면 칸 수보다 글씨 수가 많아지기 쉬우며, 칸이 너무 작으면 칸 수보다 글씨 수가 적어지기 쉬워서 편집할 때 갯수 계산이 틀리기 쉽다.

또 행과 행 사이의 여백은 될 수 있는대로 넓은 것이 틀린 글자를 고쳐 쓰기에 좋으며, 주위의 여백도 될 수 있는대로 넓은 것이 편집할 때 주서(朱書)하기에 좋다.

원고지의 지질(紙質)은 표면이 미끄러워서 펜이 걸리지 않으면서도 잉크가 번지지 않고 잘 빨아들이는 것이어야 하며, 원고지의 계선(野線)은 잘 그린 원고를 사진으로 제판하여 음세트로 인쇄한 것이 좋고, 선의 색깔은 취색·담갈색·세피아색 등의 엷은색이어야 한다. 색깔이 너무 진하면 원고를 읽기가 어렵고, 붉은색이나 검정색은 문선(文選)이나 식자(植字)에 불편을 가져오기 쉬우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III. 원고(原稿) 쓰는 법

인쇄·출판할 속기의 번문은 반드시 원고 용지에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바른 글씨로 명확한 자체(字體)로 써야 한다. 초서(草書)나 자기만이 알아 볼 수 있는 괴상한 글씨는 문선·식자·교정에 있어서의 비능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출판물의 오자(誤字)·탈자(脫字)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원고 내용의 제목 위치는 경우에 따라서 적당히 잡아도 되지만 횡서(橫書)인 경우는 위로 1~2행 띄워 오른쪽으로 3~4칸(자)서부터 시작하여 쓴 후 다시 아래로 1행 띄우고 본문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본문을 쓸 때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한 칸 띄우고 둘째 칸부터 시작하여 한 칸에 한 자씩 맞추어 써야 하며, 장(章)이 바뀌어 별행을 잡을 때는 다시 한 칸 띄우고 둘째 칸부터 시작한다. 구독점(句讀點)이나 괄호 기타 문장 부호는 1자로 계산하여 한 칸에 넣는다. 이와 같은 방법은 종서(縱書)인 경우도 그대로 응용된다.

잘못된 글자를 고쳐 쓸 때에는 글자를 지우고 그 다음부터 쓰지 말고 틀린 부분을 1선(線)으로 긋고 횡서는 그 윗부분의 여백에다 종서는 바른 편에 역시 칸을 맞추어 써서 갯수를 계산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고, 숫자는 행이 꺾이지 않도록 합과 동시에 숫자의 0(영)자와 로마자 O(오) 자는 구별하기 곤란한 때가 있으므로 정확히 써야 한다.

원고는 반드시 매장마다 페이지 수를 쓰고 또 가필(加筆)할 때는 짧은 문장은 여백에다 기입해도 되지만 긴 문장은 별지(別紙)를 쓴 다음 삽입할 곳에 「별지 원고 ○○매 삽입」이라고 주서(朱書)한다. 만약 별지가 30매째와 31매째 사이에 들어가야 할 경우는 「30-2, 30-3, 30-……

등과 같이 페이지 수를 쓰고 No.30과 No.31 사이에 끼우고 그 원고의 맨 앞에 「※ 30매째에 원고 몇 매 추가」라고 주서해 두면 좋다. 그리고 원고의 마지막에는 「끝」 또는 「止」라고 주서하며, 사진이나 그림(컷트)이 들어갈 경우는 해당 장소의 난 외에 「컷트 몇 번」 또는 「그림 몇 번」이라고 주서하면 된다.

IV. 맞춤법 문제

원래 말이나 글은 인간 상호간의 의사 전달이나, 기억 또는 기록의 수단이므로 일정한 규칙대로 써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에 신경을 쓰지 않는 예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잘못된 태도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맞춤법은 「학글학회」에서 제정한 「맞춤법 통일안」을 기본으로 하며, 속기시에는 발음자의 독특한 발음을 그대로 적어 발음 내용의 효과를 더 할 수도 있다.

원고를 쓸 때에 가장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띄어쓰기」인 것 같은데,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원고를 그대로 조판했을 경우엔 교정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자면 쓸데없는 시간의 낭비를 면할 수 없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의 「띄어쓰기」의 원칙을 보면, 「단어는 각각 띄어쓰되 또는 뒷말에 붙이어 쓴다」라고 간단히 되어 있지만 실제 원고를 작성해 보면 그리 만만치 않음은 누구나 실감할 것이다. 따라서 「띄어쓰기」와 「외래어 표기법」은 항을 바꾸어 설명하고자 한다.

V. 띄어쓰기

「띄어쓰기는 하나의 기술이다」할 정도로 우리 한글 맞춤법에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띄어쓰기」이다. 원고가 출판되기 위해 편집자의 손에 넘겨졌을 때, 편집자의 눈에 가장 거슬리는 것이 무질서한 띄어쓰기이고,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편집자는 하나하나 원고를 다시 읽어 보아야 하며, 그러자면 그만큼 시간의 낭비를 가져와 신속과 정확을 생명으로 하는 속기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원고를 쓰는 집필자가 처음부터 띄어쓰기에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원고를 작성했다면 그만큼 편집자로부터 환심을 얻게 되고, 따라서 교정 미스도 적어질 것이다.

1. 토와 어미

(1) 명사(체언)나 부사에 붙는 토씨는 붙여 쓴다.

명사나 부사에 붙는 「께서, 에게, 으로, 으로서, 부터, 든지, 이야, 이야말로, 내로, 나마, 채로, 커녕, 까지, 라도, 인들, 같이, 뿐, 보다, 처럼, 조차, 만큼, 도, 더러……」 등과 같은 토씨는 붙여 쓴다.

단, 위의 「내로, 채로, 뿐, 만큼」 등이 형용사나 동사와 같은 용언(用言) 아래에 붙을 때는 토씨가 아닌 불완전명사(不完全名詞)로서 띄어 쓴다.

〈보 기〉

최장께서	당신에게	이것으로	지금부터	무엇이든지
가슴대로	통채로	오늘까지	사람뿐	처음보다
커러분처럼	관심조차	그만큼	나도	우리더러

가는 대로 먹을 만큼 벗은 채로 나갈 뿐

(2) 용언(用言)의 어미(語尾)는 어간(語幹)에 붙여 쓴다.

「갈망정」의 경우 어미 「망정」은 어간에 붙여 쓴다.

〈보 기〉

그럴망정 갈라치면 될는지 볼수록 먹을소나

할지라도 될지언정 먹었는지 밥먹듯이 그렇듯

단 위의 「듯」, 「듯이」는 부사 또는 보조형용사로 쓰일 때는 띄어 쓴다. 예컨대, 「먹을 듯 앉았다」, 「먹을 듯하다」, 「먹을 듯싶다」 등의 「듯」은 띄어 쓴다.

(3) 불완전명사(不完全名詞)는 띄어 쓴다.

「것, 데, 듯, 동안, 따름, 때문, 무렵, 바, 번, 분, 뿐, 수, 양, 이, 자, 적, 지, 즈음, 제(척), 탓, 터, 관……」 등이 불완전명사로 쓰일 때는 띄어 쓴다.

〈보 기〉

되는 것은 있을 때가 나갈 듯이 잠시 동안 울 따름

웃기 때문 잘 무렵에 할 바를 갈 번했다 왔던 분이

그럴 뿐 할 수 없이 갈 양이면 오는 이가 할 자는

(4) 보조동사(補助動詞)나 보조형용사(補助形容詞)는 띄어 쓴다.

〈보 기〉

보아 가다 견디어 내다 갖다 놓다 웃어 대다 덮어 두다

도와 주다 도와 드리다 먹어 버리다 먹어 보다 하고 싶다

걸어 오다 살아 있다 밝아 지다 갈아 주다 크기도 하다

단, 위의 「지다」, 「버리다」 등은 현재 붙여 쓰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밝아 지다」, 「먹어버리다」 등이 그 일례이다.

2. 접두사(接頭辭)와 접미사(接尾辭)

(1) 접두사(接頭辭)는 붙여 쓴다.

「가, 갓, 강, 개, 재, 건, 걸, 고, 공, 과, 구, 군, 귀, 금, 급, 내리, 내, 냉, 노, 농, 다가, 단, 단, 되, 대, 뒷, 들, 매, 무, 미, 부, 부(副), 비, 상, 쌍, 새, 셋, 생, 속, 쇠, 수, 신, 아, 암, 앞, 양, 엇, 재, 짓, 참, 타, 못, 핫, 헛, 흘, 휘……」 등이 접두사로 쓰일 때는 붙여 쓴다.

(보 기)

갓마흔	전포도	걸모양	군것질	급상승
군소리	다가서다	되물다	부소식	비공식
쌍마차	새언니	셋빨간	수강아지	엇그제

(2) 접미사(接尾辭)도 붙여 쓴다.

「가, 간, 강, 계, 계, 꼭, 공, 과, 구, 국, 군, 기, 나기, 내, 네, 대, 도, 동, 들, 들이, 만, 면, 문, 발, 법, 부, 사, 산, 상, 세, 스럽다, 시, 액, 양(嬢), 어, 업, 역, 인, 자, 장, 쟁, 적, 전, 계, 족, 주, 중, 착, 채, 처, 파, 하, 향, 화……」 등이 접미사로 쓰일 때는 붙여 쓴다.

(보 기)

차우간	그름계	씨름군	고령군	여름내
동대문	부산발(發)	이론상	며칠째	사회적
안채	근무처	감독하에	인천항	자유화

3. 첩어(疊語)와 복합어(複合語)

「끼리끼리」, 「머나먼」, 「이리저리」, 「왔다갔다」 등과 같은 첩어와 「근심걱정」, 「밤낮」, 「국그릇」, 「버들피리」 등과 같은 복합어는 하나로 익어 버린 것

으로 보고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단, 「유성룡」·「이순신」 등과 같은 사람의 이름과 성은 띄어 쓰고, 「세종대왕」·「김구선생」 등과 같은 호칭도 띄어 쓰며, 「일천구백칠십팔년」과 같이 숫자를 한글로 표기할 때는 십진법(十進法)에 의하여 띄어 쓰면 된다. 그러나 이상의 예들은 원칙에 불과하며, 「대한민국」·「민주주의」·「정당방위」·「고등학교」 등과 같은 경우는 붙여 쓰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같은 띄어쓰기 문제는 한 서적에서 띄어 쓰든 붙여 쓰든 일관성 있게만 하면 될 것이다.

4. 띄어쓰기와 붙여쓰기의 범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띄어쓰기 조항에는 「단어는 각각 띄어 쓰되, 또는 뒷말에 붙이어 쓴다. 단, 문장의 앞뒤 관계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어를 적절히 붙이어 씀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붙여 써도, 띄어 써도 괜찮다.

이 곳 저 곳→이곳 저곳

제 삼십 일 조→제삼십일조

동술 집→동술집

5. 결 어(結語)

이상에서 대충 설명한 띄어쓰기 방법은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원래 띄어쓰기를 하는 이유는 독자로 하여금 독서 능률 상승과 오독(誤讀)을 피하자는데 있는 만큼 포괄적으로는 이상의 방법에 따르는 것이 좋겠고, 더욱 세부적인 것은 원고 작성자나 편집자들이 한 문장 또는 한 서적에서 통일성 있게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

할 것은 가능하면 국민학교 국정 교과서를 몇 번 통독하여 띄어쓰기를 눈에 익히는 것이 띄어쓰기 연습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하는 게 필자의 의견이다.

VI. 외래어 표기법 (外來語表記法)

1. 의 의 (意義)

외래어(外來語)란 외국으로부터 들어 온 말이 국어(國語)에 과고 들어 익게 쓰여지는 말, 즉 국어화(國語化)한 말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써어지고 있는 외래어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또한 한글로 표기하기 어려운 것이 「로마자」이기 때문에 1958년 9월 30일 「국어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년 10월 20일자로 문교부장관의 결재를 얻어 발표한 문교부 편수국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소개하기로 한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는 「외래어는 새 글자나 부호를 만들어 쓰지 아니하고 국어 표기의 한글 자모(字母)만으로써 적는다. ……이미 관용된 발음으로 익어 버린 외래어는 국어의 표준말 발음으로 적고, 익지 않은 것은 그 원어의 맞춤법을 문세삼지 아니하고 다 그 소리대로 적되, 국어 표기에 쓰이지 않는 새 받침의 음절(音節)을 만들지 않는다」로 되어 있다.

2.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 방법 (1958. 10. 20. 문교부 편수국 발표)

(1) 표기의 기본 원칙

① 외래어(로마자) 표기에는 한글 정자법에 따른 현용 24자모만을 쓴다.

②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표기한다. 끝 이음(異音: allophone)이 여럿이 있을 경우라도 주음(主音: principal member)만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받침은 파열음에서는 「ㅂ, ㅅ, ㅈ」, 비음(鼻音)에서는 「ㅁ, ㄴ, ㅇ」, 유음(流音)에서는 「ㄹ」만을 쓴다.

④ 영어·미어(美語)가 서로 달리 발음된 경우에는 그것을 구별하여 적는다.

⑤ 이미 관용된 외래어는 관용대로 표기한다.

(2) 표기 일람표

① 모음(母音: 괄호 안은 미어에 한한 것)

a, ɑ	ㅏ	ə, ʌ(æ)	ㅓ	ɑ, ɔ	ㅗ	u	ㅜ
i(ɪ)	ㅣ	æ	ㅕ	ɛ(ɛ)	ㅑ		
w	ㅝ	ɪ(아, 애, 거, 게)	ㅜ	j	ㅟ, ㅠ, ㅞ, ㅟ		

② 자음(子音)

p, f	ㅍ	b, v	ㅃ	t	ㅌ	d, θ, ð	ㄷ
k	ㅋ	g	ㆁ	s	ㅅ	h	ㅎ
m	ㅁ	n	ㄴ	ʃ	ㅈ	l, r	ㄹ
z	ㅈ						
f	ㅍ	ʒ	ㅈ	tʃ	ㅊ	dʒ	ㅉ
ts	ㅊ	dz	ㅉ				

(3) 장모음

장모음은 동일 모음을 거듭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 적을 수도 있다.

(4) 자 음

① 파열음(p, t, k, b, d, g)이 발음일 때는 「으」를 붙여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음이 선행할 때는 반침으로 적을 수 있다. 단, 유음(流音) 앞에 있을 때는 「으」를 붙이고, 이외의 자음 앞에 있을 때는 「으」를 안 붙인다.

② 마찰음 중 「f, v, θ, ð, s, z」와 유음 중 「r」가 자음 앞에 있을 때와 발음일 때는 「으」를 붙여 적는다.

③ 비음 「m, n, ŋ」은 「으」를 붙여 적지 않는다.

④ 유음 중 「l」은 「으」를 붙여 적지 않고, 두 음 사이에서 모음 앞에 있을 때는 「ㄹㄹ」로 적는다.

⑤ 마찰음 중 「ʃ(시)」가 모음 앞에 있을 때는 모음에 따라 「샤, 서, 쇼, 슈」로 적는다.

⑥ 파찰음 「tʃ(치), dʒ(지)」가 모음 앞에 있을 때는 「ㄷ, ㅈ」으로 적을 수 있다.

3. 교과서(教科書)의 외래어 표기

(1)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에 의하여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 미어와 영어 발음이 구별될 때는 미어를 백랍을 원칙으로 하였다.

(3) 영미 이외의 말로서 그 어원과 발음이 뚜렷할 때는 그 나라 말로 적었다.

(4) 마찰음 「ʒ」가 초성일 때는 「자, 저, 조, 주」로 적었다.

(5) 파찰음 「tʃ(치), dʒ(지)」가 초성일 때는 「ㄷ, ㅈ」으로 적었다.

(6) 비음 「ŋ」이 모음 앞에 있을 때는 「ㅇ」을 더했다.

(7) 이미 관용된 말은 그것을 택하되 다음 기준에 의하였다.

① 파열자음(p, t, k, b, d, g)이 단모음(短母音) 위에 올 때는 받침으로 적었다.

단, 한 음절로 된 말 중 발음이 「b, d, g, t」일 때는 「으」를 붙여 적었다.

〈보 기〉

[kʌp]……킵, [buk]……부, [bæt]……배트, [eg]……에그

파열자음이라도 모음(장모음, 중모음) 위에 올 때는 「으」를 붙여 적었다.

〈보 기〉

[ki:p]……키이프, [meik]……메이크

② wo는 원글이 wo 때는 「워」로, wa 때는 「와」로 적었다.

③ 도이치말에서

「e」의 발음표가 「ə」일 때도 「에」로 적었다.

「s」의 발음표가 「ʃs」일 때 「xx」로 적었다.

Ⅶ. 구뚏점(句讀點)과 기타의 기호(記號)

「원고 쓰는 법」에 있어서 맞춤법·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법 이외에도 구뚏점과 기타의 기호를 문장의 적당한 부분에 씌으로써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흔히 구뚏점이나 기타의 기호는 문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들 구뚏점이나 기호들은 문장의 단락(段落)과 계속, 억양(抑揚), 리듬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에 널리 쓰이는 구뚏점과 기호를 간추려 본다.

「,」 休息符(休止符) [쉼표] : 콤마-짧은 휴식을 나타냄. 종서에서는 「,」을 사용한다.

- 「;」 정류부(停留符) [머무름표] : 세미콜론-휴지부보다 긴 휴식이나 「죽」으로 설명하는 경우에 쓴다. 종서에서는 「.」을 사용한다.
- 「:」 중지부(中止符) [그침표] : 콜론-긴 휴식이나 소속되는 종류 및 사항을 들 때에 쓴다. 종서에서는 「·」을 사용한다.
- 「·」 종지부(終止符) [마침표] : 피어리드-문장이 끝남을 나타낸다. 구미어(歐美語)에서는 No., A.D., B.C. 등과 같이 약자로, 또는 1962. 3. 1. 과 같이 연월일의 생략부(省略符)로, 수학의 소숫점 등으로 쓰인다. 종서에서는 「。」을 사용한다.
- 「?」 의문부(疑問符) [물음표] : 퀘스천마크-질문이나 의문을 표시한다.
- 「!」 감탄부(感歎符) [느낌표] : 엑스클러메이션마크-감탄이나 문장의 강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 !!! / !!」 등도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 중간점(中間點) [申黑(나까구로) <日>] : 대등한 단어 또는 어귀가 접칠 때나, 「八·一五」, 「4·19」 등 둘 이상의 숫자로 된 말에 넣는다. 구미 사람들의 이름과 성 사이에 「에이브러햄·링컨」 과 같이 넣는 수도 있으나, 두 사람으로 오독될 염려가 있으므로 좋지 않다.
- 「〇」 환언부(換言符) [긴 줄(2자분)] : 대 시
- 「—」 환언부(換言符) [짧은 줄(1자분)] : 대 시
- 이상 둘 다 바꿔 말할 때에 「바꿔 말하면」이라고 들어갈 자리에 넣거나, 어귀를 삽입할 때에, 그 어귀의 앞뒤에 괄호 대신 해석부(解釋符)로 쓴다. 「……」과 아울러 인속부(引續符)로도 쓴다.
- 「……」 생략부(省略符) [줄임표] [말없음표] : 할 말을 생략하거나, 할 말을 줄일 때, 또는 위의 「——」와 아울러 도형이나 표식 등에

서 「개천절……10·3」과 같이, 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인속부(引續符)로 쓴다.

「〃」 동상부(同上符) [가지런표] : 뒷줄이나 옆줄과 같음을 나타낼 때 쓴다.

「“ ”」 인용부(引用符) [따옴표] : 쿠오테이션 마아크. 종서에서는「”」를 사용한다.

「' ’」 내인용부(内引用符) [작은따옴표] : 쿠오테이션 마아크. 종서에서는「”」를 사용한다.

이상 둘 다 인용한 글의 앞뒤에 쓴다. 표제나 특별한 명칭을 나타낼 때도 쓰며, 내인용부는 인용부 속에 쓴다. 또한 ”나 ”은 횡서에서도 쓴다. 이와 같은 인용부는 설명이나 서적명 등에 쓰기 위해서 「〈 〉(꺾음괄호), < >(이중 꺾음괄호), () (반달괄호)」 등과 같은 것을 특히 만들어 쓰기도 한다.

「()」 소괄호(小括弧) [손톱괄호] : 바아랭-한자(漢字) 또는 원어(原語)를 넣을 때 쓰며, 이같은 경우에는 괄호 속은 읽지 않아도 말이 통해야 한다. 또 설명이나 주석을 넣을 때도 쓰는데 이 경우에는 활자를 본문보다 작게 하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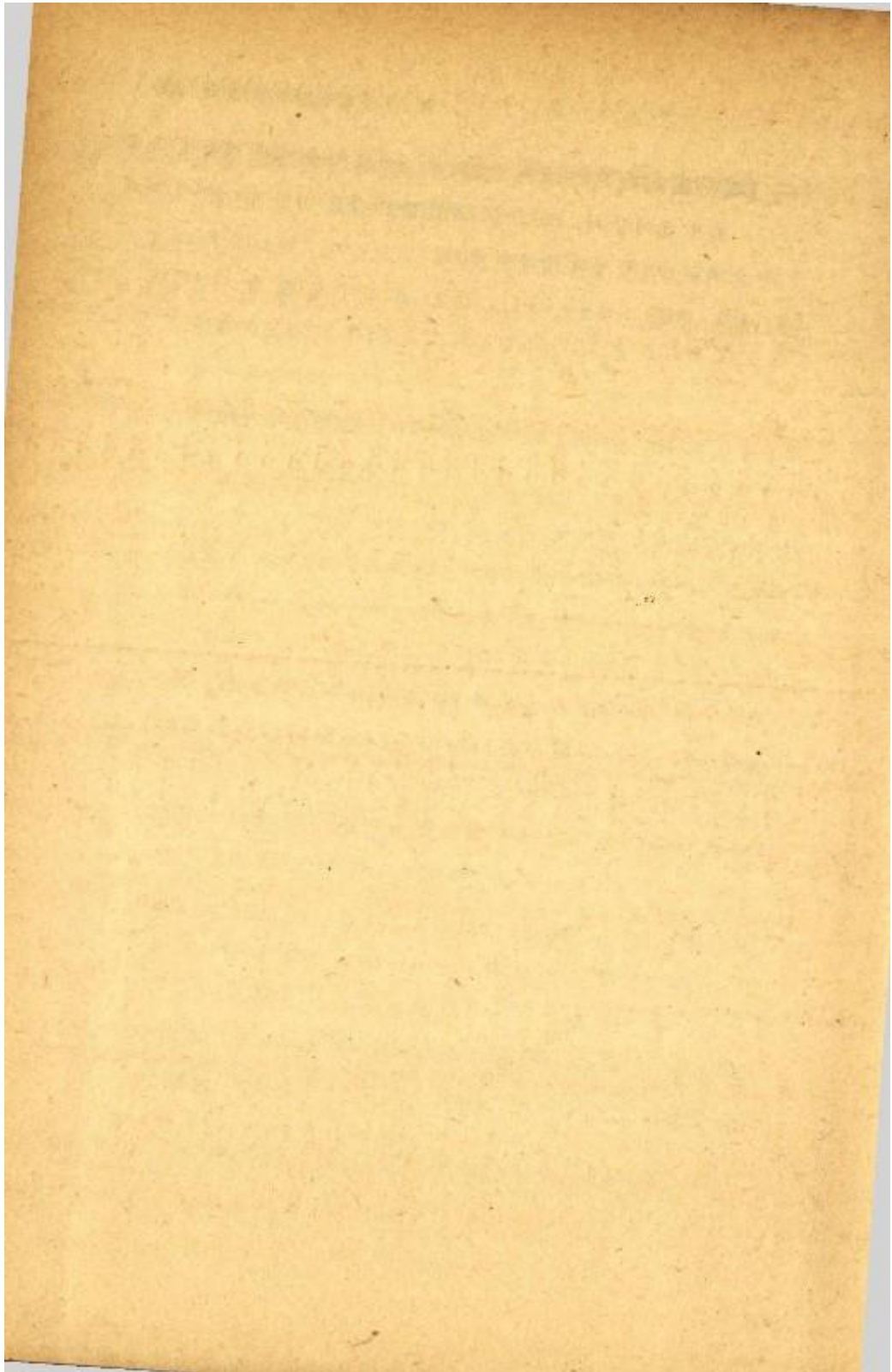
「[]」 대괄호(大括弧) [꺾쇠괄호] : 브레키트-보충할 말이나 생략한 말을 첨부할 때 쓰며, 근래에는 다음과 같이 ()와 구별한다.

수족(手足) 손발(手足)

「~」 내지(内至) : 1시부터 3시까지라고 할 때 「1~3시」로 쓴다. 번지(番地) 따위에서 「5의 3」 대신에 「5~3」으로 쓰기도 하지만 「5~3」이 좋다.

「-」 접합부(接合符) : 하이픈-구문에서 단어가 다음 행에 걸리어 도중
에서 끊어질 때, 또는 두 말이 합성(合成)하여 된 단어에 대해
서는 그 두 말의 중간에 쓴다.

「§」 장표(章標) : 섹션-「§ 1.」「§ 2.」와 같이 장(章)을 나타낸다.



索 引

【7】

가결	106	결과	46
가령	69	결국	46
가르치다	148	결렬	106
가리지 않는	103	결론	46
가슴아프게	103	결정	64
가운데	45	결코	46
가정	69	경제	64
가지	19	계획	63, 95
「가지고」의 약부	32	고	114
가행 직선 위치 변화	114	고는	114
「가」행 최장선 약부	63	고도성장	159
「가」행 최장선 접속사 약부	40	고유명사	163
관다	110	곤란	64
관이 약부	19	골육상쟁	159
관망질망	159	공개법인	159
관개무량	159	공사	94
감사	64	공산	64
같은	19	과반수	105
같은데	19	파잉충성	159
가답	45	관계	64
가지	19	관계조사 약기법	27
개정	106	광범위	103
개정 법률	106	피외	63
개혁	64	피외집단	63
개혁	105	교육	63
개달다	147	구사일생	159
개뜨리다	148	국가	63
거두다	148	국내외 정세	63
지수가결	105	국리민복	159
건설	64	국명약자	106
것없이	103	국무총리	63
것이다	111	국민	63
		국경감사	63
		국제	64

그거나.....40
 그렇게.....44
 그렇다.....110
 그리고.....40
 그야말로.....57
 그와같이.....56
 근로대중.....159
 금년.....64
 금시초문.....159
 금융.....64
 끝마치다.....148
 기관.....64
 기다리다.....147
 기르다.....148
 기립표절.....105
 기 및 분기.....89
 基本動詞略記法.....109
 기본동사약자.....109
 기본동사약자의 원형.....110
 記事略符.....162
 「기전에」의 약부.....33
 기업.....63
 기조연설.....159
 기전매진.....159
 긴급동의.....105
 긴장상태.....159
 긴장완화.....64

[L]

나.....114
 나간다.....110
 나누다.....147
 나라.....65
 나아가서.....103
 나온다.....111
 나와서.....103

나타나다.....148
 「나」행 최장선 약부.....64
 난상토론.....105
 날이갈수록.....58
 날치기.....64
 남북대화.....103
 남북통일.....69
 남측.....64
 남세.....64
 내각.....64
 내각책임제.....64
 내년.....64
 내용.....64
 냉전.....64
 너무.....45
 노골적.....65
 노동.....64
 노력.....65
 노심초사.....159
 논란.....64
 놀라다.....147
 농민.....64
 농산물.....103
 농성.....65
 농수산물.....103
 농작물.....103
 농촌.....64
 누구.....45
 느끼다.....147
 느냐.....114
 느냐고.....114
 느냐하는.....115
 는대.....114
 는대는.....114
 는지.....114
 늘어나다.....148
 니.....114

니짜114
 니깐114

[C]

다고115
 다고하면115
 다는데114
 다니다148
 다면114
 다수가결159
 다스리다148
 다시 말하면57
 다시 한번58
 다음45
 「다」행 최장선 약부64
 단체65
 달성65
 담화65
 답변65
 당101
 당국66, 91
 당리당락159
 당시45
 대단히64, 104
 대등소이159
 대부분58
 대원약부38
 대의명분159
 대전64
 대책45
 대체도론105
 대치조사 약부34
 대통령65
 대한민국65
 더구나45
 더군다나45

도96
 도대체45
 도리어65
 「도」·「에도」에 붙는 접속사 약부26
 독과점65
 독립65
 독제65
 돌이켜보건대65
 動詞應用略記法124
 동족상잔159
 동족상쟁159
 동포65
 「되어」·「되기」의 약부29
 되풀이65
 된다111
 두렵다64
 둔다110
 둘러싸고103
 뒤떨어진다65
 뒷받침65
 드디어64
 드리는 바이다111
 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57
 드린다111
 「든지」·「든가」의 약부30
 듣다148
 디플레108
 디플레이션108
 따라서64
 따름이다45
 때문45
 멀어지다147
 「또」용용 약부39

[L]

「라」행 최장선 약부65

리라는데114
 리라고114

[口]

마음대로.....57
 마지막.....46
 마지 않는 바이다.....57
 마찬가지로.....57
 「마」행 최장선 악부.....65
 만들다148
 만장일치125
 만큼45
 말씀104
 말이났으니말이지.....57
 말한다111
 말기다148
 매년.....65
 배우.....65
 며114
 면114
 편서114
 명.....19
 명명백백159
 명백665
 명약관화159
 밋19
 모른다110
 목적.....65
 못한다130
 무기명투표105
 무엇.....44
 무역.....65
 문명.....65
 문자 그대로.....57
 문건우토159
 문계.....45

문화.....65
 물가665
 물가 및 소송100
 물론.....66
 물질문명.....66
 미루어 보건대58
 미루어 보면57
 미스프린트108
 민심.....65
 민족66, 86
 민주.....65
 믿는다110
 밀가루.....66
 밀수.....66
 밋.....19

[ㅂ]

바란다110
 바르는것이다153
 바르다.....148
 바야흐로.....58
 바와같이.....56
 「바」행 최장선 악부.....66
 박수162
 반대.....66
 반대어.....19
 발는다111
 발달.....66
 발언.....66
 밝힌다111
 방법.....66
 방송.....92
 방침.....66
 방향.....66
 배우다148
 백보.....66

백성.....66
 버린다110
 법.....98
 법관.....66
 벗어 나다148
 변화.....66
 보내다148
 보는바와 마찬가지로57
 보다110
 보다시피.....57
 보더라도.....57
 보증설명105
 보혈.....91
 복잡다난160
 복잡다단160
 복잡동사 응용약기법.....143
 복합시제 응용약기법.....121
 본다110
 본부.....92
 부가가치.....66
 부결106
 부득이.....46
 부르짖는다.....57
 부 및 부.....93
 부정부패160
 부정축재160
 부조리.....66
 부지런하다147
 부총리.....66
 부터.....19
 복귀.....66
 분명.....66
 불구하고.....57
 불신임105
 불신임결의안105
 불철주야160
 불이다148

비동명.....66
 비로소.....66
 비추어.....66
 빌어서103
 비밀비재160
 빙자해서.....66
 빛나다147
 뼈아프게103
 뼈저리게103
 뿐아니라.....57

【人】

사고방식160
 사람.....45
 사리사욕160
 사법.....66
 사사건건160
 사상.....67
 사업.....66
 사이.....45
 「사」행 최장선 약부.....66
 사회.....66
 삭제.....66
 산업.....66
 산회105
 산회물 선포합니다.....106
 삼척동자160
 삼천리금수강산.....67
 上線略字.....44
 새마을 운동.....103
 생산.....67
 생존경쟁160
 생필품.....67
 생활.....67
 선거운동.....67
 설명.....67

설상가상160
 설왕설래160
 성공.....67
 성명.....67
 세.....97
 세계.....66
 세금.....66
 세우다147
 센세이션108
 소원약부.....36
 소원형 위치변화.....114
 속기.....66
 속전속결.....66
 손치더라도.....57
 수정안106
 숙덕공론160
 순국선열160
 스텝다.....19
 스포츠108
 시스템108
 시시비비160
 시일내101
 시제변화116
 시종일관160
 시킨다111
 신문기자.....66
 인사숙녀160
 심사보고105
 심사숙고160
 심의.....67

[O]

아는바와같이.....56
 아는바와 마찬가지로57
 아니다111
 아니라111

아니하다130
 아닌게 아니라.....58
 아래와 같이56
 아름답다147
 아무.....45
 아무리.....46
 아무포복.....57
 아시다시피.....57
 아울러.....45
 「아」·「자」행 최장선 접속사약부.....41
 안전.....67
 안전보장160
 아전인수160
 아직.....46
 아프다148
 「아」행 최장선 약부.....67
 안녕질서160
 안다110
 안된다111
 안한다130
 않는다.....111
 않으면111
 알시.....67
 약부104
 양보해서103
 애기.....45
 어느.....46
 어느 정도.....57
 어떤.....45
 어디까지.....45
 어렵다147
 어리석다148
 어마어마한103
 어미변화113
 어부지리160
 억제.....67
 언어도단160

언제.....45	우여곡절.....160
얼다.....147	우왕좌왕.....160
얼마.....45	운동.....67
없다.....111	운영.....67
없애다.....148	움직이다.....147
없어서.....41	웃음.....163
여기.....45	원리원칙.....160
여러 가지.....57	원인.....67
여러분.....67, 88	원조.....67
여하간.....37	원칙.....68
역사.....67, 86	위와 같이.....56
역시.....67	위원회.....96
연구결토.....160	위치변화 응용약기법.....145
열리다.....147	위협천만.....160
엮준다.....67	유권자.....67
英文字應用略字, 略符.....107	유사이래.....160
영향.....67	유신.....67
예를 들면.....57	유신체제.....69
예산.....87	유신헌법.....70
예컨대.....57	유언비어.....161
오늘.....67	UN 총회.....107
우신각신.....160	UN 회원국.....107
온다.....110	유종의 미.....58
올린다.....67	유효적절.....161
올림픽.....108	의사일정.....105
올시다.....36	의사진행.....105
완전.....67	의사진행발언.....105
왕가월부.....160	의정단상.....161
왜 그러나 하면.....57	이거야말로.....56
왜냐 하면.....57	이끌다.....148
요컨대.....57	이다.....111
육구불만.....160	이데올로기.....108
용두사미.....160	이래서.....44
우리.....44	이렇게.....44
우리 나라.....44	이렇다.....111
우리아말로.....57	이루고.....68
이상 빠침선 위치 변화.....115	이르러서.....68

이르렀다.....68
 이미.....45
 이야기.....45
 이와 같이.....56
 이용.....65
 인권옹호.....161
 인권유린.....167
 인정과세.....67
 인플레이.....108
 일사부재리의 원칙.....106
 일로매진.....161
 일반.....67
 일망타진.....161
 일사천리.....161
 일어나다.....147
 일언반구.....161
 일으켜.....68
 일으키고.....68
 일인일기.....161
 일조일석.....161
 1차대전.....64
 입법.....67
 입후보.....67
 있다.....111
 있어서.....41

[지]

자가당착.....161
 자구수정.....105
 자금.....92
 자급자족.....161
 자기.....46
 자면.....115
 자신.....46
 자유.....68
 자주국방.....161

자포자기.....161
 「자」행 최장선 약부.....68
 작년.....68
 작전.....68
 잘한다.....130
 잠시.....68
 장관.....67
 장군.....67
 저것.....44
 저로서.....44
 저렇게.....44
 적.....97
 적어도.....45
 적인.....19
 적재적소.....161
 전국.....45
 전전긍긍.....161
 전제조건.....161
 절.....89
 점 및 기본문자에 부가하는 약부.....31
 접두어 응용동사 약기법.....130
 접속사 약부.....20
 정당방위.....161
 정부.....68
 정정당당.....161
 정신.....68
 정치.....45
 조건.....68
 조그마한.....103
 조치.....102
 조합.....91
 존경.....68
 존칭.....112
 종결부.....165
 주더라도.....57
 주식회사.....90
 중농정책.....64

중언부언161
 중원약부37
 주의67
 주의부164
 지114
 지극68
 지금38
 지나치게68
 지나친68
 지는114
 지도68
 지만114
 G. N. P108
 지지부진161
 지키다148
 직접68
 진영68
 질문68
 질서유지161
 질의68

[天]

「차」행 최장선 약부68
 참모69
 참작69
 창립69
 처럼45
 처음45
 천명69
 철두철미161
 철저히68
 청95
 청와대69
 최근45
 最長線略字63
 最長線應用略字89

최장선 집속사 약기법40
 촉진68
 총선거69
 추진68
 추측149
 축조심의105
 충분69
 치더라도57
 치안68
 친선69
 친애69
 침략69
 침소봉대161

[ㅋ]

「카」행 최장선 약부69
 커다란69
 케이스69
 케이스바이케이스118

[ㅌ]

「타」행 최장선 약부69
 타상공론161
 탐관오리69
 태극기69
 태도69
 태두리69
 토목45
 통과69
 통일69
 통해서103
 투옹자69
 투자69
 투쟁69
 투벌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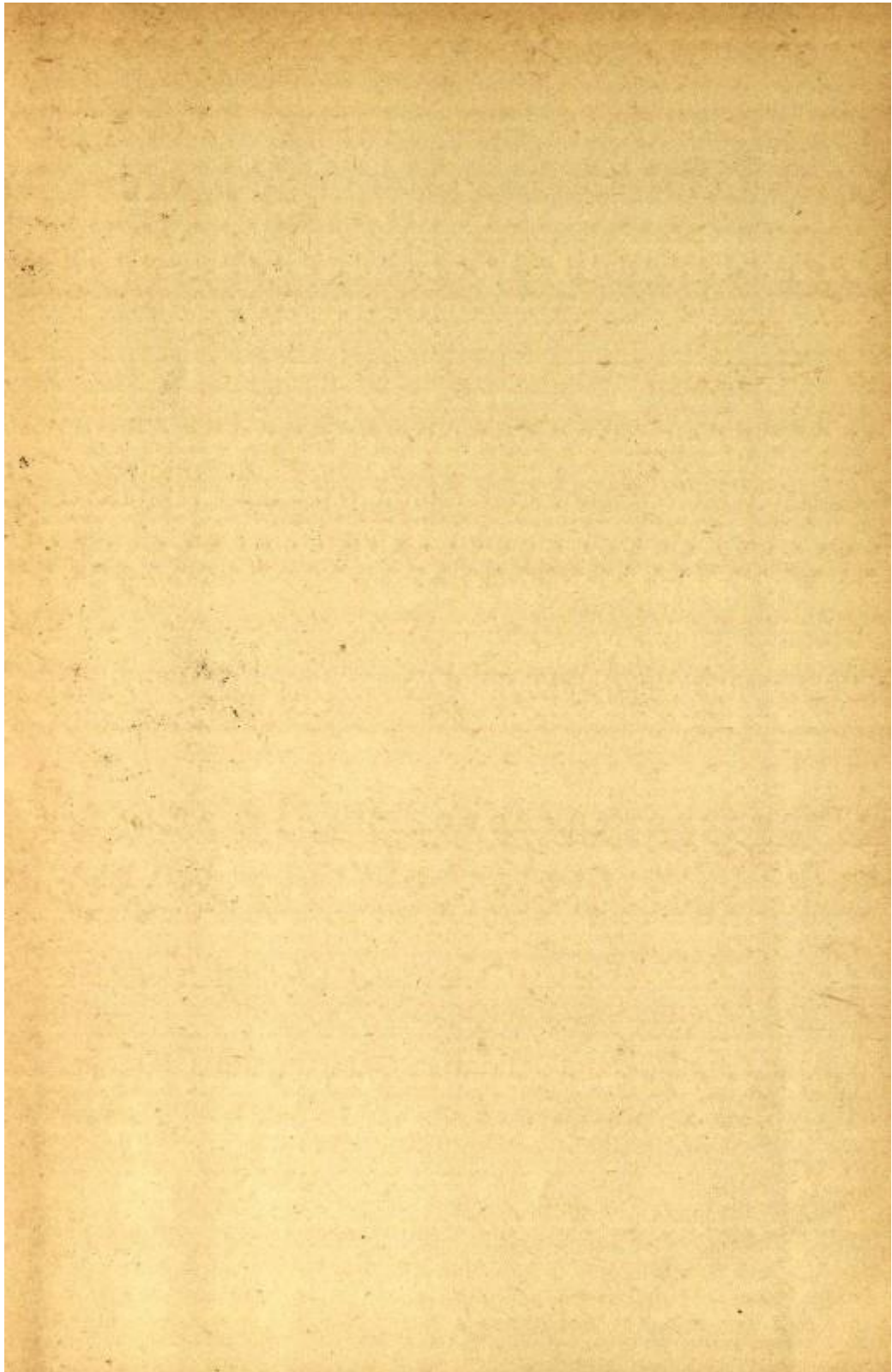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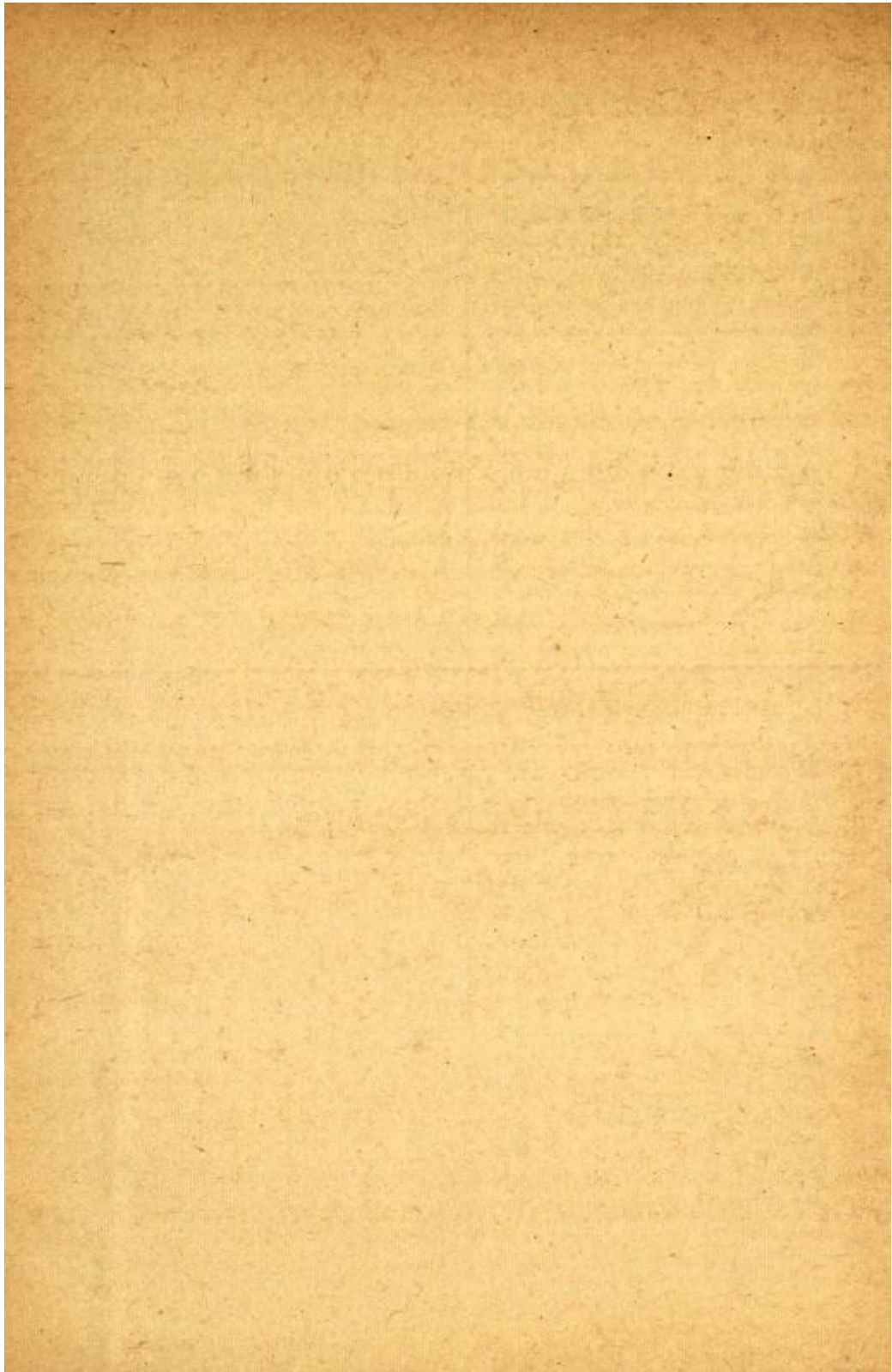
「파」행 최장선 약부.....70
 패기.....70
 퍼센테이지.....108
 폐기.....70
 폐회.....105
 평등.....70
 평화.....70
 평화애호.....161
 평화통일.....69
 포기.....70
 목격.....70
 표결.....106
 표한다.....111
 프로테이지.....108
 피난민.....70
 특별회계.....99
 복수.....45
 특수동사 약자의 원형.....110
 특과원.....103
 불림없이.....69
 봄바구니.....69

[하]

하거나.....141
 하거늘.....131
 하고 있다.....111
 하고 있습니다.....145
 「하기」의 약부.....27
 하느님.....70
 하더라도.....57
 하루바삐.....57
 하루속히.....57
 하물며.....45
 하지 않는다.....145

「하」행 최장선 약부.....70
 학교.....70
 한국.....70
 한다.....111
 한다는 것.....131
 한반도.....70
 한편.....19
 할 것 같으면.....138
 합니다.....112
 항상.....70
 해결.....70
 해방.....70
 해서.....115
 해준다.....110
 행동.....70
 행정.....70
 허무명량.....161
 허심탄회.....161
 헌법.....70
 혁명.....45
 혁신.....70
 현재.....70
 현하.....70
 열경.....88
 협회.....92
 형편.....70
 호구지책.....161
 호시탐탐.....161
 확립.....70
 확실.....70
 환율.....70
 회답.....102
 회의.....101
 회의용어 약자.....104





謹呈

東邦式速記學(下)

定價 2,500圓

1978年 7月 20日 初版印刷

1978年 7月 25日 初版發行

編者 李 康 賢
柳 舜 台
發行者 金 容 信
印刷處 章 源 精 版 社

서울特別市 鍾路區 新門路 2街 91

發行處 學 友 社 (倫)

登 錄 1971. 6. 11. No. 가-1-27호

電 話 ① 3237 ② 8678 對替 528703

總供給 韓國出版協同組合

